

I. 서 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최근 20년 동안 교육인적자원부의 집계에 따르면, 우리 나라에서 매년 중·고등학교를 중도에 탈락하는 청소년들은 7만 명 내지 8만 명에 이르고, 재학생수에 대한 학업중도탈락자 비율도 최저 1.3%(1980, 1994)에서 최고 2.1%(1998)의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참고: 문교부, 1980~1989; 교육부, 1990~2000; 표Ⅱ- 2 참조). 특히 1996년 이후 최근 5년 간 중도탈락률은 최저 1.7%에서 2.1%에 이르러, 재학생 1000명 중 약 17명에서 21명에 이르는 청소년들이 자의든 타의든 간에 학업을 중도에 그만두는 셈이다.

이러한 재학생 수 대비 중퇴생 비율인 학업중도 탈락률을 1980년대 미국의 26%(U.S. News & World Report, 1980), 고등학교 중도탈락률 30%(Wagenaar, 1987: 161), 1990년대의 중도탈락률 11%(Capuzzi & Gross, 1996)와 비교하면 아직은 심각한 수준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청소년문제의 심화와 함께 '비전통적 학업중도 탈락자'들이 점증하고 있고(황창순, 1996; 교육부, 1997; 남상인, 2000: 226), 중도탈락 전 단계로 보여지는 '잠재적 중도탈락자'의 수도 적지 않은 실정이고 보면(유성경·이소래, 1998), 이는 중대한 청소년현상의 한 유형이라 아니 할 수 없다.

특히 1990년대 이후 최근에 이르러 전통적인 학업중도탈락은 감소하고 자의에 의한 중도탈락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 추이에 있어 점증한다는 논의가 커지면서(참고: 조혜정, 1996; 유성경·이소래, 1998; 남상인, 2000; 구본용·정찬석, 2001), 학업중도탈락의 구조적 변화가 예고되고 있

다. 과거에는 주로 경제적 사유에 근거한 빈곤·결손가정의 청소년들이 학업을 중도에 그만두거나, 일탈 및 비행청소년들이 학습장면으로부터 밀려나는 경향이 많았지만, 요즘은 부모가 있는 정상적인 가정과 중산층 가정출신의 청소년들, 그리고 비일탈적 성향의 중도탈락 청소년들이 점증하는 추세이다. 즉, 경제성장에 따른 전반적인 생활수준과 교육수준의 향상에 따른 전형적인 학업중도탈락의 경우는 감소하고 있는 반면, 자발적인 중도탈락자들이 증가하고 있다.

학령기에 학업을 중도에 탈락하거나 포기·거부하는 경험은 청소년 개인에게 있어 바람직하지 못한 영향을 미치고, 교육과 사회적인 장면에서도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예컨대, 중도탈락 경험은 학령기에 요구되는 적절한 준거집단에서 얻는 소속감과 동일시의 준거를 잃게 하고(김준호, 1993: 23), 이런 가운데 탈락청소년 개인은 삶의 발달과정에서 소외감과 좌절감, 학력에 따른 열등감 등 부정적인 경험들을 누적적으로 쌓게 된다. 이어 다양한 위협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져 결국 비행이나 일탈로 연결되는 경향이 많다(참고: 장석민 외, 1988; 표갑수, 1992; 송광성 외, 1992;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3; 김준호, 1994; 최인용 외, 1996).

아울러 중도탈락 경험은 이 시기에 필요한 기술습득 및 기회마저 상실케 함으로써 자신의 진로설정 및 개척에도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고 보았다(황창순, 1995). 이는 곧 중도탈락 청소년들이 노동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입하는데 있어 불리함과 어려움을 겪게 하고, 결국 실업자가 되게 하는 확률을 높인다. 미국의 경우 고등학교 중퇴자가 정상적인 고교 졸업자보다 실업률이 두 배 이상 높다는 사실이 이를 입증한다(Wagenaar, 1987). 이러한 결과는 보다 높은 교육수준과 기술수준을 요구하는 전문직군이 많아지고 상대적으로 단순한 육체노무직이 감소하는 최근의 직업세계 및 노동시장의 구조적 변화와 관련이 깊다.

또 학업을 중도에 그만둔다는 것은 중퇴 청소년 개인뿐만 아니라 그

가족에게도 하나의 위기경험으로 작용한다(이숙영, 1997: 7). 부모와 형제들은 자신의 자녀와 형제가 중퇴로 인하여 얻은 실패감과 절망감으로 인해 상당한 스트레스를 공유하게 된다.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녀가 중퇴하면 부모 자신과 자녀의 삶이 함께 실패한 것으로 단정하여 삶의 의미를 상실하고 근로의욕이 저하되는 경험을 가진다. 형제들 역시 중퇴청소년과 부모의 영향으로 인하여 적지 않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

사회적 측면에서도 청소년의 학업중도탈락은 사회복지비용 및 각종 보호·교정·교화비용 등 사회적 부담을 가중시키며, 인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오히려 조기에 상실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논의하였다(참고: 남상인, 2000; 이숙영, 1997).

이렇게 청소년의 학업중도탈락이 개인과 가정, 사회적 수준에 이르기까지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그 동안 중도탈락현상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들이 제시한 결과이며 이에 따라 중퇴청소년에 대한 사회적·국가적 수준에서의 개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주장의 근거로 활용되어 왔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대로 최근 자발적 학업중도탈락자들이 점증하는 추세이고, 또 이들은 전통적인 학업중도탈락자와 다른 중퇴배경요인들을 갖는다면, 전체 중퇴현상과 비교해 자발적인 중퇴자들도 동일한 영향과 결과를 가질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는가? 또 자발적으로 학업을 중도에 포기하거나 거부하는 사례에서 보여지는 영향요인들이 이른바 '전체' 중퇴경향과 같은 것으로 단정할 수 있을 것인가? 한편으로는 자발적 학업중도탈락자들에게도 전통적인 학업중도탈락자들과 같은 사회적 개입전략과 지원시스템을 제공해야 하는가?

적어도 결과에 있어, 개인적 수준에서는 분명히 다를 수 있다. 학업을 중도에 그만둔다는 '결단'이 '학습에 대한 의지'까지 포기한 것이 아니라면, 비행이나 이탈적 경향에 쉽게 접근하지 않으려는 자기의지를 이미 개인적 수준에서 내면화 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자기가 하

고 싶은 ‘일’을 위해 ‘등교’를 포기한 것이지 ‘학습’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면, 현재 학력에 의해 편제되는 노동시장구조에 있어 유리하지는 않더라도, 노동시장에 대한 이른 진입을 통해 실험적인 시도나 다양한 시도들을 모색하는 기회로도 해석할 수 있다. 나아가 개인의 결단이 가족 구성원의 합의와 지지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면, 자발적 학업중도탈락 청소년의 가족 구성원들에게는 중도탈락 가족이 받는 전형적인 스트레스나 좌절감 등과는 거리가 멀 수도 있다. 더욱이 사회적 수준에서 입시경쟁 위주의 학력사회를 거부하거나 회피하기 위한 경우라면 그 동안 고려되었던 개입의 절차와 내용, 성격은 달리 구안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최근의 학업중도탈락자들의 실태와 추세, 특성들을 면밀히 탐색하여 과거의 전통적인 학업중도탈락과는 달리 자발적인 학업중도탈락이 갖는 심리·사회적인 의미와 특성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학업중도탈락과 자발적 학업중도탈락이 무엇이며, 자발적 학업중도탈락 현상의 발생요인이 무엇인가를 규명하는 작업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리고 자발적 학업중도탈락 현상의 발생요인과 그것이 함의하는 의미와 성격에 기초하여 사회 각 영역에서 고려되어야 할 적절한 대응방안 수립도 요구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이와 같은 자발적 학업중도탈락의 변화양상이 과거의 전형적인 중도탈락 현상과 어떻게 다르며, 그 발생요인은 무엇인가를 비교·분석하여 궁극적으로 오늘의 청소년들에게 적절한 교육적 대안 및 자발적 학업중도탈락자들을 위한 사회적 지지망 축조에 지원함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목적을 위해 문헌연구 및 양적인 연구를 동시에 수행하였다. 먼저 자발적 학업중도탈락 현상을 탐색하기에 앞서 그 동안 수행되었던 학업중도탈락 선행연구들을 검토하고 비판적인 해석을 취하였다. 학업중도탈락 현상에 대한 그간의 연구경향이 어떤 측면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며, 이러한 연구결과들이 오늘날 대두되고 있는 자발적 학업중도탈락현상을 이해하고 비교하는데 어떤 시사점을 주는지를 역시 탐색하

였다. 아울러 자발적 학업중도탈락의 현황과 실태의 특성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관련 통계를 참고하거나 자료의 인위적 가공을 통해 얻었다. 여기서 인위적 가공의 필요성은 교육부의 교육통계연람 등 관련 통계자료에는 학업중도탈락 청소년들을 일률적으로 ‘중퇴생’으로 묶어두고 있고, 중퇴생에는 제적, 중퇴, 휴학자를 함께 처리하여 중퇴가 자발적인지, 타의에 의한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이다. 아울러 전통적 학업중도탈락과 자발적 학업중도탈락의 발생요인을 비교·분석하기 위해 자발적 학업중도탈락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2. 연구의 내용

본 연구의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이 설정되었다.

- 1) 학업중도탈락에 대한 기존 선행연구들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
 - 1-1. 선행연구들의 주요 내용과 흐름은 무엇인가?
 - 1-2. 학업중도탈락 현상에 대한 기존 선행연구의 비평점은 무엇이며 연구과제는 무엇인가?
- 2) 자발적 학업중도탈락이란 무엇인가?
 - 2-1. 자발적 학업중도탈락의 유형과 자발적 학업중도탈락이 갖는 심리·사회적 의미와 특성은 무엇인가?
 - 2-2. 자발적 학업중도탈락의 실태와 현황은 어느 정도인가?
- 3) 자발적 학업중도탈락의 발생요인은 무엇인가?
 - 3-1. 자발적 학업중도탈락 발생요인은 개인의 특성변인과 관련이 있는가?
 - 3-2. 자발적 학업중도탈락 발생요인은 가정의 특성변인과 관련이 있는가?
 - 3-3. 자발적 학업중도탈락 발생요인은 또래집단 특성변인과 관련이

있는가?

3-4. 자발적 학업중도탈락 발생요인은 학교특성변인과 관련이 있는가?

3-5. 자발적 학업중도탈락 발생요인은 사회특성변인과 관련이 있는가?

3-6. 전통적 학업중도탈락과 비교하여 발생요인별 어떤 차이를 갖는가?

3. 용어에 대한 탐색과 정의

1) 학업중도탈락(School Dropout)과 전통적 학업중도탈락

학업중도탈락이나 혹은 중퇴라는 용어는 다양한 기준에서 다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것은 그만큼 개념이나 용어에 대한 정의가 구체적으로 합의되어 있지 않음을 의미하고, 또 그만큼 다양한 중도탈락 유형이 있음을 말한다.

미국도 학업중도탈락이란 개념정의가 다양하게 혼재되어 사용하고 있고, 학교와 행정기관의 중도탈락에 대한 통계기준 및 방법이 다양하기 때문에 합의적 수준에서 개념을 정의하기가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포괄적 의미에서 학업중도탈락이란 용어를 사용하면서 유형에 따른 구분을 시도하고 있다. 예컨대, 모로우(Morrow, 1986)는 학업중도탈락의 유형을 다음의 다섯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면서 학업중도탈락 현상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명하고 있다. 즉, 학업중도탈락은 첫째, 바람직하지 않은 학생으로 판단되어 밀려나는 학생들(push-outs), 둘째, 학교와 관련되기를 원하지 않은 비 제휴형의 학생들(the unaffiliated), 셋째, 학교의 프로그램을 완료하지

못하는 유형인 교육적 사망자들(educational mortalities), 넷째, 능력은 있으나 가정에서의 사회화와 학교의 요구가 일치하지 않아서 중퇴하는 학생들(capable dropouts), 다섯째, 결국은 다시 학교로 돌아오는 중퇴자인 중지자(stop-outs) 등이 모두 학업중도탈락 유형 안에 포섭된다고 논의하였다. 최근에는 학업중도탈락을 “12학년을 이수하지 못하였거나, 공교육의 졸업인정(GED; General Equivalency Diploma)을 받지 못한 사람”으로 정의하기도 한다(Shaub, 1997).

우리나라에서도 대체로 학업중도탈락자란, “자의든 타의든 학교교육을 받지 못하거나 앓는 학령인구” 혹은 “여러 가지 이유로 학교공부를 지속하지 못하거나 앓는 사람”이며 “사회적으로 졸업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 등을 의미하므로, 학업중도탈락 역시 이런 의미들을 포괄하는 용어로 사용하였다.

하지만 학업중도탈락이 학교현장이나 제도교육으로부터 유리됨을 감안하여 그 유형을 구분하자면 “학교에서 여러 가지 규정에 따라 강제로 퇴학되는 ‘명퇴’와 학생 스스로 학교를 포기하거나 거부하는 ‘자퇴’”라는 두 유형으로 구체적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은 명퇴의 경우에는 자신이 중퇴한 학교나 동일한 수준의 다른 학교로 복학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만, 자퇴의 경우는 본인이 원하면 언제라도 중퇴한 학교나 다른 학교로 다시 복학할 수 있다는 점이 다르다.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이러한 차이점이 중퇴청소년들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데에 많은 함축성이 있다고 믿고 있다(참고: 황창순, 1995: 58; 송 복 외, 1996: 178). 이것은 중퇴청소년의 유형에 따라 대응방안이 다를 수 있다는 점에서 자발적인 학업중도탈락인지 아닌지에 따른 대책들이 구별되어 구안되어야 한다는 논의로도 보여져 본 연구로서도 시사점이 적지 않다.

이런 맥락에서 기존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학업중도탈락을 ‘전통적인 학업중도탈락’과 ‘자발적 학업중도탈락’으로 구분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여기서 전통적인 학업중도탈락은 첫째, 학업을 계속하고 싶지만 외

부조건이 여의치 않아 그만두는 경우와, 둘째, 학생 개인이 학교적응을 못 하므로써 그만두는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 여기에는 비행과 범죄 등의 일탈적 행위로 인해 학교장면에서 벗어나는 경우도 포함된다. 이에 비해 자발적 학업중도탈락은 학습자 자신의 의지로 학교교육을 스스로 중지·거부하는 경우를 말한다. 지금까지는 학업중도탈락하면, 전통적인 학업중도탈락을 말하거나 혹은 자발적 학업중도탈락을 포함하더라도 개념 내에서 크게 유의하지 않는 포괄적인 개념에서 정의·사용되어 왔다. 본 연구에서도 학업중도탈락이란, 자발적 학업중도탈락을 모두 포함하는 포괄적인 용어로 사용하였으며, 이 중 자발적인 중퇴현상을 제외한 나머지의 경우를 '전통적인 학업중도탈락'이란 용어로 사용하였다.

2) 자발적 학업중도탈락(Voluntary Dropout)

학업중도탈락이란 용어에 근거해 자발적 학업중도탈락자란 용어를 정의하자면, “자의로 학교교육을 거부 혹은 중지하는 학령인구”, 혹은 “학교공부를 지속하지 않기로 스스로 포기·회피·거부하는 사람”이며, 사회적으로 졸업중에 크게 연연하지 않는 사람을 의미한다. 이런 의미에서 자발적 학업중도탈락은 학업중도탈락이란 용어에 비해 보다 명시적이며, 학교장면이나 제도교육을 중심으로 보자면 분명히 명퇴가 아닌 자퇴현상임을 알 수 있다. 모로우의 학업중도탈락 유형에서 살펴보면, 두 번째 “학교와 관련되기를 원하지 않은 비제휴형의 학생들(the unaffiliated)”과 네 번째, “학업수행의 능력은 있으나 가정에서 받은 사회화의 결과와 학교의 요구가 일치하지 않아 자발적으로 중퇴하는 학생(capable dropouts)”이 자발적 학업중도탈락자의 의미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우리 실정에서 ‘자퇴자’들을 모두 자발적 학업중도탈락자’라고 보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한계가 있다. 무엇보다도 각급 학교현장에서 자퇴로 분류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실제 자퇴생에 대한 자료의

신뢰도가 낮기에 개념상의 정의와 현실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는 곧 자발적 학업중도탈락자들의 현 실태를 파악하는데 있어 어려움을 갖게 하는 요인이자 동시에 본 연구의 한계로 지적된다. 즉, 우리 나라의 경우는 앞서 언급한 대로 중퇴를 크게 '명퇴'와 '자퇴'로 구분하는데, 대부분의 학부모와 교사들은 중퇴 청소년 개인의 장래를 위하여 명퇴의 사유가 되더라도 자퇴로 처리하는 경향이 많다. 따라서 자퇴생에 대한 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또 자퇴한 청소년들의 현 실태에 대한 통계수치에 허수가 존재하므로 단순히 자퇴라는 개념이 자발적 학업중도탈락과 등치(等値)될 수 없는 한계를 갖는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자발적 학업중도탈락의 개념을 자퇴나 모로우의 개념들보다 더욱 제한하기로 하였다. 왜냐하면 II장에서 언급될 자발적 학업중도탈락의 유형에서 다시 살펴보겠지만, 보다 적극적인 의미에서 보여지는 자발적 학업중도탈락이란, 청소년 개인이 학습의지를 가진 채 현행 입시교육 및 공교육을 적극적으로 거부하는 경우로 제한하는 것이 '자발적'이란 말의 진순한 의미에 보다 적절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단순히 입시교육상황에서 비교내신제의 폐지에 따라 좋은 내신성적을 받기 위해 점정고시 학원으로 가는 경우(특수목적고등학교 출신자들의 중퇴)와 혹은 경직된 학력사회를 벗어나기 위해 외국유학을 가는 경우(조기유학을 포함해 외국유학을 위한 중퇴현상)에는 자발적인 청소년만의 의사가 개입되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외국유학의 경우에는 적지 않은 학비가 들어가는 현실에서 개인의 의지가 있다하더라도 부모의 적극적인 의사와 지원이 개입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므로 순수한 의미에서의 '자발적 학업중도탈락'의 한 유형으로 보기 어렵다.¹⁾

조혜정(1995: 102)도 이와 관련하여 '적극적 자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는데 이 용어는 "기존의 학교체제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학교를 그만두는 경우이며 대개 적극적인 대안을 전제로 하는 자퇴"라는 의미를 갖는다고 논의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도 자발적 학업중도탈락이란 "청소년 스

스로 학습의지가 있으면서 학교교육을 분명하게 거부하거나 포기하고자 하는 개인의 의사가 있는 경우”로 제한하였다.

4. 연구의 기대효과

본 연구의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업중도탈락 현상과 자발적 학업중도탈락 현상을 비교, 검토함으로써 최근 점증하는 자발적 학업중도탈락이 갖는 의미와 시사하는 바를 살펴볼 수 있다.

둘째, 자발적 학업중도탈락 현상의 발생요인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통해 자발적 학업중도탈락 현상에 대한 심리·사회적 특성과 성격을 규명할 수 있다.

셋째, 자발적 학업중도탈락의 특성과 성격에서 함의되는 최근 청소년 세대의 이질적 가치관과 의식을 도출시킴으로써 자발적 학업중도탈락 현상에 대응하는 새로운 정책적 지향점과 방향성을 구체화할 수 있다.

넷째, 자발적 학업중도탈락현상에 대한 이해를 통해 사회적 교육적 지지망의 구축 등 거시적 측면과 미시적 측면에서의 학교 내 학업중도탈락 예방 및 결과 이후의 지원 프로그램 개발에 도움을 줄 수 있다.

5. 연구의 한계와 후속연구의 제시

본 연구에서 갖는 연구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발적 학업중도탈락 및 탈락자를 제한함으로써, 비교 내신제 폐지에 따른 학업중도탈락과 외국유학으로 인한 학업중도탈락 등 넓은 의미에서 자발적 학업중도탈락으로 보여지는 현상들에 대해 연구결과를 포괄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 특히 각 중퇴현상이 현행 입시교육제도가 빚어내는 중퇴현상이란 측면에서 일정 부분 공통적일 수 있으므로, 자발적 학업중도탈락 현상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후속연구로 다른 자발적 중퇴현상까지 포함한 후속연구와 논의가 수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자발적 학업중도탈락자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 원(源)이 취합되거나 기록되어 있지 않아, 자발적인 학업중도탈락 실태에 대한 정확한 자료제시 및 규명이 어렵다. 실제로 교육통계연보 등의 기초통계자료에서는 제적·중퇴·휴학자 등으로 학생변동상황을 취합·기록하고 있고, 중퇴원인 역시 1995년도까지는 단순히 질병·가사·기타로 구분하였다가, 1996년도부터 사망·품행이 추가되었지만 아직까지 자퇴와 명퇴를 따로 두거나 자퇴사유를 유형에 따라 세분하지 않아 자발적 학업중도탈락의 원인과 규모를 밝히기 어렵다(참고: 표 II- 5).

사실 중도탈락의 규모와 실태를 파악하는데 있어 현행 기초통계자료들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은 이전에도 누차 지적된 바였다. 예컨대, 지금의 교육통계연보 등 학생변동사항 통계자료는 학년 시작과 비교해 학년이 끝나는 시점까지의 변동이라는 결원자의 수의 측면에서 조사되고 있고, 상급학교에 진학하지 않은 학생은 제외시킴으로써 중도탈락 청소년의 수가 과소집계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송복 외, 1996: 26). 아울러 중

퇴율은 한 해 동안 중퇴자의 수를 학년 시작할 때의 재적인원 수로 나누어 백분율로 나타내야 하지만(김경식, 1996), 교육통계연보의 중퇴관련 자료가 학생변동사항에 휴학생을 포함시키고 있고, 결원자 수를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학생의 사망이나 유학, 이민까지도 중도탈락에 포함시키고 있어 중도탈락의 정확한 현황파악에 한계를 갖고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유성경·이소래, 1998: 5).

따라서 현행 기초통계조사로는 학업중도탈락 자체의 규모와 실태도 정확히 파악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런 실정은 본 연구의 한계이자 동시에 본 연구에 이어서 수행되어야 할 또 다른 후속연구과제라 할 수 있다. 즉, 학업중도탈락 현황이해를 정확하게 위해서 지금의 통계기준과 방향을 먼저 바꾸고 구체적인 통계조사 기준을 새롭게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특히 자발적 학업중도탈락자들에 대한 세부적인 지침과 기준을 마련하여 이에 따른 정확한 실태분석이 이루어지도록 후속연구와 이에 근거한 정책적 변화가 수행되어야 한다.

셋째, 본 연구에서 표집·분석된 연구결과는 자발적 학업중도탈락 청소년 모두의 경향을 대표하기에는 제한적이다. 표집된 청소년들이 대개 대안교육현장에서 활동하고 있거나 혹은 그곳에서 만난 청소년들이기 때문이다. 다양한 장면에서 활동하고 있는 자발적 학업중도탈락자들을 연구 대상으로 하지 못한 표집 상의 제한점은 그만큼 우리 사회에서 자발적으로 학업을 중도에 포기하거나 거부한 청소년들을 만나기 어려운 현실에 근거한다. 역으로 말한다면 이런 현실은 아직까지도 우리 사회

가 자발적 학업중도탈락 청소년들이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아니, 학력(學歷)이 지배적인 사회적 현실로 인해 가정이나 또래집단으로부터 인정받기 어려운 처지 즉, 자신을 떳떳하게 노출시킬 수 있는 분위기조차 제공하고 있지 못함을 의미한다. 실제로 대부분의 중퇴자들은 자신의 학력과 현실에 열등감과 불안감을 갖고 있으며, 자발적으로 학업을 중도에 포기 혹은 거부하였다 하더

라도 이런 열등감이나 불안감으로부터 완전히 비껴나 있지 못하였다.²⁾

따라서 전통적인 학업중도탈락 청소년들과 비교하여 자발적 학업중도탈락 청소년들이 갖는 특성들을 비교할 수는 있되, 자발적 학업중도탈락 청소년 모두의 경향을 대표하기는 어렵다. 향후 자발적 학업중도탈락 청소년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보다 포괄적인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II. 학업중도탈락 및 자발적

학업중도탈락에 대한 이해

1. 선행연구의 검토

1) 선행연구 요약과 비평

전통적으로 학업중도탈락에 대한 초기 선행연구들은 우리 나라의 입시위주 교육문화와 파행적인 학교교육에 연유하는 교육병리현상의 하나로 살펴보는 관점을 취하고 있다. 즉, 학업을 중도에 그만둔다는 의미는, 중퇴청소년 개인에게는 학교부적응의 차원에서 다루어지거나 학교 및 사회적 차원에서는 일종의 청소년문제와 같은 교육병리현상으로 이해되어 왔다. 따라서 그에 따른 대응방안 역시 중퇴청소년에 대한 원만한 지원방안을 모색하거나, 혹은 사회적 수준에서 일탈행위 및 비행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효과적인 일탈 및 비행의 예방·억제방안에 집중하여 왔다.

이러한 접근방법의 특성은 송광성 외(1992: 3~5)의 연구에서 적시되었다. 그는 정학생과 중퇴생에 대한 문제접근 방법으로 Fennimore(1988)의 연구를 인용하면서, ‘개인진단적 접근법’과 ‘제도적 접근법’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여기서 개인진단적 접근법이란 “중퇴생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가”라는 중심적인 질문을 던지고 거기에 대한 답을 찾으면서 중퇴문제에 접근하여 중퇴생이 갖는 특징이나 중퇴원인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을 말한다.

반면에, 제도적 접근법이란, ‘문제’를 가진 청소년들의 필요와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학교의 교육제도를 검토하고 이를 변화시키는데 초점을

둔다. 이 방법은 “학교제도에 어떤 문제가 있는가”라는 기본 질문을 던지고 거기에 대한 답을 찾으면서 중퇴문제에 접근하는 방법이다. 즉, ‘개인적 특성’과 ‘학교교육’을 중도탈락의 주요 변인으로 고려하고 있었다. 물론 이외에도 학업중도탈락자가 갖는 가정의 독특한 배경들, 이를테면 가족구조 및 가족기능, 부모의 양육태도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거나 또래집단과의 친밀감 정도, 사회유해환경의 범람과 유인정도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는 입장도 있지만 이런 논의들은 대체로 개인진단적 접근법과 제도적 접근법을 취하는 대부분의 연구들에서 부분적으로 다루어졌으며 더욱이 교육병리현상, 혹은 비행과 일탈의 하나로 중퇴현상을 살펴보는 데에 있어서는 공통점을 갖고 있었다.

중도탈락 경험이 청소년 개인에게 어느 정도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개인의 심리적 측면에서 어떤 요인들이 중퇴행위에 작용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증적이며 경험적인 연구들은 최근에 들어와 적극 대두되어졌다. 대응방안 역시 중퇴청소년들의 욕구조사를 바탕으로 한 학교지원방안의 모색, 중퇴경험과 일탈행위 및 비행간의 관계성을 규명하여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억제방안을 모색하는 등의 경험적인 연구 역시 90년대 들어와 활발하게 수행되어졌다.

그러다가 90년대 중반 이후 청소년 자신, 가정, 학교 그리고 사회전반에 존재하는 여러 다양한 변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지적이 주조를 이루기 시작하였다(참고: 조혜정, 1995; 1997; 황창순, 1996; 교육부, 1997). 이러한 지적에 따라 중퇴 청소년과 그들을 둘러싼 가정, 학교, 지역사회, 대중매체 등의 각종 환경체계 사이에서의 상호작용과 상호교류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한 생태체계학적 관점이 필요하다는 논의도 대두되었다(참고: 이경림, 2000). 한편으로는 학업중도탈락을 효과적으로 중재,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담을 통한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나타나기 시작하여(참고: 이숙영, 1997; 유성경·이소래, 1998; 남상인, 2000) 보다 적극적인 사회상담의 개입전략과 실천 대응

장면들이 모색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교육부(1997)도 '학교중도탈락자 예방 종합대책'을 내놓고, 이어 사회통합을 촉진하는 인적자원개발 정책의 확대의 일환으로 '중도탈락 청소년 문제에 대한 범정부적 대처'를 2001년 추진과제로 삼았다. 즉 교육인적자원부를 중심으로 관련부처와 민간단체가 참여하여 '중도탈락 예방 및 적응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것을 대통령업무보고에 포함시켰다(교육인적자원부, 2001).

그러나, 학업중도탈락 현상에 대한 종합적이고 범정부적인 대응전략 수립에도 불구하고, 자발적 학업중도탈락만을 고려하여 수행된 선행연구나 특화된 대응방안 수립은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그 동안 '신세대중퇴', 혹은 '비전통적 중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자발적 학업중도탈락 현상을 부분적으로 언급된 바가 있을 뿐이다(참고: 황창순, 1995; 남상인, 2000). 다만 조혜정(1995)이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자발적 학업중도탈락 현상에 대한 변화된 관점과 대책이 요구된다는 논의를 하는 등 적극적 학업중퇴로써 자발적 학업중도탈락을 다룬 바 있다. 이 연구에서 그녀는 거시적인 맥락과 사회학적 관점에서 현행 학교제도 및 교육문화의 문제점과 학업중퇴간의 관계, 그리고 학업중퇴의 문제를 지적하고, 오늘날의 청소년 생활과 교육현장의 모든 영역과 각각의 개별주체를 대상으로 하는 심층적이고 탐색적인 연구들이 필요하다고 논의하였다.

이러한 논의에 터해 최근 자발적 학업중도탈락에 대한 실천적인 대응 방안들을 모색하고 실험적인 시도들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시도들은 대체로 대안교육장면이나 대안학교를 중심으로 모색하는 방안으로 요약된다. 그 사례중의 하나가 최근 서울시교육청이 정규학교에서 중도탈락한 학생들을 위해 기존의 평생교육시설 중 우수 시설을 선정하여 2001년부터 대안학교식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할겠다는 이른바 도시형 대안학교의 출범이라 할 수 있다(중앙일보, 2000. 10. 15). 또 이에 대한 실천으로 서울시가 2001년 서울시대안교육센터를 개설하고, '벽이 없는 학교'와 '사회학습자원

네트워크' 등의 실험적인 시도들로 구체화되고 있는 실정이다(서울시대안교육센터, 2001).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발적 학업중도탈락 현상에 대한 단독 수행연구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안마련은 거의 전무하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같은 현상은 첫째, 자발적 학업중도탈락 청소년에 대한 접근 및 자료획득이 어렵다는 점과 둘째, 지금까지 학업중도탈락이란 주제와 관련하여 전체적으로 많은 연구가 수행되지 못한 점, 셋째, 연구가 수행되었다 해도 기존의 학업중도탈락연구들이 대부분 전반적인 측면을 살펴보고 종합적인 정책대안의 제시에만 치중했다는 점에서 연유한다.

그러나 근본적인 것은 청소년 인권에 대한 사회적 무관심(조혜정, 1997)이다. 자발적 학업중도탈락현상을 전체 학업중도탈락과 분리하지 않았다는 것은 중퇴에 대해 '자발적'인 의사를 갖고 있는 청소년들의 고민에 대한 사회적 무관심이 그 근원적 배경으로 작용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을 간과할 수 없다. 특히 비전통적인 학업중도탈락 혹은 신세대중퇴현상에 대한 지적은 있었지만, 이러한 현상이 기존의 전통적인 중퇴현상과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그 실태는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실증적이고 경험적인 연구를 하지 않았다는 점은 반성하고 또 반성해야 하는 주제이다. 이 점은 곧 지금까지 학업중도탈락 현상을 주제로 한 연구경향에 있어 다각적이고 심층적인 연구수행이 부족하였다는 평가로도 연결된다. 따라서 향후 자발적 학업중도탈락은 물론, 학업중도탈락에 대한 보다 세부적이며 다각적인 연구들이 수행되어야 할 필요가 절실하다.

2) 학업중도탈락 및 자발적 학업중도탈락의 유형

(1) 학업중도탈락 유형

지금까지의 선행연구들은 학업중도탈락 유형에 대한 관심보다는 전체

중퇴현상 자체에만 집중한 경향이 강하였다. 즉, 학업중도탈락 현상을 포괄적으로 조망하려고만 하였지, 면밀한 검토를 위하여 그 현상의 세밀한 영역들에 대한 미시적 접근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그리고 지배적으로 학업중도탈락이란, 계속 학업을 지속하고자 하지만 외부조건이 여의치 않아 그만두는 경우와, 학생이 적응을 잘 못하거나 적응하기를 원치 않아서 스스로 그만두는 경우, 두 가지로 나누는 경향이 강하였다. 따라서 기존의 학업중도탈락연구들은 전자인 경우, 즉, 경제적 형편 상 학교를 그만두는 경우와 학교부적응 및 비행, 일탈 청소년의 후자로 구분하여 수행되어왔다. 그러나 전술한 바와 같이 최근에는 이런 경향은 급격히 감소하는 반면 학교생활 내지 교육제도 자체에 거부하는 사례가 늘어남으로써 소위 제 3의 학업중도탈락의 유형이 생기기 시작하였고 이에 따라 보다 세밀한 영역구분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먼저 전통적인 학업중도탈락 유형 구분에 있어 송광성 외(1992)는 “중퇴의 동기가 무엇이나”에 따라 능동형, 도피형, 불가피형으로 구분하였다. 이것은 중퇴 청소년이 중퇴 이후 어떤 진로를 선택하고 그에 따라 어떤 실천들을 하느냐에 따라 유형을 구분한 것이다. 이숙영(1997)도 중퇴후의 청소년생활을 중시, 크게 적응형과 부적응형으로 유형을 구분하고, 이를 다시 적응형은 진학형, 건전 직장형, 취업준비형으로, 부적응형은 보호 및 관리체계에 소속된 청소년, 보호 및 관리체계에 소속되지 않은 청소년으로 세분하였다.

송광성과 이숙영의 연구에서 보여진 학업중도탈락의 유형구분은 각 유형에 따른 적절한 대응체제 및 전략을 구안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이들의 연구는 중퇴자를 여전히 전통적 학업중도탈락자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즉 전통적인 학업중퇴현상을 중심으로 중퇴현상 자체를 바라봄으로써 각 주제별 영역에서 세분될 수 있는 다양한 학업중도탈락현상에 대한 주목과 대응체제에서의 세밀한 고려가 빠진 감이 있다. 특히 제 3의 유형이라 할 수 있는 자발적 학업중도탈락자들을 크게 다루지 않은 사실은 전

통적 학업중퇴자들 대상의 사회적응 지원정책 중심으로 연구의 기본방향을 삼았다는 데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조혜정(1995)은 중퇴의 유형을 소극적/강제적 자퇴, 적극적 자퇴로 나누어 학교가 밀어낸 중퇴생과 스스로 거부하고 물러난 중퇴생의 두 유형으로 구분한 바 있다. 이는 제 3의 유형인 자발적 학업중도탈락을 적극적 자퇴로 해석하여 본격적인 중퇴의 한 유형으로 포섭한 시도였다.

(2) 자발적 학업중도탈락 유형

자발적 학업중도탈락의 경우는 다음과 같이 크게 세 경우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첫 번째, 고교평준화 정책 이후 상대적으로 비교내신제의 폐지에 따라 불리함을 만회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학업을 중도에 그만두는 현상이다. 대체로 과학고와 외국어고 등의 특수목적고등학교 학생들로 요약되는 이들은 입시위주 교육에서 보다 나은 내신성적을 받기 위해 학교를 그만두되, 검정고시 학원 등에서 학업을 이어가는 청소년들이다. 실제로 1999학년도부터 비교내신제 폐지가 확정됨에 따라 1997년부터 일반계고등학교 중퇴생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더니 동년에 전국 과학고 2학년 1000여명이 비교내신제 폐지에 반발, 집단자퇴 의사를 밝혀 파문이 일은 적도 있다(조선일보, 1999. 10. 6.) 또 1998년도에는 전년도 대비 약 1천5백 여명이 급증하였는데 이는 비교내신제 폐지에 따른 중퇴 급증현상의 영향으로 보여진다(참고: 표 II-2).

이들은 입시위주 교육정책에 적극 부응하기 위한 포괄적인 의미에서의 자발적 학업중도탈락자들이다. 실제로 과학고나 외국어고 등에서 일어난 특수목적고생들의 중퇴사태의 핵심은 1999학년도 입시에서 서울대가 비교내신제를 채택하지 않는다는 선언을 함으로써 급격히 감소한 사실 하나로 압축된다. 그런 의미에서, 서울대 이외 대학 지원자나 학교내신의 전국단위 절대평가가 시작되는 2000학년도 이후 중퇴현상과는 거리가 멀다

고 예상할 수 있다.

반면에 두 번째는 첫 번째와 상반되는 경우이다. 즉, 입시위주 교육정책으로부터 회피하거나 벗어나기 위한 자발적 학업중도탈락자들로 외국으로 유학·이민을 가려는 청소년들이다. 이들은 입시경쟁과 경직된 학력사회문화로 점철된 한국사회를 떠나, 보다 자유로운 외국으로 유학·이민을 가기 위해 스스로 학업을 그만 둔 청소년들이다. 이러한 경우는 이민의 증가추세와 큰 관련성이 있는데 실제로 지난 해(2000년) 한국을 떠난 1만 5천307명의 이민자들은 전년도 1만2천6백55명 대비 20%가 증가하면서 조기유학생 1만4천백11명(1999년 3월부터 2000년 4월까지)이란 급증된 추세를 산출하였다. 이런 추세는 비단 수도권에만 집중되지 않는 전국적 현상이다. 충북의 경우도 2001년 1월부터 6월까지의 도내 중고교생의 중도탈락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유학이민이 전년도 47명 기준 대비 70명으로 상반기동안에만 약 48.9%가 급증한 추세를 보였다(중부매일, 2001. 8. 14).

그러나 교육 여건이 보다 나은 외국으로의 유학·이민은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진순한 의미에서의 ‘자발적’인 학업중도탈락이라고 보기 어렵다. 자기 스스로의 의지가 있다하더라도 경제적 여건상 부모의 동의와 지원이 수반되어야 하고 또 모든 유학·이민 청소년들이 자발적으로 간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세 번째로는 최근 학교실패현상과 맞물리면서 스스로 학교를 거부하거나 포기하는 청소년들의 수가 적지 않다는 데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경우의 자발적 학업중퇴현상이다. 특히 최근에는 근대적 학교기능에 대한 청소년들의 적극적 도전에 의해 나타나는 학교붕괴 현상으로 인해 이런 경향의 청소년들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더욱이 몸은 학교에 있지만 마음은 이미 학교의 범주로부터 벗어나 있는, 그래서 학업으로부터 암묵적으로 벗어나 있는 ‘비제휴형의 학생들’(the unaffiliated) 혹은 ‘잠재적 중도탈락자’ 마저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런 암묵적인 학업포기자들까지 자발적 학업중도탈락자 현황에 포함하면, 그 비율은 급격히 증가한다고 볼 수 있

다. 본 연구에서는 앞서 언급한대로 자발적 학업중도탈락 및 탈락자들을 세 번째의 경우로 제한하여 살펴보았다.

2. 전통적 학업중도탈락현상 발생요인

초기 선행연구들에서 학업중도탈락 청소년은 자아정체감이나 성격특성에 있어 일반 청소년과 비교해 '비정상적'이거나 학교생활에 실패한 '부적응자'들, 혹은 '일탈청소년'과 거의 같은 유형의 청소년으로 그려지고 있다. 이들은 대체로 낮은 자아존중감과 높은 공격성 등 부정적인 성격특성과 열악한 가정배경 및 가족특성을 갖고 있으며, 비교적 낮은 학업성취도, 원만하지 못한 교우 및 교사와의 관계 등 학업 및 학교생활에 흥미와 관심이 뒤떨어져 결국 학업을 중도에 탈락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일련의 연구들은 결국 학업중도탈락 및 탈락청소년들에 대한 고정적인 관념을 스며들게 했는데, 즉, 문제가 있는 개인, 경제적으로 빈곤하고 비정상적인 가정배경과 훈육방식의 결과, 일탈 및 비행가능성이 높은 청소년집단으로 귀결짓게 하고 있다.

실제로 초기 선행연구 중 비교적 앞서 수행된 이재우(1973)의 연구에서는 '중퇴생'이란 졸업하지 않은 채 학교를 떠나는 학생으로 교육법 시행령 제 83조에 명시된 "품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로 해당 학교장의 퇴학이나 권고 퇴학처분을 받은 학생으로 규정하고 있다. 역시 초기에 수행된 이종상(1985) 역시 중퇴를 일컬어 "학생이 사망하거나 다른 학교로 전학하지 않고 어떠한 이유로든지 졸업하기 이전에 학교를 그만두는 것"이고, 중퇴생이란 사망하거나 다른 학교로 전학하지 않고 졸업하기 이전에 학교를 그만두는 학생을 의미함으로써 중퇴 자체를 '졸업'과 관련하여 소극적으로 파악하고 있었다.

이러한 입장들은 대체로 전통적 학업중도탈락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살펴봄으로써 중퇴 청소년들은 일반적으로 ‘졸업’을 하는 보통 청소년과 비교하여 낮은 자아존중감과 공격성, 질병 같은 개인적 요인, 부모의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와 같은 가정배경 요인, 학교에서의 낮은 학업성취도 및 품행이 불량한 행동과 태도 등을 갖고 있는 청소년으로 파악하게 하였다. 이렇게 중퇴요인을 바라보는 관점은 비단 이재우나 이종상 뿐만 아니라 이후의 연구경향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여진다(참고: 김준호, 1993; 송 복 외, 1996; 이숙영, 1997; 정진구, 1999; 황정숙, 1999).

이처럼 전통적 학업중도탈락 청소년 중심의 선행연구들은 유사하거나 거의 동일한 공통점들을 갖고 있는데 이러한 공통점을 구체적으로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도탈락은 하나의 요인에 의한 결과가 아닌 여러 요인들의 복합적인 작용에 의해 발생하는 사건으로 청소년 자신과 가정, 또래집단, 학교, 지역사회, 문화적 상황에 존재하는 다양한 문제들에 영향을 받는 다요인적인 현상이란 점이다(Levine, 1986). 둘째, 이러한 요인들은 개인에게는 학교부적응으로 나타나 학교생활로부터 소외감을 갖게 하고, 결국 학업을 중도에 그만두게 하며 나아가 비행과 범죄 등 사회적 이탈의 경향이 높다는 결론으로 유도되고 있다. 셋째, 따라서 중퇴경험을 갖고 있는 청소년으로 하여금 학교생활에 어떻게 적응시켜야 하는지, 또 적응시키기 위한 서비스 지원방안과 교육내용들의 구안 역시 이러한 유형의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논의하였다.³⁾

이 상의 특징들을 확인하기 위해 먼저 학업중도탈락 발생요인들을 요인별로 살펴보고, 중도탈락현상과 비행 및 이탈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살펴본 기존의 연구들을 정리하였다.

1) 개인적 요인

(1) 낮은 자아존중감(self-esteem)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아에 대한 지각을 갖고 태어나지 않는다. 대개 2살 내지 3살에 미숙한 자기인식(self-awareness) 같은 것이 발달되는데, 이는 자기의 신체적인 부분과 신체가 아닌 다른 것들과의 구별이 되면서부터 시작된다. 발달과정을 통해 자기인식이 발달되는 것처럼 사람들은 자아개념(self-conception)을 점차 형성하면서, 자기를 존중하는 입장과 관점을 갖게 된다. 여기서 자아존중감(self-esteem)이란 자기 자신의 가치(self-worth)나 자기의 능력에 대한 하나의 판단을 의미한다(한종철, 1996: 73~74). 이러한 판단은 자신과 자신의 경험에 관한 정보를 어떻게 수집하고 개념화시키는지의 과정에 따라 달라진다. 즉, 자아존중감이란 한 개인이 자기 자신을 신뢰하는 감정을 나타내는 것으로 자아존중감이 부족한 개인은 자신의 생활을 적절히 통제할 수 없다. 이러한 자아존중감은 인간의 심리적 발달과 건강발달에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며, 대인관계와 학업성취도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

전통적 학업중도탈락자들은 자아존중감이 대체로 낮다고 보고되고 있다. 즉, 자아존중감이 낮은 청소년들은 자신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고, 타인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형성하는 사회관계기술 능력이 미숙해 교사와 또래집단과의 관계가 원만치 못하며, 교육적 열의와 미래를 위한 현실노력이 미비해 학업성취도도 낮다. 이런 경험들은 다시 자아존중감의 상실을 가져오게 함으로써 학교에 대한 소속감을 희석시켜 결국 중퇴에 이르게 된다(한국청년의 전화, 1999: 17~18). 이러한 중퇴의 경험은 중퇴청소년 개인에게 있어 또 다시 영향을 미쳐 그렇지 않은 청소년들에 비해 낮은 자아정체감과 부정적인 성격특성을 재강화시킨다(황정숙, 1999).

이처럼 전통적 학업중도탈락 청소년들이 자아존중감이 낮고 장래에

대한 계획이 없거나 부족한 성격적인 특성을 갖고며 자신의 인생에 대한 통제력을 스스로가 아닌 외부로부터 찾고자 하는 경향이 있다는 논의는 다른 선행연구들(참고: 송복 외, 1996; 유성경·이소래, 1998; 남상인, 2000: 229)에서도 공통적으로 지지되고 있다.

(2) 강한 공격성(hostility)

공격성이란 분명히 반대되는 결과를 보면서 타당하지 않은 구성개념을 간직하려는 시도를 말한다. 그래서 공격적인 사람은 자기의 비현실적인 기대에 맞게 다른 사람이 행동하기를 강요하는 사람이다(Hjelle & Ziegler, 1981: 402). 또 공격성향이 높은 청소년들은 권위나 지배질서에 대해 저항적이며, 타인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자기중심적인 태도를 갖고, 충동을 조절하는 능력이 낮다.

선행 연구문헌에 따르면 전통적 학업중도탈락자들은 다분히 공격적인 성향을 갖는다고 논의되고 있다. 이들은 자기 중심적이고, 교사와 학교의 교칙 등에 쉽게 반항하며(Williams, 1963), 충동적이고 타인에게 공격적인 기질을 갖는다고 보고되고 있다(Bhaerman, & Kopp, 1988: 7).

(3) 건강상의 문제(health problems)

건강상의 문제를 갖고 있는 청소년들은 건강한 청소년들에 비해 수업 결손이 많아 학교부적응을 겪기 쉽고 그로 인해 중퇴비율도 높을 수 있다. 특히 심각한 신체적 손상이나 만성적 질병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의 경우엔 학습과정을 제대로 따라가지 못해 학교생활에 부적응하게 되고(박현선, 1998), 결국 학교중퇴에 이른다. 미국 학교중퇴 예방을 위한 지침서에서도 학교중퇴의 발생요인 중 하나로 건강상의 문제를 꼽을 정도로 질병이나 신체적 손상은 학교중퇴의 주요 발생요인이다(Bhaerman, & Kopp, 1988: 8).

(4) 학습장애(Learning Disabilities)

학습장애란 정서적인 장애가 없으면서도 학업성취 상에 문제가 있는 현상을 말한다. 학습장애자는 크게 학업지진아(slow learner)와 학업부진아(under achiever)로 구분된다. 여기서 학업지진이란 낮은 지적 능력으로 인하여 일반 청소년들과 학습의 보조를 같이 할 수 없고 학습의 성과도 나타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반면에 학업부진이란 정상적인 지적 능력을 갖고 있으면서도 어떤 연유로 인하여 능력수준에 걸맞는 적절한 학업성취를 못하거나 기대에 못미치는 경우를 말한다.

전통적 학업중도탈락자들은 대체로 일반 청소년들에 비해 학습장애를 갖고 있다고 보고 된다. 학습장애를 갖고 있는 학업중도탈락자들은 그래서 학업부진 혹은 학업지진의 과정을 겪기 쉬우며, 이러한 학교장면에서의 경험이 누적적으로 쌓여지면서 학교중퇴를 하는 경향이 높다는 것이다. 학업중도탈락자들을 학습부진으로 보는 요인에는 지능이 낮거나, 다른 신체적 결함으로 인해 학습부진이 오는 경우를 말한다(Williams, 1963). 반면에 학습지진의 경우는 신체적·정서적 결함보다는 사회적·문화적 결함으로 보는 경향이 강하다.

(5) 학교 외의 활동에 대한 관심

학업중도탈락 청소년들은 학교 밖의 경험과 활동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반면에 학교 내에서의 활동에는 무관심한 편이다. 이러한 성격적 특성은 개인의 생득적인 특성이라기보다는 학교생활장면에서 얻는 경험을 통해 형성되거나 강화되는 특징을 갖는다. 이들은 수업이나 학교친구들과의 교우관계보다 학교 밖의 여러 장면에 참여하거나 사회에서 만난 친구들과의 교우관계를 더 중시한다. 이들은 수업출석보다 아르바이트가 중요하며 학교의 교과 외 활동에도 참여하는 경향이 낮다(Bhaerman, & Kopp, 1988: 8). 즉, 중도탈락청소년들은 학교장면의 참여와 생활보다 학교 밖의 일을 더 중요하게 여기며 더 즐겁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또

중도탈락자들은 재학생에 비해 시간당 높은 보수를 받으며, 일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McWhirter et al., 1998).

2) 가정적 요인

인간의 발달과정 상에서 형성되는 사고와 행동들은 발달과정의 배경이라 할 수 있는 가정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청소년의 여러 현상들을 다루는 데에 있어 가정적 요인은 결코 배제할 수 없다. 오히려 학업중도탈락 현상에 있어서 가정적 요인은 주요한 변인이 된다. 가정적 요인이 직접적 요인이 되는 경우도 많지만 간접적 요인인 경우도 많다. 이를테면 모든 중퇴생들이 가정적 요인으로 인해 중퇴하는 것이 아니라도 그 내면에는 가정배경이나 가족특성들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조아라, 2000: 7).

중도탈락 발생요인으로서 다루어지는 가정적 요인은 크게 가족의 구조적 측면과 기능적 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구조적 측면은 다시 구조적 결손여부, 가정의 낮은 수입과 사회경제적 지위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고, 또 가족의 기능적인 측면으로는 부모의 양육방식과 가정의 불화와 무관심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1) 가족의 구조적 측면

구조적 결손

가족의 구조적 결손여부, 곧 편부모 가정과 무부모가정의 청소년중퇴 비율이 양친가정 청소년들의 그것보다 높다는 가설은 초기엔 강력한 지지를 받았다. 그러나 가족의 구조적 측면보다 기능적 측면이 중퇴 등의 청소년현상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고, 사회 전반의 이혼율 급증으로 인한

편부모가정이 과거에 비해 증가하면서 이 가설의 힘은 점차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구조적 결손과 학업중퇴의 상관성은 구조적 결손자체가 가족 구성원들에게 자녀에 대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하는 장애요인으로 작용함으로써 학업중퇴현상을 야기한다는 입장으로 압축할 수 있다. 즉, 구조적 결손에 따라 편부(모) 혹은 보호자는 자녀에게 필요한 일반적인 지원을 하지 못하고, 또 이러한 구조적 결손에 따라 잇따르는 여러 경험들이 자녀들에게는 심리적 결손과 문화적 결손으로까지 영향을 미쳐 결국 학교부적응 사태를 몰고 온다는 견해로 요약된다.

예컨대 부모의 사망, 이혼, 별거, 재혼 등으로 가족 구조에 결손이 있을 때, 특히 편부모 가정의 경우 그 가정의 자녀들은 학교생활에 필요한 기술을 습득하지 못한 채 학교생활을 시작함으로써 중도에 탈락할 위험이 높아진다고(Ekstrom et al., 1986), 혹은 불안정한 가정배경과 경제상황의 압박으로 인하여 자녀의 학교 내외 활동에 대한 편부모의 관심과 지원의 부족이 결국 자녀의 학업중퇴 현상을 야기한다는 연구들이 이러한 입장에서 서 있다(참고: Harris, 1983; Haveman, Wolfe & Spaulding, 1991). 그래서 구조적 결손 자녀들이 그렇지 않은 청소년들보다 중퇴비율이 약 두 배 정도 높으며(Hathaway and Monachesi, 1963), 이러한 경향은 구조적 결손가족의 지리적 이동성이 높을 때 더욱 강화된다고 보고되고 있다(Astone & McLanahan, 1994; 유성경 · 이소래, 1998).

우리 나라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결손가정 청소년의 중퇴비율이 높다고 보고되고 있다. 권현진(1998: 37)은 그의 연구에서 학업중퇴생 중 59.4%가 결손가정이었으며, 이경림(1999)의 연구에서도 역시 학업중도탈락자의 52% 정도가 구조적 결손 가정으로 나타나 조사대상자의 절반이상이 결손가정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구조적 결손 자체가 학업중퇴에 영향을 미친다기보다는 구조적 결손형태의 가정에서 내면화하는 부적 기능이 더욱 큰 영향을 갖는다

는 의견이 대두되면서 이에 대한 반론도 적지 않다. 이런 반론들 중에서 의미있는 연구가 바로 Barrington과 Hendricks(1989)의 연구이다. 이들의 조사연구에 따르면, 중퇴자의 69%는 양친가정의 청소년이었다. 이들은 조사결과에 근거하여 단순히 결손가정의 청소년들이 중퇴경향이 높다는 사실에 의문을 제기하였다. 오히려 양친이 생존하는 가정이라도 적절한 가정의 기능적 측면이 부재하거나 혹은 미비함으로써 나타나는 가정의 갈등적 배경요인이 중퇴를 야기시킨다는 사실에 주목하였다. 이처럼 구조적 결손보다는 가족의 기능적 결손이 학업중도탈락현상을 설명하는 더욱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함으로써(참고: Franklin, 1992; 이숙영, 1997; 유성경·이소래, 1998), 최근에는 중퇴와 가족의 기능간의 관계에 대한 관심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낮은 수입과 사회경제적 지위

소득이 낮고 사회경제적 지위(SES)가 낮은 가정의 청소년들이 학업 중퇴가 높다(Franklin, 1992: 338)는 사실 역시 구조적 측면에서 매우 주요한 요인으로 여겨지고 있다.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가정의 청소년들이 그렇지 않은 청소년들에 비해 약 두 배 가량 중퇴율이 높다는 사실은 Ekstrom 외의 연구(1986)와 Astone과 McLanahan(1994)의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지지되고 있다.

이 연구들에 따르면 가정의 경제적 수입과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으면 가족과의 유대관계도 낮게 되어 가정에서의 적절한 지원을 청소년이 받지 못하면서 성장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관심과 지원부족은 비단 가정에서만 아니라 학교장면에도 연장되는데,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부모들은 중산층 부모들에 비해 학업지원 조건들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다고 한다(Sebald, 1992; 김현주, 2001에서 재인용).

경제적 빈곤으로 인한 잦은 이사도 자녀의 학업성취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논의되고 있다. 또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부모들

은 자녀교육에 대한 관심과 지원도 부족하여 학교행사에 대한 참여 비율도 낮으며 학교 교사와의 상호작용 역시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퇴자의 부모가 자녀의 학교생활에 적극 관여하지 않거나 지원하지 않음으로써 이러한 무관심과 지원의 부족이 자녀들에게 학교에서의 열등한 성취로 이어져 결국 중퇴를 야기한다는 사실은 Rumberger 외(1990: 283~299)의 연구에서 실증적으로 드러났다.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부모들은 자녀를 대할 때도 부정적인 감정을 사용하며 보상체제에 있어서도 벌이나 징계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 같은 부모들의 태도가 자녀들의 학업성취를 방해하고 중퇴율을 높이는 요인이 된다(한국청년의 전화, 1999: 18).

그러나 구조적 결손요인처럼 낮은 수입과 사회경제적 지위 역시 가족의 역기능적 측면이 주목되면서 그 힘이 약화되고 있다. 즉, 최근 중산층 학업중퇴 청소년의 수가 급속히 증가추세에 있고(교육부, 1997), 이들이 낮은 가정소득과 사회경제적 지위에 의해 학업을 중퇴하기보다는 가족 갈등처럼 가족의 역기능과 관련되어 학업을 중퇴한다는 주장(참고: 박영숙, 1999: 11; Franklin, 1992)들이 나타나면서 단순히 낮은 수입과 사회경제적 지위로만 학업중퇴현상의 원인을 삼을 수 없다고 본 것이다.

(2) 가족의 기능적 측면

부모의 양육방식(parenting style)

부모의 양육방식과 태도는 청소년기의 심리적·행동적 발달에 밀접한 영향을 미친다. 부모의 양육방식과 태도는 크게 ① 독재적인 양육방식(authoritarian style), ② 허용적인 양육방식(permissive style), ③ 권위가 있는 양육방식(authoritative style)으로 구분하거나(Baumrind, 1968)⁴⁾, 혹은 ① 독재적이고 전제적인 양육방식(authoritarian-autocratic style), ② 관대하고 허용적인 양육방식(indulgent-permissive style), ③ 냉담하고 무

관심한 양육방식(indifferent-uninvolved style), ④ 권위가 있고 상호호혜적인 양육방식(authoritative-reciprocal style) 등으로도 구분한다(Maccoby & Martin, 1983)⁵⁾. 부모가 어떻게 자녀를 대하고 양육하느냐에 따라 자녀의 인식과 사고, 성격, 행동이 결정되며 이에 따라 자녀 개인간에 중대한 개인차가 형성된다는 점을 전제한다면 가족의 기능적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다.

학업중도탈락이라는 결정적 상황에 부모의 양육방식이 미치는 영향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과거의 양육방식에 의해 형성된 현재의 성격과 기질이 학업중도탈락의 발생요인이 될 수 있으며, 둘째, 학업중도탈락의 위기과정에서 개인의 갈등을 부모와 함께 해결하는데 평소의 양육태도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여기서는 주로 첫째의 경우를 언급하고 두 번째의 경우는 다음에 나오는 ‘가정의 불화와 무관심’의 영역에서 부모와의 관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자녀의 교육에 대한 부모의 기대가 낮고, 적절하지 못한 양육방식을 한 경우의 자녀들은 중도탈락의 가능성이 높아진다(참고: Astone & McLanahan, 1991; Dornbusch et al., 1987). 이때 적절하지 못한 양육방식의 경우는 지나치게 허용적이거나 방임적인 유형(혹은 무관심하거나 냉담한 유형)의 양육방식과 독재적이고 전제적인 양육방식으로 대별된다(참고: Rumberger et al., 1990). 즉, 중도탈락 청소년들의 부모는 자녀의 생활과 학업성취에 대해 지나치게 허용적이거나 무관심하든지 혹은 자기중심적인 독재적인 양육방식을 고집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전자의 경우 방임적으로 양육되고 중도탈락을 경험한 청소년들은 모든 결정상황에서 부모의 개입과 관여가 낮아 청소년 단독으로 처리하는 경향이 높다. 후자의 경우는 자녀의 생활과 학업성취에 대해 부정적인 제재와 감정을 자주 표현하고 자녀를 수용하지 않으려는 태도로 일관하는 경우이다.

가정의 불화와 무관심

가족원간의 상호작용에서 일어나는 각종 문제들은 청소년들에게 바람직하지 않은 영향을 준다. 즉 부부간, 부모간, 형제간의 불화와 무관심이 심화될수록 청소년들은 이탈적 경향을 갖기 쉽다.

청소년들은 부모와의 관계에서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면 스스로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외로움과 분노, 소외 등을 느끼게 되어 부적응 행동을 나타나게 된다(이숙영, 1997). 특히 부모가 과거 양육 방식에서 보여준 독재적이거나 전제적인 태도나 혹은 허용적이거나 방임적인 태도를 계속 고수하고 유지하면, 학교부적응이란 자녀의 개인적 갈등상황을 해소하는데 도움을 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부모-자식관계의 형성에도 부적절한 영향을 미쳐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도 있다.

3) 또래집단 요인

지금까지 살펴본 개인과 가정의 요인이 학업중퇴 청소년으로 하여금 학교 밖으로 방출(push-out)시키는 요인이라 한다면, 또래집단 요인은 방출시키기도 하고 동시에 학교 밖에서 흡인(pull-in)하는 요인으로도 작용한다. 즉, 학교 내 또래집단으로부터 얻게 되는 소외나 거부경험은 학교장면으로부터의 방출요인이며, 먼저 중퇴경험을 한 친구들이나 비행친구들이 학교 밖의 장면에서 유인하는 것은 중퇴의 흡인요인이 된다.

일반적으로 학업중도탈락자들은 어른들과의 유대감이 낮은 반면 또래집단과의 연대감은 강하다(Barclay and Cervantes, 1969). 학교 안에서 교우간의 관계 특히 또래집단 사이에서의 친밀도는 청소년들이 학교생활에 애착을 갖게 하는 주요 요인이다. 청소년들은 또래와 친밀도가 형성되고 그 관계에서 만족할수록 학교생활에 대한 애착은 강해지고 학교생활의 만족도가 높아진다(옥일남, 1991). 반면에 또래관계에서 만족을 얻지 못하

면, 학교에 애착을 덜 느낀다. 특히 또래집단에서 거부와 소외경험을 받게 되고 밖의 장면에서 비행소년이나 먼저 중퇴경험을 한 또래의 유인력이 높을수록 중퇴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은 더욱 커질 수 있다.

또래집단과의 유대감을 중시하는 중퇴청소년들은 또래집단 중에서도 같은 경험을 공유하고 있거나 비밀을 함께 유지하거나 의존할 수 있는 또래집단과의 연대가 강하다. 이들은 학교 밖에서 중도탈락경험을 공유하는 친구들과 어울리기를 좋아하고 또 이런 또래집단에는 통상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경우가 많다(Bhaerman, & Kopp, 1988: 8). 또 중도탈락 청소년들의 교우관계 형성에 있어 학교에 소외감을 느끼는 친구들이나 진학에 관심이 적은 친구들을 사귀는 경향이 있다(Ekstrom et al., 1986).

이처럼 학업중도탈락을 한 청소년들은 중도탈락 이전에 먼저 중도탈락을 한 친구나 혹은 비행친구들에 의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기도 한다. 이러한 영향에다 부모의 과도한 기대수준이 압력을 가함으로써 이들은 학업중도탈락 전후 과정에서 비행에 충동적으로 빠져들 가능성이 높다고 논의되고 있다. 즉 부모가 기대하는 것만큼 공부를 잘하지 못하는 청소년들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친구들끼리 서로 모여 비행에 빠져들 가능성이 높다(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3).

4) 학교교육 요인

전통적 학업중도탈락현상 및 중도탈락 청소년들을 다룬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첫째, 중도탈락현상은 어느 하나의 요인에 의해 발생하기보다는 다요인에 의한 현상이고, 둘째, 그러나 중도탈락 청소년들이 밝힌 요인 중 가장 일차적이고 지배적인 요인은 학교문제였으며(참고: 한준상, 1999 a; 박수민, 1998; 장석민, 외, 1988: 19~22), 셋째, 중도탈락 청소년들은 대체로 학교부적응적 특성을 갖고 있다(이종상, 1985; Bhaerman & Kopp,

1988; Ekstrom et al., 1986)고 보았다. 즉, 중퇴현상을 가져오는 가장 큰 발생요인으로 학교교육의 요인을 꼽는데 거의 일치하고 있으며 대부분 중도탈락 청소년들은 심각한 학교부적응을 갖고 있다는 것으로 논의된다.

그래서 학교교육의 요인은 다시 개인적 수준에서는 학교부적응적 특성으로, 사회적 수준에서는 학교교육의 구조적 요인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조아라(2000: 9~10)가 학교 관련요인으로 개인적인 요인들과 학교구조적인 요인 두 가지를 논의하는 것이 이러한 맥락에 기초하고 있다.

여기서는 학업중도탈락에 미치는 학교교육의 요인으로 개인의 낮은 학업성취능력, 학교에서의 소외와 거부경험, 학교생활에 대한 무관심, 문제행동, 경직된 학교교육 등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이중 경직된 학교교육을 제외한 나머지 요인은 개인적 측면의 요인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앞서 논의한 개인적 요인에서 살펴본 낮은 자아존중감, 강한 공격성, 건강상의 문제, 학습장애 등이 개인적 성격 혹은 기질을 중심으로 한 학업중도탈락 발생요인이라 한다면, 여기서 보여지는 개인적 수준의 요인들은 학교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개인적인 경험을 말한다.

(1) 낮은 학업성취능력

개인의 학교부적응과 관련하여 일차적인 요인은 학습능력의 부족과 결손, 그리고 학업성취능력의 저조라 볼 수 있다. 연구자에 따라 학습능력 자체보다는 학업성취(academic performance)가 중요하며, 따라서 학교에서의 학업성취가 주요 예측요인이 된다(조아라, 2000: 9)라는 견해를 취한다.

하지만, 중도탈락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학습능력과 학업성취간의 명백한 구별점을 제시하고 그 원인을 밝힌 선행연구는 거의 드물다. 오히려 학습능력이 부족하므로써 학업성취가 낮다는 견해가 일반적인 것처럼 보여진다. 예컨대, 유성경·이소래(1998: 31)의 연구에 따르면 중도탈락 청소년

년들은 읽기 능력과 수학 성적이 뒤떨어지고, 지각적 성취도가 낮은 특징을 갖고 있어 대개 학교에서의 기본 과업인 학업성취에 있어 실패한다고 보았다. 이런 실패는 개인의 기본적인 지적 능력 및 수학능력의 결손, 선수학습의 부족, 일시적인 방황, 저학년 때 학습의 중요성에 대한 각성의 부족 등에 연유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 다시 이러한 원인들은 학습에 태만하여 결과적으로 현행학습을 따라갈 수 없게 되고, 구조화된 학습 환경에서 내인성이 부족하며, 학습이외의 관심사 혹은 학습이외의 관심사와 학습과제 사이의 조화능력의 부족과 같은 하위요인들과 연관되어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학습능력은 갖고 있되, 학교교육에 대한 무관심으로 학업성취능력이 저조하거나 혹은 학습능력과 학업성취능력과는 상관없이 자발적으로 학업중도탈락을 하고자 하는 청소년의 경우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논리적 적정성을 갖고 있을 뿐, 전체적으로는 간과된 감이 없지 않다.⁶⁾ 따라서 학업중도탈락의 유형에 따른 학습능력과 학업성취정도의 관계, 그리고 각 유형에 있어 학습능력과 학업성취정도를 탐색하는 후속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2) 학교에서의 소외와 거부경험

중도탈락 청소년들은 학교생활에서 소외와 거부 경험을 일반적인 청소년들에 비해 많이 받는다고 느낀다. Bhaerman과 Kopp(1988: 25~29)의 연구에서도 중퇴생들은 학교에서 거부되었다고 느끼며, 성취에 대한 동기화가 부족하고 심지어는 학교에서 배우는 것이 개인적인 욕구와 관련이 없다고 느끼는 경향이 있어 결국 학교교육에 대해 부정적 태도를 가지게 된다고 보았다. 조아라(2000: 9) 역시 중퇴자들은 소외되거나, 훈육상의 문제점,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자주하며, 숙제를 잘 안하는 등의 특성을 보이는데, 이를 학생들과 선생님의 '낙인찍기'의 결과라 보았다.

특히 연령이 낮을수록 또래집단과 교사에게 소외와 거부경험을 받은

아동과 청소년들은 이러한 소외와 거부경험이 공격성과 학교생활에 대한 무관심으로 전이되기 쉽고 시간이 지날수록 사회적 유능감과 문제행동, 지적능력, 집중력결핍, 학업성취에 부정 기능을 미친다(Serbin et al., 1991: 93~120). 공격적인 행동양식은 다시 교착위반 등의 문제행동으로, 학교생활에 대한 무관심은 다시 학교 밖의 장면에 대한 개인적 관심의 증대와 비행유발요인 등과 결합하여 결국 중퇴에 이르게 할 수 있다. 특히 연령이 낮을수록 또래집단보다는 교사와의 애착형성관계에서 나타나는 교사의 무관심, 소외, 거부 경험의 크게 작용하며, 연령이 높을수록 또래집단과의 관계형성에서 나타나는 소외, 거부경험 등이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최근 들어 또래관계에서 중도탈락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하는 것은 집단적인 따돌림이나 학교폭력이다(유성경·이소래, 1998: 33). 이에 대처하는 능력이 부족할 경우 청소년은 이로 인한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하고 중도탈락을 할 수 있다.

(3) 학교(생활)에 대한 무관심

저조한 학업성취능력, 또래집단과 교사로부터 받는 소외와 거부경험은 곧 전반적인 학교생활에 대한 무관심으로 외화(外化)되기 쉽다. 학교생활에 대한 무관심은 크게 학교 내적 측면과 외적 측면에서 몇 가지 특징으로 나타난다. 잦은 결석과 수업에 대한 흥미부족, 학교활동에의 낮은 참여율이 학교의 내적 측면에서 보여지는 특징이라 한다면, 학교보다 아르바이트와 일을 더 좋아하고 학교보다는 학교 밖에서 더 많은 것을 배울 것이라고 믿는 것은 학교 밖의 장면에서 보여지는 경향이다(한국청년의 전화, 1999: 19).

(4) 문제행동

유성경·이소래의 연구(1998)에 따르면 중도탈락 청소년들은 무단결석과 장기결석, 학칙위반을 하는 경우가 많고, 학교에서의 훈련에 문제점을 나타낸다. 특히, 남학생의 경우 행동상의 문제와 학교교사와의 갈등이 학교를 그만 두게 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중도탈락청소년들이 징계를 받은 경험은 재학생에 비해 매우 높으며, 가출로 인한 무단 결석 등이 이유가 되어 학교측의 선도처분으로 전학이나 자퇴의 권고과정에서 중도탈락에 이르는 경우가 많다.

김경식(1997: 115~138)의 연구에서도 이들은 학교생활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불량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는데 이들의 불량친구들과의 결속력은 가출이나 무단결석으로 이어지고 결국은 자퇴를 하거나 퇴학을 당하게 된다. 따라서 문제행동을 예방함으로써 중퇴경험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논의하고 있다.

(5) 경직된 학교교육

전통적 학업중도탈락자들은 교육적 실패자라 할 수 있다. 교육적 실패자라고 불리우는 이들 학생들은 기존 학교교육의 모순과 문제상황에 대해 일정 방식으로 의도적으로 동시에 '문제학교교육'을 거부하고 있는 현실지향적인 존재들이다(한준상, 1999 a). 여기서 '문제의 학교교육'은 경직된 학교교육이라 치환해도 큰 무리는 없다. 즉, 문제의 학교교육이 아이들을 밀어내기도 하고, 또는 아이들 스스로가 경직된 학교교육을 거부하여 중도에 학업을 그만두게 한다.

학교가 경직되어 중도탈락에 이르게 한다는 이런 관점은 엄격한 교칙의 준용과 경직된 교육과정에서 연유한다. 큰 맥락에서는 입시위주의 학교교육 전반을 비판할 수 있지만 결정적으로 중도탈락에 이르는 학교교육의 경직성은 엄격한 교칙 - 혹은 교칙의 준용 - 과 흥미를 유발하지 못하는 교육과정이란 하위요인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학교규칙이 지나치게 엄격하고, 청소년들의 다양성을 불필요하게 구속한다면, 이는 학생의 중도탈락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1996년 교육부의 조사연구에 따르면 전국의 중·고교생 2만 3천명 중 45.2%가 학교생활에 불만족스러운 점으로 엄격한 학교규율을 꼽았으며, 1995년 부산 시교육청의 중도탈락청소년에 대한 설문조사에서도 전체 중 53.3%가 학교의 엄격한 규율을 중퇴사유로 답하고 있었다. 아울러 교칙 자체보다는 교칙이 어떻게 운영되는가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교칙운영이 얼마나 융통성이 있는가, 구성원 모두에게 공정하게 적용되는가에 따라 교칙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이 달라질 것이고, 이에 따른 학교에 대한 애착 형성이 달라지기 때문이다(유성경·이소래, 1998: 39).

최근 많은 학교에서 시대 정서에 부합되게 학교교칙들을 개정·개선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아직까지 일부 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과도한 통제나 규제 중심의 학칙을 고집하거나 개정했다 해도 민주적인 합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는데 이에 대한 상징적인 저항사례가 두발제한 폐지주장이자 학교운영위원회의 학생참여 주장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결국 자발적으로 학업중퇴를 한 청소년들이 있었다는 사실은 학교교칙과 중퇴에 대한 관련성을 새롭게 살펴보게 하는 사례이다.

한편, 자신의 소질과 관심사와는 아무런 관련성이 없고, 흥미조차 유발하지 못하는 교육과정과 수업은 학교로부터 청소년들을 멀리하게 하는 학교 내적 문제이다. 특히 수업과 교육과정이 일부 소수의 청소년들만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거나 혹은 수업과 정규 교육과정이 아니라 하더라도 진학 및 향후 직업선택과 관련하여 진학 및 진로지도와 상담, 그리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학교 안에서의 통로와 지원이 부족하다고 느끼게 한다면, 이 역시 학교가 갖는 효용감을 저조케 하여 결국 중도탈락의 위험을 높이는 결과를 갖는다. 또한, 교육문제의 중심에는 언제나 진학으로 대표되는 입시위주의 교육이 자리잡고 있다. 상급학교에 진학을 많이 시키는

것이 학교교육의 최우선 목표가 되다보니 학교부적응이라는 일차적 징후를 보이는 중도탈락청소년에 대한 대책은 소홀해지기 쉽다.

5) 사회적 요인

유해한 사회환경은 학교장면으로부터 청소년들을 중도에 탈락케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특히 향락적인 유해환경은 청소년들에게 즐거움과 뜻하지 않은 많은 돈과 일시적인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가출과 비행, 중퇴를 조장하는 결과를 낳는다. 학교생활에서 흥미를 잃고 교사와 학교, 또래관계에서 애착관계를 형성하지 못한 청소년들은 이러한 유혹으로부터 쉽게 영향을 받고 가출과 비행 등 중도탈락의 전조라 할 수 있는 상태에 머물 수 있는 경향이 커져 결국 중도탈락의 위기를 맞게 된다. 가출 등의 일탈 및 비행과 학업중도탈락은 다음 절에서 기술하였다.

3. 비행, 범죄 및 일탈과 학업중도탈락

학업중도탈락현상 발생요인에서 살펴본 것처럼 전통적 학업중도탈락 현상은 학교부적응이란 개인심리적 측면의 어려움으로 빚어낸 사태로 볼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비행, 범죄 등의 일탈과 각종 청소년문제를 일으키는 동인으로도 작용하는 것으로 보았다. 즉, 학교부적응이 학업중도탈락의 개인 변인이라면 학업중도탈락은 비행과 범죄의 변인으로 생각되어 왔다. 실제로 중퇴청소년은 진로개척의 불리함, 사회적 기술습득의 부족, 집합적 비용의 증대도 중퇴문제의 일부지만,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것은 중퇴 청소년들이 청소년비행이나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이었다(참고: 송광성 외, 1993; 황창순, 1996). 따라서 학업중도탈락과 청

소년비행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우리 사회 내에 학업중도탈락이란 연구 주제 영역에 있어 비교적 꾸준히 그리고 지배적으로 지속되어 온 주제라 볼 수 있다.

김준호(1993)의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중퇴와 비행에 대한 기존의 연구가 당시 많지 않은 상태에서 중퇴가 비행에 미치는 영향과 그 관계를 비행이론을 중심으로 심층적으로 연구한 연구물이었다. 연구는 일반 학생 집단, 일반중퇴생 집단, 소년원생 집단을 대상으로 면접조사와 설문조사방법을 사용하였고, 구체적으로는 가정·학교·불량친구 등의 변인들이 학업중도탈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중퇴와 비행 간에는 유의미한 상관관계와 허위 상관관계가 동시에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중퇴집단이 재학생집단에 비해 현저하게 높은 비행빈도를 보이고 있는 반면 중퇴 이후의 비행에는 중퇴 이외의 다른 변인들이 동시에 작용하므로 모든 비행의 원인을 중퇴경험에 의한 것으로 보기에는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연구를 통해 중퇴집단이 재학생 집단보다 비행률이 높다는 점은 실증적으로 밝혀진 셈이었다.

실제로 중퇴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비행률이 높다는 결과는 여러 실증적 자료를 통해 입증되었다. 예컨대, 중등학교에서 중도탈락한 청소년들의 범죄가 1981년 13,436명, 1990년 20,639명, 1999년 35,072명으로 급증하였고, 전체 청소년범죄에서 차지하는 비율 역시 1981년 15.1%, 1990년 19.5%, 1999년 24.5%에 이르고 있어 중퇴 청소년의 범죄가 계속 증가추세임을 알 수 있다(송 복 외, 1996; 대검찰청, 2000). 또한 학업중도탈락 청소년 범죄의 심각성은 단순히 양적인 증가에만 국한되지 않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하다는 점도 지적되었다. 즉, 살인, 강도, 폭행과 같은 강력범죄의 중퇴청소년의 증가율이 전체 중퇴범죄자의 증가율보다 높다(김준호, 1993)는 사실이 이를 대변한다. 김경식(1997)도 중퇴생과 재학생들 간의 가정배경, 학부모들의 교육적 관심, 학교생활, 교우관계, 여가생활과 아르바이트, 사회적 일탈행동을 비교하고, 이 결과를 중퇴생들이 직접 밝

한 중퇴이유와 관련지어 논의하였다. 그 결과 중퇴경험을 한 청소년들이 학교생활에 불만을 더욱 쉽게 갖고, 학교에서 같은 반 또래친구와 어울리는 경향이 재학생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고 밝혔다. 또한 중퇴청소년들이 재학생에 비해 퇴폐향락적인 유해한 사회문화환경에 쉽게 접할 수 있으며 흡연, 음주, 환각제흡입 등의 약물에도 노출되거나 빠질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학업중도탈락과 비행간의 유의미한 상관관계와 관련하여 그 동안 구안되어졌던 대응방안들은 예방과 치료의 차원 모두에서 다루어졌다. 최근 들어서는 학업중퇴가 청소년일탈 및 비행의 변인이라는 점에서 학업중퇴를 예방·방지하기 위한 방안들이 특별히 더 고려되어졌다. 예컨대, 송복외(1996)에서는 학교를 중심으로 하되 가정과 사회, 국가가 서로 연계하는 예방대책과 치료대책을 제시하였다. 그에 따르면 예방대책으로 청소년을 보호하는 공동체 형성, 유대감의 강화, 학교의 민주화, 상담의 활성화, 부모·친구·지역사회를 활용한 예방프로그램들이 제시되었고, 치료대책으로 사회적 지원체계확립, 중퇴생을 위한 대안학교 운영, 가출감소방안 모색 및 문제가정 돕기, 지역사회복지관 및 지역사회봉사센터의 적극 활용, 유흥업소의 청소년취업방지, 청소년문제에 대한 참여유도 등이 제시되었다.

이 외에도, 상담기능의 활성화 및 상담개입정책을 중심으로 중퇴현상에 대한 예방 및 중퇴청소년에 대한 보호방안이 적극 모색되기도 하였다. 이숙영(1997)은 현행 중퇴청소년 지원체제를 보호 및 관리, 진학지원, 취업 및 진로지도, 상담·생활지도, 비행교정 등의 영역으로 구분하여, 이를 토대로 각 영역에 따른 중퇴예방과 중퇴청소년보호에 대한 정책대안을 제시하였다. 이를테면, 중퇴 후 정착을 원하는 청소년들에게는 생활지도와 상담제공이 가장 필요하므로 이들이 속해있는 검정고시학원, 대안학교, 복학한 학교, 직업전문학교 등에서 상담활동 및 기능의 재교방안을 제시하는 등 각 영역중심의 사회적 상담개입대책에 대한 논의들이 그것이다.

유성경·이소래(1998)의 연구는 중도탈락에 대한 상담적 접근을 하는데 있어 잠재적 중도탈락 청소년으로 그 대상을 넓혀 이들에 대한 개입 전략도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잠재적 중도탈락 청소년들이 아직까지는, 그리고 대부분 학교에 있는 위치에 있으므로 이들에 대한 효과적인 개입을 위해서는 '학생'일 때부터 조기 발견하여 그에 따른 적절한 대응들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았다. 즉, 학생들이 문제행동을 보이기 전에 중도탈락의 위험이 있는 요인들을 찾아내어 적절한 예방적 처치를 수행함으로써 학업중도탈락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외에도 남상인(2000: 240~242)은 상담과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학업중도탈락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으로 상담, 부모교육, 교사교육, 또래상담자의 활용을 꼽은 바 있다.

이러한 가운데 교육부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학교중도탈락자 예방대책'을 마련하여 문제학생에 대한 학교의 선도적 기능을 회복, 학교가 가정 사회와 힘을 모아 중도탈락자 예방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그리고 이의 일환으로 자퇴학생들을 구제하기 위한 차원에서 1996년 9월부터 '중등학교 중퇴생복지정책'을 실행하였다(교육부, 1997).

한편, 대응방안을 구안하고 제시하는데 있어 단순히 자발적 학업중도탈락을 청소년문제의 하나로 볼 것인가라는 점에서 지금까지의 시각을 교정해 볼 필요가 있다. 먼저 자발적 학업중퇴자들이 후속 행동에 있어 비행과 범죄 등의 일탈행위를 하는지에 대한 선행연구결과물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이러한 문제제기는 일단 유의미하다고 보여진다. 특히 청소년문제가 비행(juvenile delinquency)이나 일탈(deviance)이 아닌, 현재 사회적으로 대두·논의되는 청소년관련 사안으로서의 문제(affairs)(천정웅 외, 2000: 11)라 한다면, 그리고 이런 맥락에서 자발적 학업중퇴가 비행과 일탈의 전조행위가 아니라 청소년세계의 현안과제로 상정한다면, 이런 시각의 교정은 더욱 설득력이 있다. 즉, 청소년문제가 흔히 생각되는 청소년비행, 문제행동 등의 일탈적 상황뿐만 아니라 청소년의 고민과 의식, 일상생

활에서의 어려움을 야기하는 사건 등을 포함하는 청소년관련 현안(current issues) 전반을 말한다면, 그리고 자발적 학업중도탈락이 이런 현안의 하나라 한다면 그 동안 견지되어왔던 기존의 일탈·비행의 관점을 누그러뜨리고 새로운 시각에서 조망해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자발적 학업중도탈락과 일탈행위 간의 상관관계에 대한 면밀한 선행검토가 없이 단순히 중퇴를 “청소년 자신, 가정, 학교, 전체사회에 존재하는 다변적인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학교 공부를 중단하게 되는 일종의 ‘사회이탈 현상’”(교육부, 1997: 53)으로 보는 관점은 수정할 필요가 있다. 나이가 현재 전개되고 있는 자발적 학업중도탈락이 어느 정도의 규모이며, 또 그 발생변인이 전통적 학업중도탈락자들과 비교하여 어떻게 다른지를 고찰해보는 것 역시 의미가 있다. 이러한 탐색은 자발적 학업중도탈락의 심리사회적 의미가 개인과 가정, 학교와 사회의 수준에서 어떻게 발생하며 그것은 전통적인 학업중도탈락과 어떤 차이를 갖는지 보여주기 때문이다.

4. 자발적 학업중도탈락과 학교교육의 위기진단

전통적인 학업중도탈락 현상의 발생요인에서 살펴보았듯이 학업중퇴 현상에는 개인과 가정, 또래집단, 학교, 지역사회 등의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지만 그 직접적인 요인으로서는 단연 학교에서 파생된 문제가 가장 크게 작용하고 있다. 이런 관점과 견해는 장석민 외(1988)의 연구, 박수민(1998)의 연구, 그리고 김정식(1997)의 연구와 기타 연구들(참고: 최인용 외, 1996; 송복 외, 1996)에서도 공통적으로 지지되고 있다. 즉, 학교를 그만 둔다는 중퇴 자체의 본연적 의미에서 살펴보면, 학업중도탈락이란 개인이나 가정, 사회적 수준에서 보여지는 발생요인보다는 학교에

서의 문제가 더 직접적일 수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학습의지는 갖고 있
되, 공교육에 대한 부적응과 그로부터의 거부나 중지를 의미하는 자발적
학업중도탈락의 경우 더욱 크게 작용할 수 있으리라는 예견을 가능케 한
다.

그런 의미에서 중퇴를 불러오는 근원적인 이유는 학교교육이 갖는
'문제'라 할 수 있으며, 그 중에서도 자발적 학업중도탈락과 관련한다면
오늘날의 공교육의 위기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 즉, 청소년들이 학업을
중도에 그만두거나 포기, 거부한다는 사실은 지금의 공교육으로부터 기대
하는 것이 적거나 없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만큼 학교의 기능이나 효
용성이 점차 감소 혹은 상실되고 있는 것으로도 볼 수 있고, 또 학교와
교육에 대한 기존의 지배적 관점이 오늘날의 청소년들에게 쉽사리 스며지
지 않는다고도 볼 수 있다. 어쩌면 중퇴의 원인에 있어 가정이나 사회유
해환경의 유인 등의 이유는 이러한 전제가 있었기에 가능하거나 강화되는
것이다. 중퇴 이전의 학교부적응 단계에 도달한 청소년들이 공통적으로
학업에 대한 흥미감소, 교사와의 인간적 신뢰의 상실, 학교교육의 기능과
효용성에 대한 불신 등으로 점철되는 것이 이에 대한 증거이다. 이런 일
련의 경험들이 있기에 파행적 가정환경과 일탈적 사회환경이 중퇴라는 프
로세스에 개입할 수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가정의 교육기능이 왜곡되었든 혹은 비행과 일탈을 조
장하는 사회환경이 있든 간에 청소년 개인이 학교에 대한 만족감과 교육
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면 쉽게 중퇴 '당하거나' '결단'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자발적 학업중도탈락현상을 가져오는 결정적인 원인은 오늘날의
공교육이 청소년들을 만족스럽게 하지 못하거나 기대치로부터 멀리 있는,
이른바 공교육의 위기가 무엇인지를 먼저 살펴보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
다.

그러므로 학업중도탈락 및 자발적 학업중도탈락현상을 비교·분석하
고 그 의미와 특성을 규명하는 데에 있어 공교육의 위기에 대한 기존의

흐름들을 짚어보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런 작업은 일련의 대응방안들을 구안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것이다.

지금까지 논의되어 왔던 공교육 위기현상에 대한 선행문헌들(참고: 이인규, 1999; 2001; 전교조 참교육실천위원회 편, 1999: 10~14 ; 조혜정, 1999; 한국청소년개발원, 1999: 217~238; 조용환, 2000; 김 민, 2000 a; 후지다 히데노리, 1999; 아사히신문사 편, 1999; 河上亮一, 1999)을 중심으로 정리하자면, 지금까지 공교육의 위기에 대해 제기되었던 흐름은 크게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⁷⁾

먼저, 지금의 학교교육 위기현상과 밀접한 학교실패(school failure) 현상은 전통적으로 비판적 교육사회학의 갈래에서 '예견되어 온 주제'였다. 그래서 첫 번째의 입장은 학교교육의 위기를 예견해 왔고, 공교육의 기능에 대해 비판적 시각을 견지해 왔던 '갈등이론(conflict theory)'과 이에 터한 탈학교론을 들 수 있다. 적어도 갈등론의 입장에서는 중퇴현상을 포함한 오늘날의 학교교육 위기현상은 전혀 생소한 주제가 아니었다. 최근 스스로 학업을 포기하거나 거부하고자 하는 청소년들의 '탈학교론'(de-schooling) 역시 이러한 갈등론적 입장에 기초하고 있다.

둘째는, 최근 대두되기 시작하는 '탈근대적 학교교육론⁸⁾'이다. 부분적으로 갈등론으로부터 이론의 빛을 지고 있는 탈근대적 학교교육론은, 전근대성·근대성·탈근대성이 짧은 기간 내에 압축적으로 전개되어온 한국 사회에서 근대성과 탈근대성 혹은 전근대성과 탈근대성이란 상반된 사회의식과 이를 담지한 구성원들이 정면으로 맞부딪치는 충돌지점으로 학교현장을 상징하고 이를 공교육의 위기원인으로 삼는다. 결국 학교를 중퇴하는 청소년들은 탈근대적인 가치를 학교현장으로부터 인준받지 못하거나 인정절차과정에서의 누적된 실패경험으로 인해 학교부적응을 하게 되고, 이어 중퇴의 '결단' 혹은 중퇴생으로 밀려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셋째로는, 최근 우리 사회가 정보화사회로 급격히 편입하는 과정에서 제기되는 '교육재구조화론'이다. 이는 산업화사회를 기반으로 세워진 기존

학교교육체제의 한계를 직시하고, 새로운 학교교육 패러다임이 요청된다는 비판적 관점에 서 있다. 이 주장에서 바라보는 공교육 위기현상의 원인은 급격한 사회체제로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국가중심의 경직된 획일적인 교육체제이자 교수자 중심 교육(pedagogy)의 한계이다.

이러한 흐름은 변화된 개별학습욕구를 수용하지 못하는 학교의 전반적 기능저하에 비평이 집중되었기에, 이는 곧 학업중도탈락현상을 예방 혹은 대응하기 위해 향후 공교육을 포함한 교육전반이 어떻게 재편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새로운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최근 가속도가 붙은 정보통신기술에 기반하여 가상공간에서의 대안적 학습(e-learning 등)과 평생교육체제 구축이란 새로운 교육패러다임의 축조 필요성이 결합함으로써 학령기의 중퇴현상을 단순한 이탈과 비행행위로 보는 기존의 시각을 교정해 준다.

이른바 ‘교육재구조화론’이라 명명될 수 있는 이 입장에서는 앞의 두 흐름, 특히 교육체제를 재구조화해야 한다는 점에서 탈근대적 학교교육론과 일치하지만, 단지 공교육장면에서 그치지 않고 교육전반(평생교육적 기초)에 대한 핵심적 변화들을 폭넓게 주장한다는 점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근거한 낙관적 미래주의에 일정정도 경도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 학교교육에 대한 기본적 불신을 지니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기존의 두 흐름과는 차별성을 갖는다.

그래서 교육재구조화론은 이론적 지점에 있어 갈등론과는 일정한 거리를 두면서 공교육의 기능변화에 대한 당위성을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제기한다. 따라서 이 입장에서는, 최근 산업화사회에서 지식기반의 정보화사회의 전이과정과 그 내용, 그리고 그에 따른 교육의 목적과 기능변화에 주목하고 있다(한국교육개발원, 1996: 160~162; 진동섭, 1996: 56~57). 특히 지식기반사회, 정보화사회의 특질에 초점을 맞추는 이론가 그룹에는 미래학자, 사회학자들이 주요하게 포진하고 있으며, 교육내부의 장면에서

이러한 변화에 조응하는 교수학습방법체제의 개발과 교육기능의 변화 주장 등에는 교육공학자(수행공학자) 그룹들이 중심에 서 있다.

이 논의의 핵심에는, 기존의 국가중심의 독점적 교육체제가 정보화사회로의 편입과정을 통해 더 이상 지속될 수 없고(천세영, 1997: 16), 더욱이 학교교육은 정보화사회에 수반하는 기술혁신과 지식의 폭발적 증가에 의해 그 기능적 한계를 분명하게 노정할 수밖에 없다는 점들을 꼽을 수 있다(UNESCO, 1980: 25). 따라서 향후 미래사회에 부응하는 효과적인 교육수행을 위해 학교교육체제 및 교육전반의 패러다임이 지속가능하게 변화되어야 하며, 구체적으로 제도교육을 포함한 평생교육적 관점이 적극 개입되어야 한다는 점과, 네트워크를 통한 가상학교 등의 확대에 따라 교육제도가 경직된 틀에서 벗어나 개인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다양한 방향으로 발달해야 한다는 점에서 교육체제의 재구조화를 주장한다(참고: 한국교육개발원, 1996: 160~162; 매일경제, 2001. 2. 19~20; 2001. 4. 8).

특히 이들은 지금까지 교육장면의 전반적인 풍토가 대량생산과 아이디어 모방, 근로노동자, 통일성 지향이란 산업화사회의 장면에 부응하는 풍토였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오늘날의 사회는 혁신적인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등 정보화사회의 여러 부면의 변화에 따라 이전의 풍토와는 전혀 다른 교육장면에서의 대응들을 요구한다. 이런 맥락에서 학교교육 장면에서도 역시 다양한 교육적 대응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 교육환경과 제도 및 조직구조들은 이전의 풍토와 전혀 다른, 이를테면, 소량생산, 아이디어 창출, 지식근로자, 다양성 지향에 토대를 둔 형태로 변화되어야 한다고 논의한다.⁹⁾

다시 말하자면, 학교교육을 통해 사회구성원들이 혁신적인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변화에 적극 적응하면서 동시에 미래사회의 삶을 예비하고,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적 장면들이 준비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여기에는 가상공간을 활용한 e-learning 강화, 원격교육매체를 활용한 원격교육 확대 실시, 학위 중심의 교육에서 자격증 중심의 교육 중시,

아동과 청소년을 주요 학습자로 생각하는 페다고지(Pedagogy)에서 성인 교육자를 대상으로 하는 앤드라고지(Andragogy)의 교육관 이동 등을 사례로 들 수 있다(한준상, 1999 b). 또, 의식면에서는 획일적이고 수렴적인 사고지향 중심의 교육관이 창의적이고 확산적 사고로 변화되어야 하며, 역할 및 방법에서는 수동적이고 획일적이며 대규모화된 교육과정들이 능동적이고 실생활에 응용될 수 있는 다양한 소규모 교육과정으로 극복되어야 한다고 논의한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의 방향은 제도의 보완이 아니라 인식의 전환을 통해 패러다임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인식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넷째로는, 오늘날 공교육의 위기를 정부주도의 지속적인 교육개혁정책의 실패에서 기인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이 입장은 정부가 주도해 온 교육개혁정책이 학교현장과 현격히 유리되어 왔으며, 따라서 교육을 개혁·강화시키기 위한 정책이 오히려 학교와 교사의 권위를 심각하게 훼손, 이로 말미암아 공교육의 기반이 무너진 것으로 진단한다. 이 입장을 일컬어 ‘공교육강화론’이라고 할 수 있다. 보수적 집단과 진보적 집단을 아우르는 이 입장은 대체로 교사와 학부모 집단, 그리고 일부 언론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부분적으로 다른 흐름들과 함께 연계되고 있다.

공교육강화론이 바라보는 오늘날의 공교육 위기현상의 주범은 다름 아닌 “정부주도의, 현장과 유리된 졸속적인 교육개혁정책”이다. 이 논의의 핵심은, 국민의 정부가 들어선 시점을 기준으로 그 동안 이루어진 교육정책들이, 교육정책 입안 당초의 취지와 의미는 살리지 못한 채, 오히려 학교와 교사의 권위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이로 인해 전반적인 교육의 질 저하를 초래하였다는 주장에 있다. 이러한 주장에는 지금까지 수행되어온 수요자 중심의 교육정책에 대한 비평이 고스란히 담겨 있고, 상대적으로 폄하되어온 교원의 지위와 학교의 권위에 대한 회복을 함의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입장들은 대체로 교단의 지지를 통해 우리 사회에 확산되어졌다.

한편, 공교육 위기현상의 원인을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크게 일치하지만 구체적인 진단이나 대안의 설정에서는 보수적인 공교육강화론과 진보적인 공교육강화론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먼저 전문직으로서의 교사의 권위 존중 및 처우개선, 학교중심의 교육정책 실시를 중심으로 논지를 이어가는 보수적인 입장은(참고: 윤정일, 1999;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2000), 오늘날 학교현장과 유리된 정부주도의 교육개혁이 전면적으로 실패하면서, 그 동안 진행되었던 가정교육의 부재와 전통적인 사회가치관의 몰락과 결합, 공교육의 위기를 상승시켰고, 한편으로는 교육여건의 부실과 열악함이 함께 맞물리면서 총체적으로 교원의 사기마저 저하되어 사교육시장과 비교해 경쟁력을 상실한 처참한 학교가 되었다고 본다. 특히 이들이 바라보는 공교육 위기에 대한 접근은 교사집단의 '위축된' 교권(敎權), 혹은 교수(敎授)의 질적 측면을 충분히 지원하지 못하는 교육정책의 부실에서 바라보기도 한다(참고: 동아일보, 2001. 5. 23).

반면에 진보적 입장에 서 있는 공교육강화론자들은 전체적으로 학교현장과 동떨어진 교육정책(교원정년단축, 수행평가, 7차교육과정개편의 문제점)의 실패에서는 총론적으로 일치하지만, 그 동안 교육내부의 모순과 교육장면의 열악함도 함께 거론하는 입장이다. 이들은 교사의 교권확립이나 현장중심 교육개혁도 중요하지만 △ 학생들이 한 인간으로서 삶을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는 학교문화를 개선하고 △ 교사들도 전문성과 자율성, 도덕성을 갖고 교직문화개선운동을 전개하며 △ 교육과정 체제도 전면 개혁하는 등 '생각하는 학교전략', '따뜻한 학교공동체 만들기'에 주력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이인규, 2001).

공교육강화론자들이 공교육의 위기원인으로 삼는 정부가 취한 일련의 교원사기 저하와 관련한 교육정책들, 이른바 학교체벌금지, 춘지실태 고발, 학교폭력¹⁰⁾ 등 비판의 대상이 되는 정책들의 정점에는 단연 교원정년단축 강행이 있다. 그리고 이러한 비판의 핵심은 수요자 중심의 교육정책이었으며, 이는 상대적으로 폄하되었던 교직사회의 분위기를 대변하는 것

이었다.

"국민의 정부가 들어선 이후 신자유주의 정책에 따라 수요자 중심 교육을 강조하면서 정치논리와 경제적 산술에 입각, 당사자인 교원의 의견 수렴 없이 여론몰이 식으로 교원정년단축을 단행하였다. 교원의 정년단축은 제안당시부터 물의를 빚었으며, 시행 후 초·중등 교육현장을 황폐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교원의 정년단축은 교원의 사기저하 및 긍지와 사명감의 상실을 초래하였고 명퇴, 퇴직교원을 급증시키는 문제를 유발시켰다. 그 결과 교원수급의 불균형이 제기되면서 미봉책으로 강구한 일련의 교원수급정책은 교원의 전문성과 책무성을 저하시켜 우리 교육의 질 저하를 가져오는 결과를 가져왔다.(중략)..... 교원의 정년단축은 교원의 교육적 열의와 긍지를 감축시켰고, 후속조치인 일련의 교원정책과 맞물려 학교교육의 황폐화, 수업의 난진행을 초래하여 현재 심각한 교육적 후유증을 남기고 있다"(이명호, 2001).

이와 관련, 윤정일(1999; 6-12)도 국민의 정부가 취한 그간의 교육정책이 수업붕괴, 교실붕괴, 학교붕괴 등 공교육의 위기가 총체적인 교육정책의 실패로 인해 초래하였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외에도 교육현장의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수행평가의 강행, 급변하는 대학입시제도, 교육과정의 졸속 개편 등도 이러한 주장 안에 포섭된다.

<표 II- 1> 학교교육 위기현상 진단의 각 흐름별 입장

흐름	세부 흐름	지시집단	학교교육 위기현상에 대한 원인 진단	고려되는 대응방안들
갈등이론·탈학교론	갈등이론	갈등론자	○학교교육 중심의 교육신화와 이데올로기 ○학교 기능(사회적 불평등의 재생산/교육불평등 구조)에 대한 불신	○학력주의 사회의 철폐(학력차별금지법 제정) ○자율적 학습네트워크에 기반한 홈스쿨링, 대안학교 등 대안적 교육장면의 촉진과 확산(학교교육 특점의 교육체 제거부) ○학습자의 인권강조 ○지역통화·교육통화시스템
	탈학교론	일부 청소년 및 사회단체 / 청소년 기관·단체	○갈등론자의 진단과 크게 다르지 않음 ○경직된 획일적 교육구조 ○학교교육 특점의 교육장면	
탈근대적 학교교육론	거시적 맥락	사회학자 일부	○탈근대성을 억압하는 전근대적·근대적 성향의 사회구조와 학교체제 ○사회변화에 조응하지 못하는 학교교육, 학교체제	○탈근대성을 수용하는 사회전반의 의식과 제도적 변화 ○탄력적이고 유연한 학교제도와 학교문화 개혁(탈근대적 학교개혁) ○대안적 교육장면의 촉진과 확산(갈등론자 입장지시) ○청소년에 대한 관점의 전환(학생→청소년) ○학교 외 장면의 다원화된 청소년 활동지망의 구축
	미시적 맥락	교육학자 일부	○거시적 맥락과 일치 ○학습자변화에 비탄력적인 교실문화, 교사문화, 학교문화 ○융통성 없는 기성세대의 의식 및 학교교육의 경직성	
교육제도구조화론	-	일부 학자 그룹 / 교육공학자* / 산업 현장 및 기업교육	○산업화사회에 기반한 학교교육의 기능 한계 ○국가중심의 경직된 획일적 교육구조	○다원화된 개인의 학습욕구 충족을 위한 교육패러다임의 전환 ○평생교육 관점에 기초하고 다양한 교육장면이 가능한 학습사회 건설 ○학습중심의 지식창조형 공교육 구축 ○정보통신 기술에 기반한 가상공간, 산업장면에서의 학습강조(가상학교, 기업교육협성화, 원격교육체제, e-learning 등)
교육정책신화론	보수적 공교육 강화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일부 언론과 일부 학부모	○학교현장과 유리된 수요자 중심의 교육개혁정책 실패→교단의 자기전하→교육의 질 저하→교권 및 학교의 권위 붕괴 ○가정교육의 부재 ○전통적 사회가치관의 몰락(아노미) ○매스미디어의 선정적 보도 ○부실하고 열악한 교육여건	○전문직으로서의 교사 권위 존중 및 현실적 처우 개선 ○학교현장 중심의 교육정책 실시 ○전통적 가치관의 회복 및 가정교육/인성교육/인간교육 강화 ○교육투자의 확대
	진보적 공교육 강화론	전교조/일부 언론/일부 학부모	○급진적인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의 강행과 실패(충분적인 수준에서는 위와 크게 다르지 않음)	○학교문화의 개선 ○교직원개선운동의 전개 ○생각하는 학교 전략 /따뜻한 학교공동체 건설

※ 여기서 일부학자그룹이란 지식기반 사회 및 정보사회로의 변화와 사회변화에 조응해야 하는 교육목적, 기능에 관심을 갖는 미래학자, 사회학자, 교육공학자들을 말함.

그러나 이 흐름에서는 중퇴와 같은 현상이 여전히 일탈적 행위로 보여지고 있고, 또 그 자체가 주요하게 다루어지는 주제나 대상이라고 보기에는 어렵다. 다만 중퇴현상은 실패한 교육정책의 부산물이자 오늘날의 굴절되고 파행적인 교육의 현실로 봄으로써 실천적인 대응전략 구안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지금까지의 네 가지 흐름을 중심으로 학교교육 위기현상을 지지하는 집단과 원인, 대응방안들에 대해 간략히 요약하면 <표 II- 1>과 같다.

5. 학업중도탈락의 실태와 현황

학업중도탈락이 현재 어느 정도인가에 대한 실태조사는 대체로 많은 연구들이 교육부의 교육통계연보에 기초하여 수행되어 왔다. 이에 따르면, 학업중도탈락을 하는 청소년의 수는 1980년이래 연 평균 7~8만 명에 이르며 최근 5년 사이에 전체 재학생의 1.7~2.1%에 해당하는 증감을 보여왔다(참고: 표 II-2).

보통 중학교보다는 고등학교에서 중퇴가 더 많이 발생하며 그 차이는 약 3배에 가깝다(참고: 그림 II- 1). 그러나 비록 중학교 중퇴규모가 고등학교보다 작다고 하지만, 매년 상당수의 중학교 중퇴가 발생하는 현실은 모든 학생들에게 공평하게 제공되어야 할 교육의 기회를 국가가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는 점에서 아쉬운 현실이다. 특히 중학교 중퇴생의 경우 인간의 성장발달에서 가장 중요한 연령기에 정규교육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올바른 사회화과정을 습득할 수 없으므로 성인이 되어도 다양한 종류의 사회부적응을 유발하는 부적응의 악순환을 낳게 될 우려(한이영 외, 1999)와 함께, 학교 이외의 다른 영역에서라도 학습경험을 연장할 수 있는 마땅한 기반과 기회들을 우리 사회가 제공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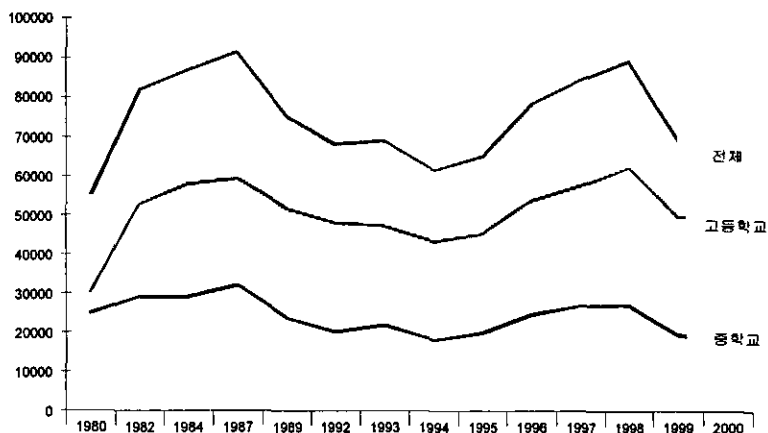
<표 II-2> 연도별 중고등학교 재학생 및 중퇴생의 추이

<단위 : 명(%)>

구분 연도	중학교		고등학교		계	
	재학생	중퇴생	재학생	중퇴생	재학생	중퇴생
1980	2,471,997	24,988(1.0)	1,696,792	30,484(1.8)	4,168,789	55,472(1.3)
1982	2,603,433	29,070(1.1)	1,922,221	52,808(2.8)	4,252,654	81,878(1.8)
1984	2,735,625	29,052(1.1)	2,092,401	57,886(2.8)	4,828,026	86,938(1.8)
1987	2,657,730	32,097(1.2)	2,130,106	59,251(2.8)	4,787,836	91,348(1.9)
1989	2,371,215	23,568(1.0)	2,326,062	51,475(2.2)	4,697,247	75,043(1.6)
1992	2,336,284	20,064(0.9)	2,125,573	47,821(2.3)	4,461,857	67,885(1.5)
1993	2,410,874	21,733(0.9)	2,069,210	46,996(2.3)	4,480,084	68,729(1.5)
1994	2,508,657	18,078(0.7)	2,060,825	43,254(2.1)	4,569,482	61,332(1.3)
1995	2,481,848	19,817(0.8)	2,157,880	45,145(2.1)	4,639,728	64,962(1.4)
1996	2,379,983	24,567(1.0)	2,243,307	53,743(2.4)	4,623,290	78,310(1.7)
1997	2,180,283	26,897(1.2)	2,336,725	57,536(2.5)	4,517,008	84,433(1.9)
1998	2,011,468	26,989(1.3)	2,326,880	62,117(2.7)	4,338,348	89,106(2.1)
1999	1,896,956	19,481(1.0)	2,251,140	49,635(2.2)	4,148,096	69,116(1.7)
2000	1,860,539	17,338(0.9)	2,071,468	48,708(2.4)	3,932,007	66,046(1.7)

* 출처 : 문교부, 문교통계연감(1980-1989) 교육부, 교육통계연감(1990-2000)

<표 II-2>에서 1998년도의 각급 학교 중퇴현황이 다른 해에 비해 높은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자발적 학업중도탈락 유형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비교대상제 폐지에 따른 특수목적고등학교 출신자들의 대거 중퇴에 기인한 것으로 보여진다. 특히, 1998년도 기준으로 전 해 대비 중학교 중퇴생 증가비율에 비해 고등학교 중퇴비율이 급격히 높아진 것을 통해 이를 추론해 볼 수 있다.



<그림 II- 1> 연도별 중·고등학교 중퇴생의 추이

이런 경향은 <표 II-3> ‘연도별 중학교·일반고·실업고 재학생 및 중퇴생의 추이’에서 보다 명징하게 드러난다. 전통적으로 인문고등학교에 비해 중퇴생과 중퇴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또 매년 증가하던 실업계 고등학교 중퇴규모가 1998년도는 90,433명에서 89,106명으로 오히려 감소하는 대신 일반계 고등학교에서의 중퇴생 규모는 전년 대비 약 15,000명 정도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당해년도 중학교 중퇴규모가 큰 증가폭(92명 증가)이 아니고, 또 청소년연령이 전체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문화관광부, 2000)를 감안해보면, 이 시기의 일반계 고등학교의 중퇴상승폭은 특수목적고등학교의 대규모 중퇴를 상징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표 II-3> 연도별 중학교·일반고·실업고 재학생 및 중퇴생의 추이
<단위 : 명(%)>

연도	중학생		일반고		실업고		합계	
	재학생	중퇴생	재학생	중퇴생	재학생	중퇴생	재학생	중퇴생
1980	2,471,997	24,988(1.0)	932,605	15,422(1.7)	764,187	15,062(2.0)	4,168,789	55,472(1.3)
1985	2,782,173	29,052(1.0)	1,266,840	23,913(1.9)	885,962	33,973(3.8)	4,934,975	86,938(1.8)
1990	2,275,751	23,568(1.0)	1,473,155	26,834(1.8)	810,651	24,641(3.0)	4,559,557	75,043(1.6)
1995	2,481,848	19,817(0.8)	1,246,427	16,100(1.3)	911,453	29,045(3.2)	4,639,728	64,962(1.4)
1997	2,180,283	26,897(1.2)	1,376,688	17,470(1.3)	960,037	46,066(4.8)	4,517,008	90,433(2.0)
1998	2,011,468	26,989(1.3)	1,399,394	18,905(1.4)	927,407	43,212(4.7)	4,338,269	89,106(2.1)
1999	1,896,956	19,481(1.0)	1,399,389	15,921(1.1)	851,751	33,714(4.0)	4,148,096	69,116(1.7)
2000	1,860,539	17,338(0.9)	1,324,482	16,520(1.2)	746,489	32,188(4.3)	3,931,510	66,046(1.7)

* 출처 : 문교부, 문교통계연감(1980; 1985) 교육부, 교육통계연감(1990-2000)

물론 이러한 수치상의 변화에는 이때부터 가시화된 교육부의 실업계 고등학교 억제정책으로 인해 실업계 고등학교의 전체 규모가 이 시기부터 양적으로 감소, 그에 따른 중퇴율의 저하도 감안해야 한다.

또한, 90년대 중반 이후 자발적으로 학교를 거부하는 청소년들의 숫자가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를 감안해본다면 단지 이 시기의 중퇴상승폭이 특수목적고의 중퇴만을 고려한다고는 볼 수 없다. 그러나 재학생 수 대비 전체 규모에 있어, 그리고 당시 비교대상제 폐지에 따른 일련의 특수목적고 사태가 이 시기의 주요 중퇴요인임에는 쉽게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한편, 최근 학업중도탈락 현상과 관련하여 의미있는 변화 중의 하나는 중도탈락한 청소년들 중 여자 청소년의 증가추세가 두드러졌다는 점이다.

<표 II-4> 연도별 중고등학교 중도탈락 여자청소년의 추이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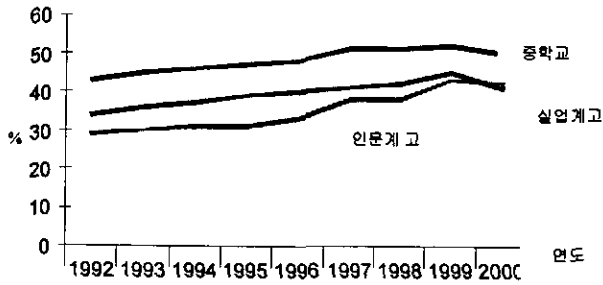
구분 연도	중학교		일반계 고등학교		실업계고등학교		소계 (①+②+③)
	중퇴생	여자 ①	중퇴생	여자 ②	중퇴생	여자 ③	
1992	20,064	8,581(43)	23,304	6,721(29)	24,517	8,399(34)	23,701
1993	21,733	9,745(45)	20,097	5,998(30)	26,899	9,536(36)	25,279
1994	18,078	8,327(46)	16,603	5,087(31)	26,651	9,865(37)	23,279
1995	19,817	9,348(47)	16,100	5,046(31)	29,045	11,378(39)	25,772
1996	24,567	11,693(48)	17,610	5,795(33)	36,133	14,291(40)	31,779
1997	26,897	13,731(51)	17,470	6,585(38)	40,066	16,546(41)	36,862
1998	26,989	13,849(51)	18,905	7,252(38)	43,212	18,182(42)	39,283
1999	19,481	10,115(52)	15,921	6,789(43)	33,714	15,265(45)	32,269
2000	17,338	8,650(50)	16,520	6,936(42)	32,188	13,187(41)	28,773

* 출처 : 교육부, 교육통계연감(1992-2000)

<표 II-4>에 따르면, 여자 청소년의 중퇴추세는 1998년까지 중학교와 일반계·실업계 고등학교 모두 꾸준히 증가하다 최근에 이르러 소폭 감소하는 추세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전체 중퇴생 중 여자중퇴생이 차지하는 비율은 1999년도에 이르기까지 점증하다 지난해(2000년)에 이르러서야 약간 감소하고 있다(참고: 그림 II-2).

특히 중학교의 경우, 1997년을 기점으로 여자중퇴 청소년들이 전체 중퇴생 규모의 절반을 넘는 규모로 증가하였다. 또 중학교나 일반계 고등학교보다 상대적으로 여자 청소년의 중퇴율이 높은 실업계 고등학교는 지난해(2000년) 전체 중퇴생의 41%를 차지하였으며 1999년에는 45%까지 상승하였다. 특히 일반계 고등학교의 경우는 1992년 전체 중퇴자 중 29%의 중퇴율을 유지하던 것이 지난해에는 무려 42%까지 급증(13% 상승), 실업계 여자청소년의 중퇴율을 추월하는 가파른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전체 중퇴생 중 여자 청소년의 중퇴규모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은 학업중도탈락현상과 관련하여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그림 II-2> 전체 중퇴생 중 여자중퇴생비율 추이

먼저, 현재의 중퇴경향이 구조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예방 및 보호활동, 그리고 개입활동에 있어 중대한 변화가 요

구된다. 실제로 지금까지 규모면에서 과소의 위치를 차지하였기 때문에 남자 중퇴청소년 위주로 고려되거나 실시되었던 기존의 대응장면 및 방법들을 수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는 지금까지 수행되고 고려되었던 상담개입전략, 보호 및 교정시설, 중퇴예방전략의 총체적인 변화를 예견할 수 있다. 특히 남자 중퇴청소년에 비해 중퇴 이후 지원서비스체제 및 내용이 부족한 여자 중퇴청소년들을 위한 실질적인 서비스 변화가 요구된다.

둘째, 일반계 고등학교에서의 여자중퇴자가 급증하고 있는 이유와 원인에 대한 시급한 조사와 분석이 요구된다. 향후 진로에 대한 구체적인 모색과 실천계획이 체계화되는 고등학교에서의 중퇴는 중학교에서의 중퇴보다 더 심각한 결과를 불러온다. 아울러 실업계에 비해 상급학교 진학을 염두에 두는 일반계 고등학교일수록 중퇴 이후의 대비방안은 더욱 제한적일 수 있다. 따라서 일반계 고등학교에서의 여자 중퇴청소년의 증가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조사와 원인규명이 선행되고 이에 따른 적절한 사회적 개입전략과 지원방안이 구안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각 연도별에 따른 각급 학교에서의 중퇴사유를 살펴보면, 먼저 중퇴사유가 1995년까지 질병과 가사, 기타 등 3가지 사유항목으로 구분되다가 1996년부터 사망과 품행이라는 두 가지 사유가 더 늘어났음을 알 수 있다(참고: 표 II-5, 표 II-6, 표 II-7). 이는 그 동안 중퇴현상의 유

형을 보다 세분화하여 살펴보려는 시도로 보여진다. 그러나 여전히 자발적 학업중도탈락 혹은 중퇴와 명퇴 등의 분명한 유형구분이 없고 또 여전히 세부항목으로 구분하지 않아 중퇴의 명확한 원인을 살펴볼 수 없어 향후 세부항목 기준이 설정되어야 한다.

각 급 학교에서 나타나는 중퇴사유는 공통점과 함께 차이도 있다. 먼저 공통점으로는 대체로 모든 학교에서 질병과 가사에 의한 중퇴추세가 감소하고, 기타사유는 모든 학교가 1996년에 감소하다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그 동안 기타사유로 묶었던 여러 유형의 중퇴 중 품행에 대한 사유항목이 생기면서 기타유형의 규모가 감소하다가 질병·가사·품행 등의 사유에 편입할 수 없는 또 다른 사유에 의한 중퇴현상이 발생하여 이를 다시 기타항목으로 편입하고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여기에는 무엇보다 앞서 언급한 포괄적 의미에서의 자발적 학업중도탈락의 발생과 밀접한 것으로 보여진다. 즉, 내신성적을 위해 중퇴하는 특수목적고 학생들의 중퇴, 외국으로의 유학과 이민행렬, 그리고 자발적으로 학교를 거부하는 학생들의 증가추세와 매우 밀접하다. 실제로 이러한 유형은 지금의 중퇴사유 항목에 적절히 편입할 수 있는 항목이 없어 결국 기타항목에 들어갔을 것이고 또 이런 유형의 중퇴가 증가함에 따라 기타사유의 중퇴규모가 커진 것으로 추론된다.

특히 기타사유를 중심으로 1992년, 1996년, 2000년(5년 단위)을 기준으로 하여 각급 학교의 중퇴비율을 살펴보면, 중학교가 41.4%→33%→64.8%를, 일반계 고등학교가 35%→28%→50%를, 실업계 고등학교가 41%→28%→54.3%의 변화를 보이고 있다. 이는 다시 각급 학교에 따른 자발적 학업중도탈락의 경향과 그 차이를 추론할 수 있다. 예컨대 일반계 고등학교의 경우는 특수목적고 출신자의 중퇴를(실제로 1997년대비 1998년에 기타사유로 인한 중퇴자가 약 1,000명 증가) 생각해볼 수 있고, 중학교의 경우는 조기유학과 이민에 따른 중퇴의 상승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표 II-5> 연도별 중학교 중퇴사유

<단위 : 명(>)

	중퇴생	중퇴 사유									
		질병		가사		기타		사망		총합	
		소계	여자	소계	여자	소계	여자	소계	여자	소계	여자
1992	20,064	1,640(8.2)	679	10,124(50.5)	4,667	8,300(41.4)	3,235	-	-	-	-
1993	21,733	1,601(7.4)	689	10,112(46.5)	4,837	10,020(46.1)	4,219	-	-	-	-
1994	18,078	1,625(9.0)	658	8,480(46.9)	4,196	7,973(44.1)	3,473	-	-	-	-
1995	19,817	1,535(7.7)	670	8,784(44.3)	4,463	9,498(48.0)	4,215	-	-	-	-
1996	24,567	1,357(5.5)	597	8,866(36.1)	4,517	8,097(33.0)	3,591	629(2.6)	220	5,618(22.9)	2,768
1997	26,897	1,278(4.8)	561	8,576(31.9)	4,727	8,820(32.8)	4,279	627(2.3)	225	7,596(28.2)	3,939
1998	26,989	1,199(4.4)	558	7,853(29.1)	4,206	9,083(33.7)	4,314	463(1.7)	163	8,391(31.1)	4,608
1999	19,481	1,078(5.5)	491	5,099(26.2)	2,813	11,503(59.0)	5,894	484(2.5)	215	1,317(6.8)	702
2000	17,338	832(4.8)	377	4,086(24.0)	2,076	11,231(64.8)	5,572	341(2.0)	131	848(4.9)	494

* 출처 : 교육부, 교육통계연감(1992-2000)

<표 II-6> 연도별 일반계 고등학교 중퇴사유

<단위 : 명(>)

	중퇴생	중퇴 사유									
		질병		가사		기타		사망		총합	
		소계	여자	소계	여자	소계	여자	소계	여자	소계	여자
1992	23,304	2,831(12.1)	843	12,363(53.1)	3,389	8,110(35.0)	2,489	-	-	-	-
1993	20,097	2,480(12.3)	806	10,457(52.0)	3,123	7,160(36.0)	2,069	-	-	-	-
1994	16,603	2,303(13.9)	732	8,644(52.0)	2,701	5,656(34.1)	1,654	-	-	-	-
1995	16,100	2,088(13.0)	685	8,021(49.8)	2,393	5,991(37.2)	1,968	-	-	-	-
1996	17,610	1,773(10.1)	632	8,281(47.0)	2,770	4,821(28.0)	1,584	392(2.2)	112	2,243(12.7)	697
1997	17,470	1,691(9.7)	611	7,749(44.3)	3,007	5,333(31.0)	2,054	415(2.4)	126	2,282(13.1)	787
1998	18,905	1,657(8.8)	651	7,924(42.0)	3,007	6,332(33.5)	2,514	378(2.0)	117	2,614(13.8)	963
1999	15,921	1,584(10.0)	679	6,208(39.0)	2,717	7,206(45.3)	2,969	432(2.7)	139	491(3.1)	285
2000	16,520	1,401(8.5)	615	6,163(37.0)	2,638	8,229(50.0)	3,349	317(1.9)	104	410(2.5)	230

* 출처 : 교육부, 교육통계연감(1992-2000)

<표 II-7> 연도별 실업계 고등학교 중퇴사유

<단위 : 명(%)>

	중퇴 생	중퇴 사유									
		질병		가사		기타		사망		품행	
		소계	여자	소계	여자	소계	여자	소계	여자	소계	여자
1992	24,517	1,024(4.2)	403	13,445(55.0)	4,697	10,048(41.1)	3,299	-	-	-	-
1993	26,899	1,159(4.3)	471	14,476(54.0)	5,029	11,264(41.9)	4,036	-	-	-	-
1994	26,651	1,057(4.0)	419	13,640(51.2)	4,913	11,954(44.6)	4,533	-	-	-	-
1995	29,045	1,179(4.1)	489	13,886(48.0)	5,441	13,980(48.1)	5,448	-	-	-	-
1996	36,133	1,142(3.2)	430	15,589(43.1)	6,298	10,134(29.1)	3,428	504(1.4)	110	8,764(24.2)	4,025
1997	49,066	1,088(2.2)	462	16,640(34.0)	6,906	9,136(18.6)	3,343	567(1.2)	164	12,635(25.6)	5,671
1998	43,212	1,127(2.6)	430	16,470(38.0)	6,559	10,810(25.0)	4,319	527(1.2)	117	14,278(33.0)	6,757
1999	33,714	1,131(3.4)	464	11,673(35.0)	5,288	17,569(52.1)	7,835	380(1.1)	113	2,961(8.8)	1,565
2000	32,188	926(2.9)	437	10,839(34.0)	4,344	17,478(54.3)	7,013	439(1.4)	115	2,506(7.8)	1,278

* 출처 : 교육부, 교육통계연감(1992-2000)

한편, 기타사유가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에는 그동안 품행사유로 삼았던 중퇴가 대거 기타로 편입하는 것과 관련이 깊다. 대체로 품행과 관련한 중퇴사유는 모든 학교에 있어 1999년을 기준으로 급격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 중학교는 31.1%에서 6.8%로, 일반계 고등학교는 13.8%에서 3.1%로, 실업계 고등학교는 33.0%에서 8.8%로 감소하였다. 이는 그 동안 품행상의 문제로 잡았던 중퇴현상이 기타사유에 편입하였음을 의미하는데 이는 자발적 학업중도탈락 현상의 세 번째 유형인 '자발적 학업중지자'로 생각할 수 있다. 2000년도 각급 학교의 기타사유로 중퇴한 청소년들은 모두 36,938명으로 집계되었다. 이 인원이 바로 넓은 의미에서 자발적 학업중도탈락자를 포함한 규모라 할 수 있으며 이 중에는 제한적 의미에서의 자발적 학업중퇴자도 포함된 수치이다.

이처럼 자발적 학업중도탈락자들의 현황과 실태를 정확하게 추산하기란 지금으로서는 거의 불가능하다. 다만 각 시·도 교육청에서 자체적으

로 관내 각급 학교를 대상으로 별도의 기준으로 자발적 학업중도탈락자들을 집계하고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한 가지 언급하고 싶은 것은 교육행정관료의 이른바 '통계의 독점'이다. 현재로써는 각 시·도교육청에서 집계하고 있는 학업중도탈락자의 현황정보를 연구목적으로 수집하기도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¹¹⁾ 결국 연구자가 얻은 한 광역권역 교육청의 통계를 중심으로 부분적이지만 자발적 학업중도탈락의 실태를 살펴볼 수밖에 없었다.

먼저, <표 II-8>에서부터 <표 II-12>를 살펴보면 이 교육청에서는 중도탈락의 사유를 통계연보의 그것보다 좀 더 세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I-8> A광역 자치권역 학업중도탈락자 현황

<단위: 명>

구 분	계			중 학 교			고 등 학 교		
	1994	1995	1996	1994	1995	1996	1994	1995	1996
계	1,685	1,841	2,059	435	478	650	1,250	1,363	1,409
가정사정	862	851	862	154	139	174	708	712	688
건강	28	47	74	8	14	36	20	33	38
학습부적응	317	372	578	92	72	186	225	300	392
가출	138	180	332	69	90	172	69	90	160
비행자화	29	38	53	16	21	20	13	17	33
퇴학	87	116	95	32	41	31	55	75	64
기타	224	237	65	64	101	31	160	136	34

특히 1997년부터는 ① 가출·비행·장기결석 ② 학습 및 학교생활 부적응 ③ 가정사정 ④ 검정고시 ⑤ 질병 등 건강문제 ⑥ 유학·이민 ⑦ 기타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포괄적 의미에서의 자발적 학업중도탈락의 유형은 ②, ④, ⑥ 번 등으로 구분되어 있었고, 부분적으로 기타항목의 인원

이 여기에 추가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교육부 통계연감 상으로 자발적 학업중도탈락자들을 기타 사유에서 추론한 것과 비교한다면, 품행상의 분명한 이유는 가출이나 비행, 장기결석 등의 항목으로 분류하여 명시하였음을 알 수 있다. 연구자의 인터뷰에 따르면, 교육청 자체집계항목 중 진순한 의미에서의 자발적 학업중도탈락자들은 대체로 ② 번 학습 및 학교생활의 부적응 항목에 포함되었다고 하였다.

<표 II-9> 1997년도 중도탈락자 현황(1997. 3. 1~12. 31)

<단위 : 명>

구분	가출/비행 (장기결석)		학습 및 학교생활 부적응		가정 사정		검정 고시		건강 (질병)		유학 야학		기타		합계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중학교	76	119	131	69	51	57	-	-	9	4	16	16	18	14	580	
고등학교	일반계	32	12	57	25	110	57	-	1	5	6	3	8	8	3	327
	실업계	244	175	251	100	341	221	-	1	9	6	1	3	30	15	1,397
	계	276	187	308	125	451	278	-	2	14	12	4	11	38	18	1,724
합계	352	306	439	194	502	335	-	2	23	16	20	27	56	32	2,304	
총계	658		633		837		2		39		47		88			

<표 II-10> 1998년도 중도탈락자 현황(1998. 3. 1~12. 31)

단위 : 명>

구분	가출/비행/장기결석		학습 및 학교생활 부적응		가정 사정		검정 고시		건강 (질병)		유학, 야학		기타		합계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중학생	44	88	85	72	41	89			7	6	10	9	15	15	481	
고등학교	일반계	15	14	99	15	52	43	1		7	5	8	5	5	4	273
	실업계	168	178	275	142	169	157	1	17	6	31			11	46	1201
	계	183	192	374	157	221	200	2	17	13	36	8	5	16	50	1474
합계	227	280	459	229	262	289	2	17	20	42	18	14	31	65	1955	
총계	507		688		551		19		62		32		96		1955	

<표 II-11> 1999년도 중도탈락자 현황(1999. 1. 1~12. 31)

<단위 : 명>

구분	가출/비행 장기결석		학습 및 학교생활 부작용		가정 사정		검정 교시		건강 (질병)		유학, 야민		기타		합계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중학교	37	73	69	71	32	34	0	0	5	8	20	21	10	22	402
고 등 학 교	15	20	55	47	57	31	2	1	3	4	9	6	3	28	281
일반계	15	20	55	47	57	31	2	1	3	4	9	6	3	28	281
실업계	152	118	140	80	175	179	1	2	6	5	0	1	17	93	969
계	167	138	195	127	232	210	3	3	9	9	9	7	20	121	1,250
합계	204	211	264	198	264	244	3	3	14	17	29	28	30	143	1,652
총계	415		462		508		6		31		57		1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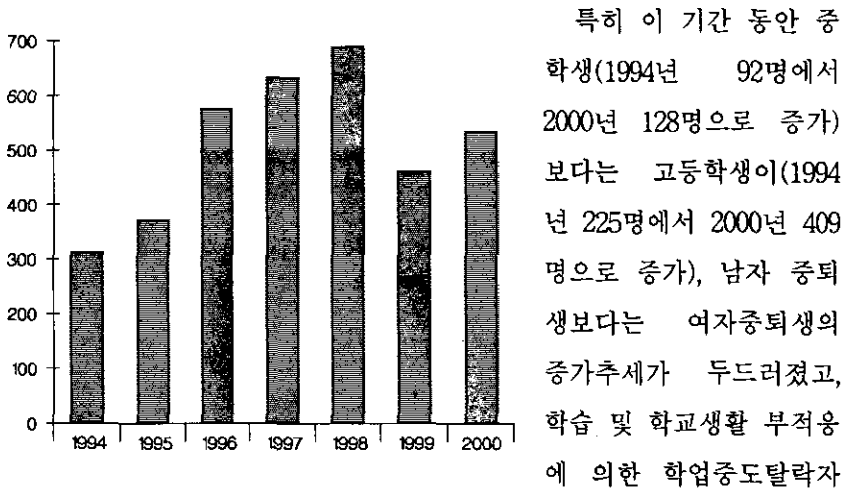
<표 II-12> 2000년도 중도탈락자 현황(2000. 1. 1~12. 20)

<단위 : 명>

구분	가출/비행 장기결석		학습 및 학교생활 부작용		가정 사정		검정 교시		건강 (질병)		유학, 야민		기타		합계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중학교	59	69	72	54	18	29	2	0	8	8	38	25	17	17	416
고 등 학 교	16	31	74	34	68	38	1	4	14	11	12	20	6	1	330
일반계	16	31	74	34	68	38	1	4	14	11	12	20	6	1	330
실업계	186	137	146	155	224	190	5	0	7	11	5	0	39	92	1166
계	202	168	220	189	292	228	6	4	21	22	17	20	45	93	1469
합계	261	237	292	243	310	257	8	4	29	30	55	45	62	110	1943
	498		535		567		12		59		100		172		

이 지역에서 자발적 학업중도탈락자들은 1994년도에 312명이었다가 1998년에 688명에 이르기까지 거의 2배에 가깝게 급증하였다가 최근 2년 사이에 증감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참고: 그림 II-3) 서울지역의 중도탈락자가 1998년도에 17,224명, 1999년도 17,585명, 2000년도 17,544명이고, 이 인원내 자퇴생 및 자발적 학업중도탈락자들이 포함된 것과 비교한다면

(이춘화 외, 2001: 17), 서울 인구규모의 약 1/10에 해당되는 이 지역 역시 적지 않은 규모의 청소년들이 학교부적응에 의해 중퇴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림 II-3> 학습 및 학교부적응에 따른 중퇴자 추이

<표 II-13>부터 <표 II-16>은 이 지역의 중도탈락 청소년들이 해당 연도 내에 다시 복교한 학생들의 수를 말한다. 이는 교육부(1997)의 자퇴학생 구제차원에서 실시된 중등학교 중퇴생 복교정책의 일환으로 실시된 결과이다. 그런데 이 정책은 결과적으로 그다지 성공적이지 못한 것으로 보여진다.

표들에 따르면 1997년부터 2000년에 이르는 4년간 중학교 중도탈락자들 중 복교한 청소년이 차지하는 비율은 29.5%→34.9%→41.5%→31.3%를, 일반계 고는 20.8%→19.8%→15.7%→12.1%를, 실업계 고는 20.1%→25.2%→20.8%→16.2%의 추이를 보이고 있다. 이 기간 동안 전체 고등학교 중퇴자들 중 평균 복교비율은 20.2%→24.2%→19.7%→15.6%였고, 중등학교 전체 중퇴생 중 복교율은 22.6%→26.8%→25.0%→18.5%였다. 결국 중학교는

1999년도를 기점으로, 실업계 고는 1998년도를 기점으로 감소하였고 일반 계 고교의 경우는 증가추세 없이 계속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 중퇴생 복교 정책이 그다지 성공적이지 못함을 보여주고 있다.

<표 II-13> 1997년도 중도탈락자 복교 추진현황

<단위 : 명(>)>

구 분		복교신청자 수			적응교육 이수자 수			복교 학생수(A)			중도탈락자수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중 학 교		129	80	209	102	69	171	102	69	171(29.5)	580
고 등 학 교	일반계	51	23	74	46	22	68	46	22	68(20.8)	327
	실업계	233	76	309	212	69	281	212	69	281(20.1)	1,397
	계	284	99	383	258	91	349	258	91	349(20.2)	1,724
합계		413	179	592	360	160	520	360	160	520(22.6)	2,304

* 복교학생(A)는 원적교 복교·타교에서 편입학 복교 모두를 합한 현황임

<표 II-14> 1998년도 중도탈락자 복교 추진현황

<단위 : 명(>)>

구분		복교 신청자수			적응교육 이수자수			복교 학생수(A)			중도탈락자수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중학교		106	77	183	32	20	52	98	70	168(34.9)	481
고 등 학 교	일반계	36	15	51	8	3	11	42	12	54(19.8)	273
	실업계	203	104	307	199	75	274	203	99	302(25.2)	1,201
	계	239	119	358	207	78	285	245	111	356(24.2)	1,474
합계		345	196	541	239	98	337	343	181	524(26.8)	1,955

<표 II-15> 1999년도 중도탈락자 복교 추진현황

<단위 : 명(%)>

구분		복교신청자수			직종교육 이수자수			복교 학생수(A)			중도탈락자수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중학생		99	72	171	7	3	10	96	71	167(41.5)	402
고 등 학 교	일반계	25	19	44	0	0	0	25	19	44(15.7)	281
	실업계	152	58	210	82	26	108	144	58	202(20.8)	969
	계	177	77	254	82	26	108	169	77	246(19.7)	1250
합계		276	149	425	89	29	118	265	148	413(25.0)	1652

<표 II-16> 2000년도 중도탈락자 복교 추진현황(2000. 1. 1~12. 20)

<단위 : 명(%)>

구분		복교신청자수			직종교육 이수자수			복교 학생수(A)			중도탈락자수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중학교		82	70	152	10	7	17	71	59	130(31.3)	416
고 등 학 교	인문고	23	18	41	0	0	0	23	17	40(12.1)	330
	실업고	137	78	215	65	24	89	121	68	189(16.2)	1166
	계	160	96	256	65	24	89	144	85	229(15.6)	1469
합계		242	166	408	75	31	106	215	144	359(18.5)	1943

중등학교 중퇴생을 대상으로 한 복교정책이 성공적이지 못하다는 판단은 복교를 한 학생이 다시 재탈락한 현황과 그 추이를 살펴봄으로써 더 분명해진다. 다음 <표 II-17>부터 <표 II-20>까지는 1997년부터 2000년도에 이르기까지 이 광역자치권역의 중퇴자들이 복교 후 다시 탈락하는 현황과 실태를 보여주고 있다.

<표 II-17> 1997년도 복교학생 중 재탈락 현황

<단위 : 명($\%$)>

구분		복교후 처음부터 등교하지 않아 재탈락(a)		복교후 등교하다가 재탈락한 학생수												계 (a+b) ()안은 복교 학생 수 대비 재탈락률	복 교 학 생 수
				폭력,질도 등 비행		기술,무단 징기결석		학습부진 등 학교성 활부족		위협 건강		기타 사유		계(b)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중학교		5	1	7	-	10	19	30	13	-	-	-	1	47	33	86 (50.3)	171
고 등 학 교	일반계	-	2	-	-	4	-	4	1	1	1	-	2	9	4	15 (22.1)	68
	실업계	2	-	5	-	32	12	13	4	5	1	8	5	63	22	87 (31.0)	281
	계	2	2	5	-	36	12	17	5	6	2	8	7	72	26	102 (29.2)	349
합 계		7	3	12	-	46	31	47	18	6	2	8	8	119	59	188 (36.2)	520
		10		12		77		65		8		16		178			

<표 II-18> 1998년도 복교학생 중 재탈락 현황

<단위 : 명($\%$)>

구분		복교후 처음부터 등교하지 않아 재탈락(a)		복교후 등교하다가 재탈락한 학생수												계 (a+b) ()안은 복교학생 수 대비 재탈락률	목 교 학 생 수
				폭력,질 도 등 비행		기술,무단 징기결석		학습부진 등 학교성 활부족		위협 건강		기타 사유		계(b)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중학교		1	-	6	1	15	7	9	10	2	-	2	3	34	21	56 (33.3)	168
고 등 학 교	일반계	1	-	2	-	3	1	1	1	-	-	1	1	7	3	11 (20.4)	54
	실업계	4	3	8	-	15	13	25	12	-	-	1	3	49	28	84 (27.8)	302
	계	5	3	10	-	18	14	26	13	-	-	2	4	56	31	95 (26.7)	356
합 계		6	3	16	1	33	21	35	23	2	-	4	7	90	52	151 (28.8)	524
		9		17		54		58		2		11		142			

<표 II-19> 1999년도 복교학생 중 재탈락 현황

<단위 : 명(>)

구분	복교후 처음으로 등교하지 않아 재탈락(a)		복교후 등교하다가 재탈락한 학생수												계 (a+b) ()안은 복교 학생수 대비 재탈락률	복교 학생수		
			폭력, 절도 등 비행		가솔, 무단 장기결석		학습부진 등 학교성 취부족		취업 건강		기타 사유		계(b)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중학교	4	3	4	3	16	13	12	12	1	3	1	1	34	31	72 (43.1)	167		
고 등 학 교	일반계		0	0	0	0	4	0	0	2	1	1	0	0	5	3	8 (18.2)	44
	실업계		2	2	4	0	21	7	12	11	3	0	7	5	47	23	74 (36.6)	202
	계		2	2	4	0	25	7	12	13	4	1	7	5	52	26	82 (33.3)	246
합 계	6		5	8	2	41	20	24	25	5	4	8	6	86	57	154 (37.3)	413	
	11		10		61		49		9		14		1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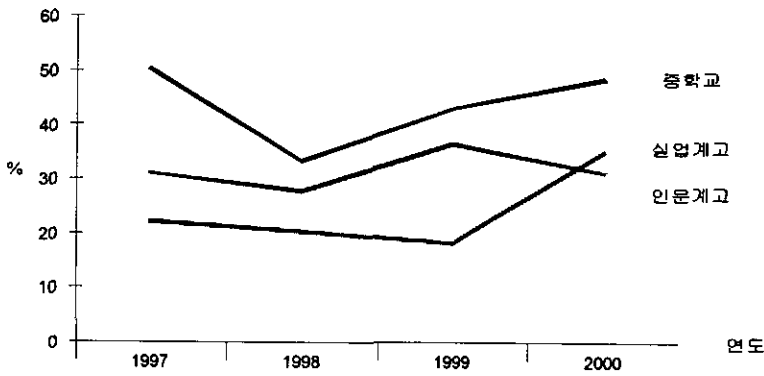
<표 II-20> 2000년도 복교학생 중 재탈락 현황(2000.1.1~12.20)

<단위 : 명(>)

구분		복교 후 처음부터 등교하지 않아 재탈락(a)		복교후 등교하다가 재탈락한 학생수												계 (a+b) ()안은 복교 학생 수 대비 재탈락률		목 교 학 생 수
				폭력, 절 도 등 비 행으로 재탈락		가솔, 무 단 장기 결석으로 재탈락		학습부진 등 학교 성취부족 으로 재탈락		취업이나 건강으로 재탈락		기타 유료 재 탈락		계(b)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중학교		3	1	0	0	15	12	17	8	2	1	3	1	40	23	63 (48.5)	130	
고 등 학 교	일반계	0	0	1	0	4	3	3	3	0	0	0	0	8	6	14 (35.0)	40	
	실업계	1	1	5	0	14	6	21	5	0	1	5	0	46	13	59 (31.2)	189	
	계	1	1	6	0	18	9	24	8	0	1	5	0	54	19	73 (31.9)	229	
합 계		4	2	6	0	33	21	41	16	2	2	8	1	94	42	136 (37.9)	359	
총 계		6		6		54		57		4		9		136				

이 표들에 따르면 1997년 중학교 중퇴자 중 복교를 한 학생 171명 중 86명(50.3%)이 다시 탈락했고, 1998년 33.3%, 1999년 43.1%, 2000년 48.5%의 재탈락률 추이를 보이고 있다. 일반계 고교의 경우는 22.1%(1997년)→20.4%→18.2%→15.0%(2000년)로 다른 학교에 비해 전반적으로 감소추세였고, 반면에 실업계의 경우는 31.0%(1997년)→27.8%→36.6%→31.9%(2000년)로 30% 전후의 증감추이를 보였다.

특히 중학교 중퇴자들의 재탈락률이 점증하고 있는 추세이고 실업계의 경우는 다시 증가추세로 돌아섰음을 알 수 있다(참고: 그림 II-4).



<그림 4> 연도별 복교학생 중 재탈락률 추이

결국 중퇴자들의 복교정책이 현재로서는 인문계 고교에 한정하여 어느 정도 효과를 갖고 있을 뿐 중학교 중퇴자와 실업계 고교 중퇴자들에게는 그다지 성공적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실업계 고교 중퇴생의 재탈락률이 최근 급증하는 추세는 지금의 복교정책 수립과 정책 집행과정에 있어 이들의 특징적 측면들을 향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자발적 학업중도탈락자들의 규모를 구체적으로 산출할 수 있는 통계적 기준의 마련은 매우 시급하다.

III. 연구방법

1. 조사대상 및 조사기간

본 연구에서는 자발적 학업중도탈락 현상의 발생요인을 파악하고 전통적 학업중도탈락 현상과의 비교를 위해 자발적 학업중도탈락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survey)를 실시하였다. 지금까지 수행된 학업중도탈락 원인 연구는 대체로 전통적 학업중도탈락자들을 중심으로 특히 쉼터 및 보호시설 등 교정교화기관에 수용된 청소년이거나 비행 및 범죄소년들 중 학업중도탈락자들을 중심으로 표집한 연구들(참고: 송광성 외, 1992; 김준호, 1993; 손승영, 1995; 손승영 외, 1996; 최영신, 2000)이 대부분이었다. 이로 인해 그 간의 실증적인 연구는 자발적 학업중도탈락자에 대한 개별적 접근을 하지 못한 한계를 갖고 있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자발적 학업중도탈락자들 혹은 자발적 학업중도탈락 경험을 가진 사람들만으로 제한·표집하였다. 표집은 설문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고려하여 성별, 중퇴 당시의 학교 급별 등으로 구분하는 임의선정-유층군집 표집(proportional stratified cluster random sampling)을 사용하려 하였으나 표집대상에 접근하기 어려워 현재 자발적 학업중도탈락자들이 활동하고 있는 관계기관 및 시설에서 활동하고 있는 청소년들로 제한하여 표집하였다. 그러나 설문자체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한된 대상에 대한 표집은 임의선정 유층군집을 원칙으로 삼았다.

표집 시 지역은 고려하지 않았으며, 표집대상은 자발적 학업중도탈락 경험을 하고 있거나 과거에 중퇴경험을 한 사람을 대상으로 표집하였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대로 이들에 대한 접근이 어려워 현재 중퇴 후 대안교육현장에서 활동하거나 참여하고 있는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표집하였

다. 이 연구에 협력과 참여를 한 기관과 청소년들은 서울시립 청소년직업 체험센터 하자, 강북청소년수련관 난나, 민들레사랑방, 영산성지학교 등이었으며 부분적으로 광주 탈학교모임에서도 협력을 해주었다¹²⁾. 설문조사 시에는 연구자가 직접 방문하여 실시하거나 혹은 관계기관의 지도교사에게 미리 설문조사 안내지를 배부하여 설문조사 시 유의해야 할 점에 대해 알려준 후 응답하도록 하였다(참고: 부록 2).

조사기간은 2001년 9월 25일부터 12월 2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총 120부를 배부, 이중 82부를 회수(회수율 68.3%)하였으나 통계처리가 곤란한 7부를 제외한 75부가 통계처리되었다(참고: 표 III-1). 회수된 조사자료를 근거로 코딩 및 프로그래밍은 동년 12월 3일부터 10일까지 8일간 하였다.

<표 III-1> 조사대상 기관 및 회수율

<단위 : 부(%)>

구분	하자	난나	민들레사랑방	영산성지	합계
배부	30	15	30	45	120
회수(회수율)	27(90)	6(40)	16(53.3)	33(73.3)	82(68.3)
처리대상	22	6	16	31	75

2. 조사도구

설문지는 기존의 개발된 중퇴발생관련 연구(참고: 송광성 외, 1992; 김준호, 1993; 송복 외, 1996; 최영신, 2000)에서 사용된 설문지들을 참고하여 표집대상 및 연구주제에 맞춰 문항들을 연구자가 임의로 다시 개발·구성하였다.

설문문항은 크게 통계처리를 위한 기본사항과 기존의 연구에서 학업중도탈락 현상에 직·간접적으로 작용한다고 여겨지는 발생요인으로 구조

화되었다. 이때 중퇴 발생변인은 개인 - 또래집단 - 가족 - 학교 - 사회의 다섯 가지 변인으로 구성되었고 또 다시 각 요인별로 여러 하위요인으로 재구성되어 조사분석을 통하여 복합척도(summation scale)가 되도록 하였다(참고: 표 III-2; 부록 1).

<표 III-2> 변인의 구성

변인		하위변인
변인	개인의 기본사항	성별 / 연령 / 중퇴 당시의 학교와 학년사항 / 현재 소속하고 있거나 활동하는 곳의 유무와 유형 / 검정고시 학원 등록 경험유무 및 검정고시학원에 대한 생각 / 생활정도 / 부모의 학력 / 형제자매 · 가까운 친척 중 자발적 학업중퇴경험자의 유무/ 부모의 생존 및 부모와의 동거여부 / 부모의 직업 및 본인의 장래 희망 직업 등
	개인 특성	자아존중감과 자기만족감 / 장래에 대한 고민여부 및 실천계획 준비정도 / 성공적인 삶과 성실성 / 성격에 대한 주관적, 객관적 평가 / 책무성 및 주체적 의지력 등
	또래 집단	친구의 유무 / 비행, 일탈, 범죄행위를 한 친구의 유무 / 응답자 자신의 친구에 대한 주관적 감정 및 친구들의 평가 / 친구와의 친밀정도와 필요성 / 친구와의 비행경험
	가정	▲ 구조적 요인: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및 부모의 유무, 동거여부(기본사항에 포함) ▲ 기능적 요인: 가정분위기, 가족간의 기능과 관심정도, 가정과 부모에 대한 응답자의 주관적 평가, 부모와 형제의 응답자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
	학교	▲ 학교교육에 대한 생각 : 학교교육 및 교과내용에 대한 평가 / 자신의 관심사와 교과내용의 비교 ▲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도 및 평가 : 교사와의 관계 / 복교에 대한 생각 / 자신의 생활태도 및 학습태도 / 중퇴 이전의 성적 ▲ 학교구성원들의 응답자 중퇴에 대한 이해 정도
	사회 환경	사회에 대한 응답자들의 생각 / 자기 미래에 대한 전망 / 지속적인 학습의지의 유무 / 중퇴 이후에 자신에게 필요한 사회적 지원체제 / 유해환경에 대한 유인도 정도 / 흡연과 음주의 유무 / 가출 및 자살 등에 대한 충동의 유무

먼저, 통계처리를 위한 기본사항으로는 성별, 연령, 중퇴 당시의 학교와 학년사항, 현재 소속하고 있거나 활동하는 곳, 검정고시 학원에 다녔는지에 대한 유무와 계획, 생활정도, 부모의 학력, 형제자매 중 자발적으로 학업을 그만 둔 경우의 유무, 양친의 생존 및 동거여부, 부모의 직업 및 장래 희망 직업 등 전체 15개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개인특성 변인은 학업중도탈락에 대한 기존 연구에서 사용된 성격특성을 중심으로 자아존중감과 자기만족감, 장래에 대한 고민과 계획의 준비정도, 성공적인 삶에 대한 생각, 자신의 성격에 대한 주관적, 객관적 평가, 책무성 등의 하위변인으로 구성하였다. 이 개인특성에 관한 변인조사는 비행 및 정학·퇴학소년을 중심으로 연구한 기존 선행연구결과와의 비교를 통해 자발적 학업중도탈락현상이 갖는 공통점과 차이점을 추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통적 학업중도탈락 연구에서 중퇴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또래 집단 변인은 주관적, 객관적인 친구와의 관계정도를 알기 위하여 응답자 자신이 친구에 대해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또 친구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주관적 감정과 평가들을 중심으로 설문항목을 구성하였다. 이 외에도 친구와의 친밀정도와 필요성, 친구의 유무, 비행, 일탈, 범죄를 행한 친구의 유무가 하위변인으로 구조화되었다. 특히 기존 선행연구와 친밀정도, 친구에 대한 평가는 중요한 비교자료가 될 것이다.

가정변인은 크게 두 측면을 고려하였다. 하나는 구조적인 요인으로 주로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및 부모의 유무, 동거여부와 관련된 항목으로 이는 개인적 기본사항에 포함을 시켰다. 또 다른 하나는 기능적인 요인으로 가정의 분위기, 가족간의 기능과 관심정도, 가정과 부모에 대한 응답자의 주관적 평가, 부모와 형제에 대한 응답자의 주관적인 평가들로 구성되었다.

자발적 학업중도탈락이 학교교육의 위기현상과 밀접하기 때문에 변인들 중에서 가장 많은 항목으로 구성된 학교변인은 크게 학교교육에 대한

응답자의 생각,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도 등의 학교생활에 대한 평가, 중퇴에 대한 학교구성원들의 이해정도로 구분하였다. 여기에는 학교를 그만둘 당시의 학업성적도 고려되었다.

사회환경변인은 자발적 학업중도탈락자들이 갖는 특성에 비추어 비행이나 범죄경험 및 빈도에 대한 질문은 가급적 피하고 사회에 대한 응답자들의 생각과 자기 미래에 대한 생각, 지속적인 학습의지의 유무, 중퇴 이후에 자신에게 필요한 사회적 지원체제 등을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그러나 유해환경에 대한 유인도 정도, 흡연과 음주의 유무, 가출 및 자살 등에 대한 충동의 유무도 삽입하여 기존 선행연구와의 비교항목을 두었다.

3. 자료처리 및 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통계분석 처리하였으며 전 문항에 대해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각 문항응답과 분석에서는 각 문항마다 응답한 조사대상자들을 100%를 기준으로 하여 분석하였다. 또 유의미한 변인별 중심으로 조사결과들을 해석하기 위해 교차분석(χ^2)을 실시하고 변인에 따른 교차분석표는 항목에 따라 제시하였다.

IV. 연구결과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다음의 표 <IV-1>은 조사대상자의 성별, 연령별, 중퇴 당시의 학교 및 학년에 대한 분포를 정리한 것이다.

조사대상자 75명 중 남자청소년은 39명으로 전체 대상자의 52.0%를 차지하며, 여자 청소년은 36명으로 48.0%를 차지하였다. 연령별 분포를 살펴보면, 13세에서 27세에 이르기까지 분포되었으며 이중 17세가 25명으로 전체 대상자 중 33.3%를 차지하여 가장 많았고, 다음이 18세가 21.3%(16명)였다. 16세와 19세 모두 12명으로 16.0%를 차지하였다.

조사대상자 중에는 중학교 학령기보다는 고등학교 학령기의 청소년이 더 많이 포함되었는데 이는 일단, 영산성지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라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자발적 학업중퇴자들에 대한 포괄적 후속연구를 진행함으로써 이들이 고등학교에서 중퇴율이 높은지, 높다면 왜 그러한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학업중도 탈락 실태에 있어 중학교보다는 고등학교 중퇴율이 높고, 특히 실업계 고등학교의 중퇴율이 훨씬 높기 때문이다. 이점은 II장에서 확인된 바이다. 아울러 대학진학 및 구체적인 진로고민을 앞에 둔 상황에서 입시위주의 학교교육에 대한 자발적 학업거부 및 중지의 의사를 보이는 청소년이 아무래도 중학교보다는 고등학교의 연령기에서 더 자주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중퇴당시 다니던 학교 및 학년은 중학교 1학년부터 특수학교 3학년에 이르기까지 분포되었다. 그 중에서도 인문계 고 1학년이 26.7%(20명)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인문계 고 2학년 21.3%(16명), 실업계 고 1학년

13.3%(10명)의 순 이었다.

<표 IV-1> 조사대상자의 성별·연령·중퇴당시 학교 및 학년 분포

구분		명(%)
성별	남성	39(52.0)
	여성	36(48.0)
연령	13세	3(4.0)
	14세	3(4.0)
	15세	1(1.3)
	16세	12(16.0)
	17세	25(33.3)
	18세	16(21.3)
	19세	12(16.0)
	20세	1(1.3)
	21세	1(1.3)
	27세	1(1.3)
중퇴 당시 학교 및 학년	중학교 1학년	5(6.7)
	중학교 2학년	2(2.7)
	중학교 3학년	9(12.0)
	인문계 고 1학년	20(26.7)
	인문계 고 2학년	16(21.3)
	인문계 고 3학년	6(8.0)
	실업계 고 1학년	10(13.3)
	실업계 고 2학년	3(4.0)
	특수학교 1학년	1(1.3)
	특수학교 2학년	2(2.7)
	특수학교 3학년	1(1.3)
총계	75	75(100)

표집규모가 작아서 전체적인 경향을 해석하기에는 무리이지만, 대체로 기존 선행연구들(김준호, 1993: 29~30; 최인용 외, 1996: 8)과 자료(문교부 문교통계연감; 교육부 교육통계연감)들이 인문계 고등학교의 중퇴율보다 실업계 고등학교의 중퇴율이 높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고, 실업계 고등학교 중퇴비율이 인문계에 비해 저조한 성적, 학업에 대한 흥미부족과

관련이 있다는 연구결과(송복 외, 1996: 21)를 참조하면, 자발적 학업중도 탈락자들의 경우는 이런 경향과는 다른 실태를 보이고 있다. 오히려 인문계 고등학교 중퇴자들이 전체 중퇴자들 중 56%(42명)를 차지하여 가장 많은 중퇴율을 보이고 있었다. 중학교는 3학년이 9명이었고 1학년 5명, 2학년 2명으로 전체 21.3%(16명)였다.

다음의 <표 IV-2>는 조사대상자가 현재 소속하고 있거나 관심을 두고 주로 활동하고 있는 곳과 검정고시 학원 등록경험 및 계획에 대한 응답분포이다. 먼저 조사대상자들 중 58.7%(44명)가 현재 대안학교에 소속되어 있었다. 영산성지고등학교 학생 33명이 표집되었으니 그 외 11명의 조사대상자가 대안학교에 다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는 취미나 동아리 모임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청소년들이 18.7%(14명)이었고, 소속이 따로 없이 활동하는 청소년들도 13.3%(10명)였다.

<표 IV-2> 조사대상자의 현재 소속·활동장면과 검정고시학원 등록경험의 유무 여부

구분		명(%)
소속관심	소속이 따로 없다	10(13.3)
	취미나 동아리 모임	14(18.7)
	대안학교	44(58.7)
	대학	5(6.7)
	기타	2(2.7)
검정고시 학원등록 경험·계획	전에 검정고시 학원을 다닌 적이 있지만 지금은 아니다	12(16.0)
	현재 검정고시 학원에 다니고 있다	3(4.0)
	검정고시 학원에 다니지 않았지만, 다니고 싶거나 다닐 생각이다	11(14.7)
	검정고시 학원에 다닐 생각이 전혀 없다	49(65.3)
합계		75(100)

검정고시 학원등록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65.3%(49명)의 청소년들이 검정고시 학원에 다닐 생각이 전혀 없다고 응답하였다. 반면에 현재 검정고시 학원에 다니고 있는 청소년과 앞으로 등록하고 싶다는 청소년들

은 각각 4.0%(3명)와 14.7%(11명)에 불과하였다. 현재 우리 실정에 있어 대학진학을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중등학력검정에 대한 이들의 생각은 '부정적'이거나 아직은 '유예'인 상황으로 보여진다.

다음의 표 <IV-3>은 조사대상 청소년의 부모의 학력과 직업, 가정의 생활수준을 정리한 것이다. 조사대상자의 아버지의 학력을 살펴보면, 대학 졸업이 42.7%(32명)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다음으로는 고등학교 졸업이 22.7%(17명)였다. 어머니의 경우는 고등학교 졸업이 36.0%(27명)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대학 졸업이 33%(25명)였다. 대학중퇴 이상의 학력을 갖고 있는 부모들은 아버지가 56%(42명), 어머니 42.6%(32명)로 전반적으로 고학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행청소년을 중심으로 조사한 선행연구(김준호, 1993: 80~82; 최영신, 2000: 89~90)들과 비교해 보면, 자발적 학업중퇴 부모들의 학력이 비행청소년의 부모 학력보다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김준호의 연구에 따르면 중퇴자의 아버지 학력은 고등학교 중퇴·졸업이 28.6%로 가장 많았고 초등학교 졸업이하(18.7%), 중학교 중퇴·졸업(18.2%), 대학 중퇴 이상(16.2%)이 비슷하게 분포되었다. 어머니들 역시 고등학교 중퇴·졸업이 가장 많았고(39.3%), 중학교 중퇴·졸업(28.2%), 초등학교 졸업이하(23.8%)의 순이었고 대학 중퇴 이상은 8.7%였다. 최영신의 연구에서도 아버지의 학력은 고교 중퇴와 졸업인 경우가 49.2%였고 중학교 중퇴·졸업이 24.1%를 차지한 반면 대학 중퇴·졸업이상은 12.8%에 불과했다. 어머니 역시 고교 중퇴·졸업이 46.5%, 중학교 중퇴·졸업이 31.4%를 차지하였고 대학 중퇴·졸업이상은 6.6%에 차지했다. 이런 경향은 송복 외(1996: 56)의 연구에서도 거의 동일하였다. 즉 전통적 학업중도탈락자의 부모학력이 고등학교 중퇴·졸업 이하에 많이 분포되고 있는 것에 반해 자발적 학업중도탈락자의 부모학력은 대학 중퇴 이상의 학력을 소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조사대상 청소년의 아버지 직업은 전문기술직 및 관련직과 사무직,

판매직, 서비스직 등에 고루 분포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어머니는 무직(주부 포함)이 22.7%로 가장 많았고 역시 서비스직, 전문기술직 및 관련직, 사무직, 판매직 등에 분포되었다.

<표 IV-3> 부모의 학력·직업·생활정도·형제와 친척 중 자발적
학업중퇴자 유무

구분		명(%)	
		아버지	어머니
부모의 학력	무 학	3(4.0)	3(4.0)
	초등학교 중퇴	1(1.3)	1(1.3)
	초등학교 졸업	4(5.3)	3(4.0)
	중학교 중퇴	-	2(2.7)
	중학교 졸업	2(2.7)	7(9.3)
	고등학교 중퇴	6(8.0)	-
	고등학교 졸업	17(22.7)	27(36.0)
	대학(전문대포함)중퇴	3(4.0)	3(4.0)
	대학(전문대포함)졸업	32(42.7)	25(33.3)
	대학원 졸업	7(9.3)	4(5.3)
총계		75(100)	75(100)
부모의 직업	무 직	4(5.3)	17(22.7)
	전문기술직 및 관련직	11(14.7)	9(12.0)
	행정 및 관리직	9(12.0)	4(5.3)
	사 무 직	10(13.3)	7(9.3)
	판 매 직	8(10.7)	7(9.3)
	서비스 직	10(13.3)	10(13.3)
	생산직종사자	6(8.0)	5(6.7)
	농림 수산업, 임업, 광업	2(2.7)	4(5.3)
	기 타	15(20.0)	12(16.0)
총계		75(100)	75(100)
생활수준	상 층	1(1.3)	
	중상층	35(46.7)	
	중하층	26(34.7)	
	하 층	12(16.0)	
	극빈층	1(1.3)	
형제·친척 중 '자발적' 학업중퇴자의 유무	있다	21(28.0)	
	없다	54(72.0)	
총계		75(100)	

이 역시 선행연구들과 비교하면, 먼저 아버지의 경우 판매직과 무직·단순노동직이 많다고 보고된 김준호의 연구(1993: 78)와 재학생에 비해 행정 및 관리직과 전문기술직에의 종사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온 송복 외(1996: 56)의 연구와 차이가 있다. 그러나 어머니의 경우는 직업의 종류를 세밀하게 구분하지 않고 있어, 선행연구들과 큰 차이가 있는지는 확인할 수 없었다. 대신 어머니가 직업을 갖고 있는 비율이 높을수록 자녀의 중퇴율과 상관있다는 김준호(1993: 79~80)의 연구관점은 자발적 학업중도탈락자들을 대상으로 향후 더 논의될 여지가 있다. 즉, 김준호는 자녀 양육에 있어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어머니의 역할이 가정의 경제적 빈곤으로 인해 직업을 소유할 수밖에 없어 그 역할이 위축되고, 이로 인해 자녀의 중퇴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그러나 자발적 학업중도탈락자들에게까지 이러한 논리가 적용되는지에 대해서는 확실하지 않다. 일단 자발적 학업중도탈락자들은 자신의 가정 생활수준이 어렵다고 보지 않았고, 이러한 인식이 기존연구에서 밝혀진 재학생의 그것과 대비해 집단 간 큰 차이를 보이지 않으며, 또 어머니를 포함해 부모와의 친밀감 등 가정의 기능적 특성 역시 재학생들의 그것과 비교해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참고: 표 IV-11). 아울러 어머니의 자녀양육의 특성과 조건이 자발적 학업중도탈락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재학생과 전통적 학업중도탈락자들과는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는 보다 엄밀한 후속연구와 비교를 통해 밝혀져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조사대상 청소년들이 자신의 가정생활수준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살펴본 결과, 46.7%가 중상층, 34.7%가 중하층으로 인식, 81.4%의 청소년들이 자신의 가정 생활수준이 중류층이라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상층과 극빈층이라고 생각하는 청소년은 1명에 불과했다. 하층 이하라고 생각하는 청소년은 17.3%였다.

가정의 생활수준에 대한 응답을 중심으로 선행연구들과 비교하면, 기

존 연구들은 중퇴청소년과 일반 청소년간의 집단간 큰 차이가 없거나(송광성 외, 1992: 44), ‘다소’ 차이를 가지며(송복 외, 1996: 57: 중퇴청소년이 다소 어렵다), 혹은 “소득이 높을수록 재학생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고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중퇴 청소년의 비율이 높다”면서 “가족의 소득수준은 자녀의 중퇴에 상당한 영향력을 갖고 있다”고 논의하였다(김준호, 1993: 82). 다시 말하자면, 선행연구들은 전통적 학업중도탈락자들이 재학생에 비해 가정 생활수준이 낮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인식면에서 집단간의 차이가 존재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이런 인식의 차이는 집단간(재학생 대비 자발적 학업중도탈락자)에 차이를 갖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오히려 전통적 학업중도탈락자들과 자발적 학업중도탈락자간의 집단간 인식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형제자매나 가까운 친척 중에 ‘자발적’으로 학업을 그만 둔 사람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28%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와 관련, 김준호(1993: 83)는 부모를 포함하여 가족 중 포괄적 의미에서의 중퇴경험자 유무를 물어본 결과, 중퇴경험자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재학생(7.8%) 대비 중퇴생의 비율(92.2%)이 월등히 높다는 사실에서 부모나 형제자매의 중퇴가 다른 가족의 중퇴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그러나 김준호의 연구에서는 첫째, 과거 부모연령대의 중퇴비율이 높다는 우리사회의 역사적 사실을 감안하지 않고 부모의 중퇴유무를 포함했다는 점과, 둘째, 표집대상자를 비행청소년으로 제한하여 비행 중심의 일탈적 경향이 다른 가족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로만 해석되었다는 점에서 본 연구와의 유의미한 비교점을 찾을 수가 없었다. 즉, 자발적 학업중퇴의 경험을 갖고 있는 형제자매, 혹은 친척이 있을수록 가족 내 다른 사람의 자발적 학업중퇴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선행연구와 비교할 수 없다.

다음의 <표 IV-4>는 조사대상자의 부모생존 및 동거여부, 별거시 그 이유에 대한 사항을 정리한 것이다. 조사대상자 중 89.3%가 친부모가 생존하고 있었고 결손가정의 경우는 10.7%(8명)였다. 지금 누구와 함께 사

느냐는 질문에는 68.0%가 친부모와 함께 산다고 응답하였고, 다른 친척과 동거하거나 다른 사람과 동거, 혹은 혼자 생활한다고 응답한 경우는 12.0%였다. 또 친부모 모두와 함께 살지 않는 이유는 이혼(10.7%)과 별거(6.7%)가 17.4%를 차지하였다. 기타에는 “집보다 할머니 댁이 편해서”라고 응답한 사람이 한 명이었고, “내가 살고 싶은 곳이 서울이라서”, “서울에서 더 많이 느끼기 위해”, “지방에서 자퇴하고 서울로 왔기 때문에” 등으로 응답한 사람이 다섯 명이었다.

<표 IV-4> 조사대상자의 부모생존 및 동거여부, 별거 시 이유

구분		명(%)
부모의 생존	친부, 친모	67(89.3)
	친부, 계모	4(5.3)
	친모, 계부	2(2.7)
	친부 생존	2(2.7)
	친모 생존	-
	무 부모	-
총계		75(100)
부모와의 동거여부	친부모와 동거	51(68.0)
	친부, 계모와 동거	4(5.3)
	친모, 계부와 동거	2(2.7)
	친부와 동거	1(1.3)
	친모와 동거	8(10.7)
	다른 친척과 동거	3(4.0)
	다른 사람과 동거	2(2.7)
	혼자 생활	4(5.3)
총계		75(100)
부모와 별거 하는 이유	부모의 별세	2(2.7)
	부모의 이혼	8(10.7)
	부모의 별거	5(6.7)
	부모의 직장문제	1(1.3)
	학교 문제	3(4.0)
	기 타	6(8.0)
총계		25*(100)

* 부모와 동거한다고 응답한 청소년 50명을 제외한 숫자임

결혼가정일수록 자녀의 중퇴에 밀접한 영향을 미친다는 김준호(1993: 77)와 양친과 함께 사는 비율이 재학생에 비해 '지극히' 낮다라고 조사한 송복 외(1996: 53~54)의 연구와 비교하면, 전통적 학업중퇴자와는 다른 가정적 구조양상을 보이고 있다. 또 두 연구에서 보여지는 재학생들과 자발적 학업중도탈락자들과 비교하면, 집단간의 큰 차이가 없다. 즉 양친부 모 생존률이 재학생 49.8%(김준호 연구), 부모와의 동거여부는 82.7%(송복 외의 연구)였다.

<표 IV-5> 조사대상자의 장래에 희망하는 직업

구분		명(%)
장 래 희 망 하 는 직 업	무직	1(1.3)
	전문기술직 및 관련직	10(13.3)
	행정 및 관리직	4(5.3)
	사무직	2(2.7)
	판매직	3(4.0)
	서비스직	5(6.7)
	생산직종사자	-
	농림 수산업, 임업, 광업	1(1.3)
	기	49(65.3)
	타	
총계		75(100)

▲ 구체적으로 희망하는 직업: 예술가(2명)/싱어송라이터/뮤지션/동물조련사/문학작가/패션디자이너(4명)/음악관련직/공인중개사/만화가(4명)/빵집아저씨/웹관련 전문직/게임 개발자/방송작가/애니메이션감독/예술분야(그림)/작가/가수·작곡/CCM가수/연주자/사역자/영화영상 관련업/연예인/직업군인/안무가/작사·작곡·편곡자/양식요리사/록가수/이벤트 회사취직/가게경영/육군장교/자동차정비사/호프집주인/경호직업/대한학교 교사/단학사범/유치원교사/사회복지사

▲ 구체적이지 않은 희망직업: 낮 시간엔 일하고 밤에는 스케이트 보드타고/돈은 먹고 살만큼 자유롭게/자유로운 직업/재미있는 직업/어떤 일을 하든지 갑부가 되고 싶다

▲ 고민중: 아직 구체적이지 않음/아직 잘 모름(2명)/고민중(2명)/솔직히 말하면 내 꿈은 사라지고 있다

자발적 학업중퇴자 자신이 장래 희망하는 직업은 <표 IV-5>에 정리되었다. 특징적인 것은 장래 희망하는 직업이 상당히 구체적이란 점이다. 학업중퇴자들을 대상으로 희망직종을 물어본 송복 외의 연구(1996: 69)에서 전문직 및 관련직이 34.7%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서비스직(18.8%), 사무직(12.8%), 판매직(10.9%)의 순으로 나타난 결과와 비교하면, 자발적 학업중도탈락들의 경우는 보다 분명한, 대상자 본인 나름의 희망직업을 갖고 있다. 아울러, 이렇게 분명한 장래 직업관은 자발적으로 학업을 거부 혹은 중지하는 모티브가 될 수도 있음을 추론해 볼 수 있다. 또 구체적인 장래 직업관이 없더라도 “낮엔 일하고 밤에는 스케이트보드타고”, “돈은 먹고 살만큼 자유롭게”와 같이 자유롭게 재미있는 직업에 대해 선호하고 있었다. 또 “아직 구체적이지 않다”고 응답한 청소년들과 “솔직히 말하면 내 꿈은 사라지고 있다”라고 응답한 청소년도 있었다.

2. 변인별 결과

1) 개인적 요인

일반적으로 중퇴자 본인에 비해 비중퇴자들의 중퇴자에 대한 인식은 일관되게 현저히 부정적이다(송복 외, 1996: 146~151). 즉 비중퇴자들은 중퇴자들의 성격이 원만치 못하고, 폭력적이며, 성적도 나쁘고, 학습태도가 좋지 못하며, 불화가 잦은 가정출신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교사들의 중퇴자에 대한 인식은 더욱 부정적인데, 이들은 중퇴자들이 “약간 문제있거나 매우 문제를 갖고 있는 아이”(응답자의 63.0%)로 보고 있다. 또 중퇴자들은 자신의 성격에 대해 비중퇴자들에 비해 불만족스러워 하고 있고, 또래관계나 교사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만족스럽지 못하다(최영신, 2000: 114~1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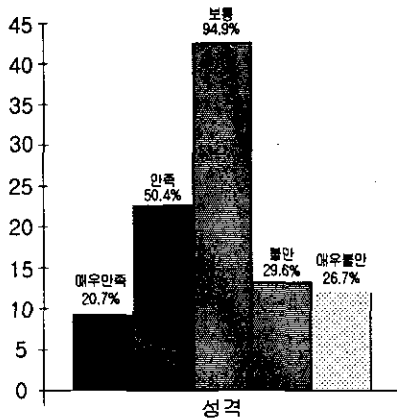
이렇게 선행연구들을 검토하면 이들은 비중독자들에 비해 자기만족감도 낮고 자아존중감이 적으며, 타인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갖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렇다면 과연 자발적 학업중도탈락자들의 경우도 동일한가? 다음 <표 IV-6>은 개인적 요인에 대한 조사대상자의 응답분포이다. 여기에는 자신의 성격에 대한 주관적 인지와 객관적 평가, 자기만족감, 자신의 장래에 대한 고민과 계획 등 전체적으로 자아존중감과 관련된 문항을 중심으로 구성되어졌다.

구체적으로, 자신의 성격이나 특성에 대해 잘 알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주관적 인지) “매우 그렇다”와 “그렇다”라고 응답한 청소년이 65.4%였고, 반면에 “그렇지 않다”와 “매우 그렇지 않다”라는 응답은 8.0%에 불과하였다. 남자(61.5%)보다 여자 청소년(69.0%)이 더 자신의 성격이나 특성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지만 집단간의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이렇게 자신의 성격이나 특성에 대한 주관적 인식은 “난 주어진 일을 스스로 해결하려고 한다”라는 질문에도 거의 유사한 응답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즉, “스스로 내일을 해결한다”라고 응답한 청소년이 61.4% (남51.0%, 여 72.0%)였고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한 청소년은 5.3%였다. 그리고 성별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지만 여자 청소년이 남자 청소년보다 대체로 긍정적인 응답을 많이 나타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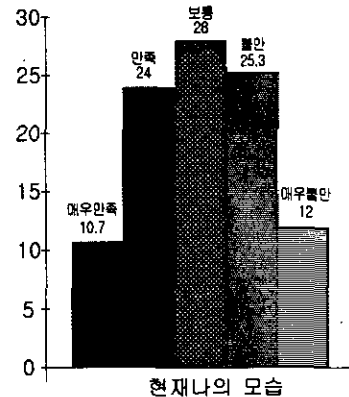
하지만 자신의 성격에 대한 만족감과, 현재의 모습에 대한 만족감은 “그렇다”와 “그렇지 않다”가 비슷하게 분포되었다. 즉, 자신의 성격에 대해서는 “불만스럽다”가 25.3%, “만족스럽다”가 32.0%를 차지하였고, 현재 모습에 대해서는 34.7%가 불만스러워 했고, 37.3%가 만족스러워 하는 경향을 보였다. 역시 성별에 따른 의미있는 차이는 없었다(참고: 그림 IV-1; IV-2).

자발적 학업중도탈락자들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어떤 평을 듣는지, 그에 대한 인식을 ‘공격적인 특성-비판적인 특성’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그 결과, 응답자의 45.4%가 남들로부터 공격적이라고 평가를 받는다고 응답

한 반면에, 34.6%는 비판적이라는 평을 받지 않는다고 하였다. “공격적이지 않다”란 응답률은 24.0%였으며, “비판적이다”라는 응답률은 25.4%였다. 이를 통해 자발적 학업중도탈락자들은 일반인들이 자신들을 비판적이라기 보다는 공격적인 사람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실 일반인들이 중퇴자가 공격적인 성향이 강하고 폭력적이라고 보는 것은 기존 선행연구물들의 결과들과 일치한다(송복 외, 1996; Bhaerman, & Kopp, 1988).



<그림 IV-1> 성격에 대한 만족



<그림 IV-2> 현재 모습에 대한 만족

그러나 공격성이 자신의 비현실적 기대에 맞춰 다른 사람의 행동을 강요하려는 성향이라 한다면, 그래서 타인과의 관계에 있어 자기중심적인 성향을 말한다면(Hjelle & Ziegler, 1981: 402), 자발적 학업중도탈락자들의 경우는 또래집단과의 관계와 친밀도에 있어서 전통적인 중도탈락자들과 달리 좋은 편이고(참고: 표 IV-8), 교사와의 관계도 나쁘지 않아(참고: 표 IV-12), 반드시 “자발적 중퇴자는 공격적”이라고 볼 수는 없다. 오히려 일반인들이 자발적 학업중도탈락자와 전통적 학업중도탈락자들을 구분하지 않고 단순히 중퇴자는 비행이나 범죄 등의 일탈적 행위의 결과로 중퇴를 바라보고 공격적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표 IV-6> 개인적 요인에 대한 조사대상자의 응답분포

<단위: 명(%)> / N=75

구분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이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난 내자신의 성격이나 특 성을 잘 안다	남	11(28.2)	13(33.3)	11(28.2)	1(2.6)	3(7.7)
	여	9(25.0)	16(44.4)	9(25.0)	2(5.6)	-
$\chi^2=3.929$		20(26.7)	29(38.7)	20(26.7)	3(4.0)	3(4.0)
내 자신의 성격에 대해 항상 불만스럽게 여긴다	남	4(10.3)	5(12.8)	21(53.8)	6(15.4)	3(7.7)
	여	5(13.9)	5(13.9)	11(30.6)	11(30.6)	4(11.1)
$\chi^2=4.737$		9(12.0)	10(13.3)	32(42.7)	17(22.7)	7(9.3)
지금의 나의 모습에 만족 한다	남	5(12.8)	7(17.9)	13(33.3)	9(23.1)	5(12.8)
	여	3(8.3)	11(30.6)	8(22.2)	10(27.8)	4(11.1)
$\chi^2=2.627$		8(10.7)	18(24.0)	21(28.0)	19(25.3)	9(12.0)
내 자신의 장래와 진로에 대해 고민하는 편이다	남	15(38.5)	13(33.3)	8(20.5)	2(5.1)	1(2.6)
	여	13(36.1)	18(50.0)	2(5.6)	1(2.8)	2(5.6)
$\chi^2=5.104$		28(37.3)	31(41.3)	10(13.3)	3(4.0)	3(4.0)
나의 미래를 위해 착실히 준비하고 있는 중이다	남	5(12.8)	7(17.9)	14(35.9)	8(20.5)	5(12.8)
	여	1(2.8)	11(30.6)	15(41.7)	8(22.2)	1(2.8)
$\chi^2=6.146$		6(8.0)	18(24.0)	29(38.7)	16(21.3)	6(8.0)
내가 열심히 하면 성공적 인 삶을 살수 있다	남	18(46.2)	11(28.2)	8(20.5)	1(2.6)	1(2.6)
	여	17(47.2)	8(22.2)	9(25.0)	-	2(5.6)
$\chi^2=1.777$		35(46.7)	19(25.3)	17(22.7)	1(1.3)	3(4.0)
난 주어진 일을 스스로 해결하려고 한다	남	7(17.9)	13(33.3)	16(41.0)	2(5.1)	1(2.6)
	여	10(27.8)	16(44.4)	9(25.0)	1(2.8)	-
$\chi^2=4.019$		17(22.7)	29(38.7)	25(33.3)	3(4.0)	1(1.3)
난 다른 사람에게 공격적 이란 평을 듣는다	남	3(7.7)	3(7.7)	15(38.5)	11(28.2)	7(17.9)
	여	3(8.3)	9(25.0)	8(22.2)	15(41.7)	1(2.8)
$\chi^2=10.142^*$		6(8.0)	12(16.0)	23(30.7)	26(34.7)	8(10.7)
난 다른 사람에게 비판적 이란 평을 듣는다	남	3(7.7)	6(15.4)	15(38.5)	9(23.1)	6(15.4)
	여	2(5.6)	8(22.2)	15(41.7)	10(27.8)	1(2.8)
$\chi^2=3.996$		5(6.7)	14(18.7)	30(40.0)	19(25.3)	7(9.3)
난 옳다고 생각하는 일에 쉽게 물러나지 않는다	남	13(33.3)	7(17.9)	17(43.6)	2(5.1)	-
	여	6(16.7)	17(47.2)	9(25.0)	2(5.6)	2(5.6)
$\chi^2=11.105^*$		19(25.3)	24(32.0)	26(34.7)	4(5.3)	2(2.7)

* : $p < .05$, ** : $p < .01$, *** : $p < .001$

한편, 자기중심적인 성향과는 달리, 자발적 학업중도탈락자들은 명분에 따른 자신의 의지는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신이 옳다고 하는 일에 쉽게 물러서지 않는다”는 질문에 57.3%가 “그렇다”고 응답한 반면, 8.0%만 “그렇지 않다”고 응답했다.

특히 자발적 학업중퇴자들 중 여자 청소년들이 남자 청소년들에 비해 더 공격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었고,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일에 쉽게 물러서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유의수준 .05에서 의미).

학업중도탈락자들은 자신의 장래와 관련하여 진로와 취업에 대한 고민이 크다. 이런 고민은 재학생들의 경우도 적지 않은데, 이를테면, 최영신의 연구(2000: 116~117)와 이장호의 연구(1997: 438~439)에서도 재학생 집단과 비학생집단 모두 학습문제와 취업 등이 가장 큰 고민으로 나타났다. 또 중퇴자들은 미래에 대한 전망이 비중퇴자들에 비해 다소 밝지 않고 불투명한 편이다(송광성 외, 1992: 57). 이들은 우리 사회에서 미래에 대한 준비로써 반드시 거쳐야 할 통과 의례처럼 규정되는 학교현장으로부터 벗어났거나 혹은 탈락하였기에 이러한 고민과 비관적인 견해는 일반 청소년들에 비해 더 큰 것으로 보여왔다.

이와 관련해 자발적 학업중퇴자들에게 자신의 장래와 미래에 대해 고민하는지, 그리고 그 미래를 위해 준비하고 있는지에 대해 질문하였다. 아울러 성공적인 삶은 무엇이라 생각하며, 열심히 하면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도 질문하였다. 그 결과, 이들은 자신의 진로에 대해 고민하고 있었으며(78.6%), 미래를 위해 준비한다고 응답한 중퇴청소년은 32%였다. 성공적인 삶에 대해서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성실히 사는 것”이라고 응답하는 경우가 가장 높았고(64.0%), “많은 돈을 버는 것”, “평범하게 사는 것”의 순으로 나타났다(참고: 표 IV-7). 그리고 “내가 열심히만 하면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응답한 청소년은 72%였다.

특히 ‘성공적인 삶과 성실성’과 관련한 이 응답률은 최영신(2000: 120)

과 송복 외(1997: 68)의 연구에서 보여진 학업중퇴자들의 응답률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자발적 학업중퇴자의 응답률은 송복의 연구에서 나타난 일반인(62.5%)과 재학생(38.8%)의 응답률보다 월등히 높았다. 송복은 재학생, 교사, 일반인, 중퇴자 등 네 집단을 대상으로 우리 사회에서의 성공은 무엇인지를 물어보고 모든 집단에서 성실하게 사는 것이 가장 높게 응답되었다고 논의하였다. 그러나 교사와 일반인의 경우는 50% 이상이 성실한 삶을 꼽은 반면, 재학생과 중퇴자들은 40%를 밀들었고, 특히 중퇴자들은 31.7%만이 성실한 삶을 성공으로 꼽았으며, 다른 집단과 차이가 존재한다고 보았다. 이에 반해 자발적 학업중퇴자들은 성실하면 하면 성공적인 삶을 살수 있다라는 확신은 전통적 학업중퇴자들은 물론이고, 일반인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 <표 IV-7> 조사대상자가 응답한 성공적인 삶

성공적인 삶	명(%)
많은 돈을 버는 것	10(13.3)
사회적으로 출세하는 것	2(2.7)
평범하게 사는 것	6(8.0)
일류대학에 들어가는 것	1(1.3)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성실히 사는 것	48(64.0)
다른 사람에게 존경을 받는 삶을 사는 것	3(4.0)
기타: 재미있게 사는 것/잘 먹고 잘 사는 것/삶을 마감할 때 가벼운 미소를 지을 수 있는 삶/사회적 삶을 사는 것(자신에게 부끄럽지 않은 삶)/그냥 사는 것	5(6.7)
총계	75(100)

2) 또래집단 요인

<표 IV-8>은 또래집단 요인에 대한 조사대상자의 응답분포이다. 여기에는 ① 친구의 유무와 수 ② 친구와의 관계와 친밀도 ③ 친구들과의

비행경험과 비행친구의 유무 ④ 친구에 대한 태도를 중심으로 질문하였다. 특히 친구와의 관계와 친밀도, 비행친구의 유무는 Hirsch(1968: 135)의 연구에 근거하여 보다 구체적인 하위문항으로 다시 구성되었다. Hirsch에 따르면, 비행청소년들은 대부분 강한 연대감과 집단성을 갖고 있으며, 이들은 거의 대부분 비행친구를 갖고 있다고 논의한 바 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의 이탈적 경향을 중심으로 논의된 전통적 학업중도탈락자와의 비교를 위해 이 부문에 대한 하위문항을 두었다. 즉, 자발적 중퇴자의 친구와의 관계와 친밀도를 살펴보기 위해 다른 친구들과 잘 사귀는 편인지, 아니면 친구들이 나를 좋아하는 편인지, 또래집단 관계에 있어 친구가 자신의 비밀을 이야기할 정도의 친밀도를 갖고 있는지, 여가시간에 친구와 함께 하는 것을 더 좋아하는지, 또 친구들과 물려다니는 것을 좋아하는지, 학교를 다닐 때 친구 때문에 다닌 편이었던지로 다시 세분하여 질문하였다. 또 비행친구의 유무는 다시, 친한 친구 중에 자퇴경험·근신이상의 교칙위반 처분 경험·교정교화기관의 경험 등을 받은 친구들이 있는지를 물어보았다. 친구에 대한 태도는 학교친구(혹은 급우)들과 다른 친구들을 구별하는 편인지를 질문하였다.

먼저, 친구가 많은지에 대해, 자발적 학업중퇴자들은 28.0%가 “많다”고 하였고, 14.7%가 “많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이들은 친구들과의 관계에 있어 “나는 다른 친구들과 잘 사귀는 편”이라고 응답한 청소년이 46.6%였고 “그렇지 않다”고 한 응답율은 16.0%였다. 절반에 가까운 자발적 중퇴자들이 친구들과 잘 사귀는다고 응답한 셈이다. 반면에 “친구가 나를 좋아한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28.0%였고, “그렇지 않다”라는 응답률은 14.7%였다. 친구에 대한 중퇴자들의 정향성(orientation)이 친구들의 나에 대한 정향성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난 셈이다.

친구가 비밀을 털어놓을 만큼 친구들과의 관계친밀도가 높은지에 대해서는 40.0%가 “그렇다”고 응답하였고, 22.7%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또 “여가시간에 친구들과 있는게 좋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38.6%였

고, “혼자가 좋다”고 응답한 비율은 30.7%였다. 친구들과 몰려다니는 것을 “좋아한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38.7%, “좋아하지 않는다”는 29.3%였다. 학교다닐 때 친구 때문에 다닌 편이었는지에 대해서는 41.4%가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하였고 30.7%가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표 IV-8> 또래집단 요인에 대한 조사대상자의 응답분포

<단위: 명(%)> / N=75

구분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이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난 다른 친구들과 잘 사 귀는 편이다	남	8(20.5)	13(33.3)	12(30.8)	3(7.7)	3(7.7)
	여	2(5.6)	12(33.3)	16(44.4)	5(13.9)	1(2.8)
$\chi^2=5.600$		10(13.3)	25(33.3)	28(37.3)	8(10.7)	4(5.3)
친구들은 곧잘 내게 자신 의 비밀을 이야기한다	남	2(5.1)	12(30.8)	16(41.0)	4(10.3)	5(12.8)
	여	6(16.7)	10(27.8)	12(33.3)	7(19.4)	1(2.8)
$\chi^2=6.128$		8(10.7)	22(29.3)	28(37.3)	11(14.7)	6(8.0)
여가시간에 혼자 있기보 다는 친구와 있는게 좋다	남	11(28.2)	7(17.9)	13(33.3)	4(10.3)	4(10.3)
	여	2(5.6)	9(25.0)	10(27.8)	13(36.1)	2(5.6)
$\chi^2=12.203^{**}$		13(17.3)	16(21.3)	23(30.7)	17(22.7)	6(8.0)
친구들은 나를 좋아한다	남	2(5.1)	9(23.1)	23(59.0)	2(5.1)	3(7.7)
	여	3(8.3)	12(33.3)	20(55.6)	-	1(2.8)
$\chi^2=3.724$		5(6.7)	21(28.0)	43(57.3)	2(2.7)	4(5.3)
나는 친구가 많은 편이다	남	3(7.7)	10(25.6)	19(48.7)	2(5.1)	5(12.8)
	여	3(8.3)	5(13.9)	24(66.7)	3(8.3)	1(2.8)
$\chi^2=5.003$		6(8.0)	15(20.0)	43(57.3)	5(6.7)	6(8.0)
학교를 다닐 때 친구 때 문에 다닌 편이다	남	6(15.4)	6(15.4)	12(30.8)	6(15.4)	9(23.1)
	여	3(8.3)	8(22.2)	9(25.0)	11(30.6)	5(13.9)

구분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이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chi^2=4.214$		9(12.0)	14(18.7)	21(28.0)	17(22.7)	14(18.7)
난 친구들과 물려 다니는 것을 좋아한다	남	12(30.8)	7(17.9)	14(35.9)	4(10.3)	2(5.1)
	여	-	10(27.8)	10(27.8)	11(30.6)	5(13.9)
$\chi^2=17.657^{***}$		12(16.0)	17(22.7)	24(32.0)	15(20.0)	7(9.3)
친구들과 어울리기 위해 나쁜 행동도 하는 편이다	남	4(10.3)	6(15.4)	13(33.3)	8(20.5)	8(20.5)
	여	1(2.8)	4(11.1)	9(25.0)	7(19.4)	15(41.7)
$\chi^2=5.012$		5(6.7)	10(13.3)	22(29.3)	15(20.0)	23(30.7)
학교친구들과 다른 친구 들을 구별하는 편이다	남	3(7.7)	8(20.5)	11(28.2)	6(15.4)	11(28.2)
	여	5(13.9)	10(27.8)	11(30.6)	7(19.4)	3(8.3)
$\chi^2=5.259$		8(10.7)	18(24.0)	22(29.3)	13(17.3)	14(18.7)

* : $p < .05$, ** : $p < .01$, *** : $p < .001$

특히 여가시간에 친구들과 함께 있는게 좋은지(유의수준 .05에서 유의미)와 친구들과 물려다니는 것을 좋아하는지(유의수준 .001에서 유의미)에 대해서는 성별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즉, 응답결과에 따르면, 친구들과 함께 하는 활동에 대해 자발적 남자 중퇴생들이 여자 중퇴생들에 비해 훨씬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 이는 자발적 중퇴 이후 우리 사회가 이들에 대해 지원방안을 구안할 때 성별에 따른 활동의 차이를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시사점을 준다. 이를테면 남자 청소년들의 경우엔 또래간 집단활동 중심의 청소년활동으로, 여자 청소년들의 경우엔 초기 적응기간 및 프로그램 중심에서 점차 집단활동 프로그램으로 전이하는 전략을 구안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전통적 학업중도탈락자들의 또래집단간 특성에 대한 기존의 선행연구들의 결과는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다. 예컨대 비중퇴자들이 중퇴자들에 비해 대체로 친구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집단간의 유의미한 차이는 보이지 않고, 비중퇴자가 중퇴자에 비해 또래관계가 더 긴밀하다

고 한 연구결과(최영신, 116)가 있는 반면, 두 집단간에 큰 차이는 없으며 오히려 친구들이 자신을 좋아한다는 점을 재학생보다 중퇴자가 더 확신한다는 연구결과(송복 외, 1996: 78~79)도 있다. 김준호(1993: 106) 역시 전반적으로 재학생이 중퇴자에 비해 친구들과 약간 더 친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친구와의 친밀도 정도가 중퇴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아닌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다만 또래집단 요인이 중퇴발생에 있어 의미있는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비행친구와의 교제와 경험 공유이다.

이와 관련하여, 자발적 학업중퇴자들은 친구들과 어울리기 위해 나쁜 행동을 하는 편인가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사람이 50.7%였고,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20%로 나타났다. 또, 비행친구의 유무는 “자퇴친구가 있다”는 응답은 60.0%였고, “근신이상 교칙위반처분을 받은 친구가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58.7%였다. 그리고 “교정교화시설(소년원, 소년교도소 등)에 갔다온 친구가 있다”는 중퇴청소년은 28%였다(참고: 표 IV-9). 특히 형제자매나 가까운 친척 중 자발적 학업중퇴경험이 있는 중퇴자와 비행경험의 친구를 갖고 있는 중퇴자간의 두 집단간 교차분석도 실시하였다. 그러나 집단간의 유의미한 차이는 발견하지 못하였다(참고: 표 IV-10). 아울러 학교친구들과 다른 친구들을 구별하는 편인지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34.7%가 “그렇다”라고 응답하였고, 36.0%가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하였다.

<표 IV-9> 조사대상자의 비행친구 유무에 대한 분포

구분		명(%)
자퇴친구의 유무	있다	45(60.0)
	없다	30(40.0)
근신이상(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퇴학)의 교칙위반 처분경험의 친구 유무	있다	44(58.7)
	없다	31(41.3)
교정교화시설 경험 친구의 유무	있다	21(28.0)
	없다	54(72.0)
총계		25*(100)

<표 IV-10> 형제·친척 중 자발적 학업중퇴경험자와 비행친구 유무에 대한 교차분석

구분		자퇴친구		교착위반친구		교정교화시설경험친구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형제자매·친척 중 자발적 학업 중퇴 경험자	있다	15(71.4)	6(28.6)	15(71.4)	6(28.6)	8(38.1)	13(61.9)
	없다	30(55.6)	24(44.4)	29(53.7)	25(46.3)	13(24.1)	41(76.0)
총계: 75(100)		$\chi^2=9.95$ $\chi^2=1.587$		$\chi^2=1.296$ $\chi^2=1.959$		$\chi^2=1.767$ $\chi^2=1.878$	

김준호의 연구(1993: 107~110)에서는 비행으로 학업을 중도에 탈락한 청소년들이 재학생(8.7%)에 비해 월등히 많은 비행경험 친구를 갖고 있으며(91.3%), 처벌경험의 친구도 재학생(6.0%)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나(94.0%) Hirsch의 이론적 근거를 지지하고 있다. 이 연구결과를 자발적 학업중도탈락자들을 대상으로 한 본 연구결과와 비교하면, 재학생보다는 많지만 비행청소년에 비해서는 적은 비율로 나타나고 있어, 자발적 학업중퇴자에 대한 Hirsch의 이론적 적용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며 그에 따른 후속연구가 있을 때까지 유예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3) 가정적 요인

다음 <표IV-11>은 가정적 요인에 대한 조사대상자의 응답이다. 이론적 논의에서 살펴본 것처럼, 가정적 요인은 구조적 측면과 기능적 측면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 중 구조적 측면(결손가족 여부와 가정의 생활수준 정도)은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알고자 하는 기본문항에서 이미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는 가족의 기능측면을 중심으로 세분화된 질문을 제시하였다. 단, 기능적 측면 중 부모의 양육방식과 부모사이(부부)의 관계는

제외하고 가족간의 애착과 친밀도, 동일시 여부, 중퇴 이후 지원여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왜냐하면, 부모의 양육방식과 부모 사이의 관계는 조사대상자만의 주관적 인식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는 문제이며 따라서 중퇴자 부모에 대한 조사가 병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조사대상자의 입장을 중심으로 부모와의 친밀도 등 애착관계와 동일시·지원여부, 그리고 형제자매와의 애착관계와 지원여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그리고 부모와의 애착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① 내 장래에 대한 대화를 많이 나누는지 ② 고민거리가 생기면 부모와 상의하는지 ③ 내 의견을 이해하고 존중하는지, 그리고 ④ 부모님을 존경하고 사랑하는지 ⑤ 나중에 어른이 되면 부모님처럼 되고 싶은지(동일시)에 대해 질문하였다.

<표 IV-11> 가정적 요인에 대한 조사대상자의 응답분포

<단위: 명(%)> / N=75

구분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이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나의 가정은 화목한 분위기이다	남	7(17.9)	9(23.1)	16(41.0)	5(12.8)	2(5.1)
	여	9(25.0)	15(41.7)	7(19.4)	2(5.6)	3(8.3)
$\chi^2=6.648$		16(21.3)	24(32.0)	23(30.7)	7(9.3)	5(6.7)
나의 장래에 관해 부모님과 대화를 많이 나누다	남	5(12.8)	10(25.6)	16(41.0)	6(15.4)	2(5.1)
	여	5(13.9)	13(36.1)	12(33.3)	4(11.1)	2(5.6)
$\chi^2=1.245$		10(13.3)	23(30.7)	28(37.3)	10(13.3)	4(5.3)
부모님은 내 의견을 이해하고 존중하려고 하신다	남	8(20.5)	13(33.3)	13(33.3)	3(7.7)	2(5.1)
	여	8(22.2)	14(38.9)	10(27.8)	3(8.3)	1(2.8)
$\chi^2=.643$		16(21.3)	27(36.0)	23(30.7)	6(8.0)	3(4.0)
난 부모님을 존경하고 사랑한다	남	9(23.1)	13(33.3)	12(30.8)	4(10.3)	1(2.6)
	여	14(38.9)	11(30.6)	9(25.0)	1(2.8)	1(2.8)
$\chi^2=3.368$		23(30.7)	24(32.0)	21(28.0)	5(6.7)	2(2.7)
걱정이나 고민거리가 있을 때 부모님과 상의한다	남	6(15.4)	10(25.6)	8(20.5)	6(15.4)	9(23.1)
	여	5(13.9)	7(19.4)	16(44.4)	7(19.4)	1(2.8)
$\chi^2=9.659^{**}$		11(14.7)	17(22.7)	24(32.0)	13(17.3)	10(13.3)

구분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이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부모님에 대해 불만스런 점이 많다	남	3(7.7)	8(20.5)	17(43.6)	5(12.8)	6(15.4)
	여	2(5.6)	6(16.7)	16(44.4)	8(22.2)	4(11.1)
$\chi^2=1.491$		5(6.7)	14(18.7)	33(44.0)	13(17.3)	10(13.3)
부모님은 형제들에 대해 편애하는 편이다	남	1(2.6)	2(5.1)	15(38.5)	7(17.9)	14(35.9)
	여	2(5.6)	2(5.6)	9(25.0)	15(41.7)	8(22.2)
$\chi^2=6.269$		3(4.0)	4(5.3)	24(32.0)	22(29.3)	22(29.3)
내가 중퇴한 사실에 부모 님은 이해하는 편이다	남	9(23.1)	13(33.3)	11(28.2)	2(5.1)	4(10.3)
	여	7(19.4)	17(47.2)	6(16.7)	3(8.3)	3(8.3)
$\chi^2=2.481$		16(21.3)	30(40.0)	17(22.7)	5(6.7)	7(9.3)
중퇴한 후 부모님은 나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남	13(33.3)	9(23.1)	14(35.9)	-	3(7.7)
	여	11(30.6)	15(41.7)	5(13.9)	4(11.1)	1(2.8)
$\chi^2=10.827^{**}$		24(32.0)	24(32.0)	19(25.3)	4(5.3)	4(5.3)
내가 중퇴한 사실에 형제 들은 이해하는 편이다	남	8(20.5)	9(23.1)	16(41.0)	3(7.7)	3(7.7)
	여	9(25.0)	16(44.4)	6(16.7)	3(8.3)	2(5.6)
$\chi^2=6.655$		17(22.7)	25(33.3)	22(29.3)	6(8.0)	5(6.7)
내가 중퇴한 후 형제들이 적극 지원하고 있다	남	8(20.5)	6(15.4)	18(46.2)	3(7.7)	4(10.3)
	여	9(25.0)	6(16.7)	17(47.2)	2(5.6)	2(5.6)
		17(22.7)	12(16.0)	35(46.7)	5(6.7)	6(8.0)
		5(12.8)	5(12.8)	12(30.8)	7(17.9)	10(25.6)
		3(8.3)	6(16.7)	10(27.8)	13(36.1)	4(11.1)
		8(10.7)	11(14.7)	22(29.3)	20(26.7)	14(18.7)
		2(5.1)	2(5.1)	6(15.4)	12(30.8)	17(43.6)
		-	3(8.3)	-	11(30.6)	22(61.1)
		2(2.7)	5(6.7)	6(8.0)	23(30.7)	39(52.0)

* : $p < .05$, ** : $p < .01$, *** : $p < .001$

먼저, 조사대상자의 가정분위기에 대해 질문한 결과, 53.3%의 응답자가 “화목하다”고 응답하였고, “그렇지 않다”고 한 응답자는 16.0%였다. 내 장래에 대해 부모와 대화를 많이 나누는지에 대해서는 44.0%가 “그렇다”고 응답하였고 18.6%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걱정이나 고민거리가 있을 때, 부모님과 상의하는가에 대해서는 37.4%가 “그렇다”고 응답하

였고 30.6%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였다. 특히 이 질문에서는 성별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유의수준 .05)가 존재하였는데 대체로 여자 청소년들이 “부모님과 상의한다”(33.0%)라고 응답한 반면, 남자 청소년들은 “상의하지 않는다”(38.0%)라고 응답하였다.

나의 의견을 부모님이 존중하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57.3%가 “그렇다”고 응답한 반면, 12.0%는 “그렇지 않다”라고 대답했다. 부모님을 존경하고 사랑하는지에 대한 질문에서는 62.7%가 “그렇다”라고 응답한 반면, 9.4%는 그렇지 않았다. 한편, 내가 어른이 되면 부모님처럼 되고 싶은지에 대해서는 25.4%가 “그렇다”라고 응답한 반면, 45.4%는 “부모처럼 되고 싶지 않다”라고 응답해 부모와 다른 삶을 지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님에게 불만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25.4%가 불만이 있었고, 30.6%는 불만이 없다라고 응답하였다. 그리고 부모의 형제들에 대한 편애 여부에 대해서는 58.6%가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한 반면, “편애한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9.3%에 지나지 않았다.

한편, 자발적으로 중퇴한 사실에 대한 부모의 이해와 지원여부에 대해 질문한 결과, 중퇴한 사실에 대해 61.3%의 조사대상자가 “이해하고 있다”라고 응답하였고 16.0%는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응답하였다. 지원 역시 응답자 중 64.0%가 “지원한다”고 응답한 반면, “지원하지 않는다”라고 응답한 사람은 10.6%였다. 특히 지원여부와 관련하여 자발적 남자 중퇴자들의 56.0%와 여자 중퇴자들의 72.3%가 “부모의 지원을 받는다”라고 응답한 반면,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한 남자 청소년은 7.7%, 여자 청소년은 13%로 나타나 집단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유의수준 .05).

다음에는 중퇴사실에 대한 형제의 이해와 지원여부에 대해 질문한 결과, 형제들이 “중퇴한 사실에 대해 이해한다”라고 응답한 사람은 56.0%였고, 14.7%는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하였다. 지원여부에 대해서는 38.7%의 응답자 형제들이 지원한다고 응답하였고, 14.7%는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하였다. 지원여부를 부모와 비교하면, 아무래도 가족 내에서 부모들의

지원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형제들에게 열등의식을 갖는 지에 대해 질문한 결과 82.7%가 “없다”라고 압도적으로 응답한 반면, “있다”라고 응답한 청소년은 9.4%에 불과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중퇴자의 가족 기능은 부정 측면이 많아 중퇴에 이르게 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즉, 부모 자녀간의 대화정도는 재학생에 비해 현격히 낮고, 형제간에 친밀도는 두 집간에 유의미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지만 상대적으로 낮으며, 특히 부모의 형제에 대한 편애정도가 높아 이러한 가족기능의 부정 정도에 따라 중퇴할 경우가 높다(김준호, 1993:92~95)고 보고되었다. 또 송광성 외(1992: 45~49)와 송 복 외의 연구(1996: 78~83)에서도 가족의 화목한 분위기가 재학생에 비해 낮으며, 가족간 대화도 적게 하는 편이고, 부모님에 대한 비동일시 경향이 높고, 자신의 가족이 행복하지 않다고 응답하는 비율이 높았다. Bhaerman과 Kopp(1988)의 연구에 따르면 이런 경향은 미국도 거의 일치한다.

반면에 자발적 학업중퇴자들의 경우는 전통적 학업중퇴자의 그것과 다르다. 분위기도 화목한 편이고, 대화도 많이 나누며, 부모님은 자녀의 의견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편이다. 다만 부모와의 비동일시는 높은 편이다. 이는 청소년기의 발달적 특성 상 부모와의 동일시가 이 시기에는 낮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 재학생이나 전통적 학업중도탈락자들도 마찬가지로 비동일시가 높기 때문에 집단간의 차이는 발견할 수 없어 중퇴의 발생요인으로 삼기는 어렵다. 따라서 가정적 요인을 자발적 학업중퇴를 불러오는 변인으로 삼기에는 전통적 학업중퇴와 그 부정 기능의 양상이 차이가 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자발적 학업중퇴의 특징 상 부모와의 친밀도와 애착정도, 이해와 지원의 여부는 전통적 학업중도탈락자와는 다를 것으로 예견되었다. 특히 이해와 지원의 여부는 큰 차이를 보일 것으로 연구 초기부터 추측되었다. 왜냐하면, 전통적 학업중도탈락자들 중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 대상으로 삼고 있는 비행에 의한 중퇴자들은 자의 반 타의 반으로 정규 교육현장,

학습의 장면에서 ‘밀려나오는’ 경우가 많아 부모로부터 동의나 지원을 받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퇴 이전의 가족의 기능적 측면에서 부정 기능을 전통적 학업중도탈락자들과 비교·분석하는 것과는 별도로 중퇴 이후의 삶에 있어서 가족의 이해와 협력, 지원과 개입의 수준을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전통적 학업중퇴자 특히 비행이나 범죄 등 일탈적 행위에 의한 중퇴자들은 그들의 중퇴 이후의 삶에 있어 가정의 이해와 지원은커녕 거의 소외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에 자발적 학업중퇴자들은 중퇴 이후 부모와 형제의 관심과 이해, 그리고 지원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역시 자발적 학업중퇴와 전통적 학업중퇴간의 중요한 분기점을 의미하며 가정적 특성이 중퇴의 발생원인이라는 기존의 학업중퇴 논의와 차이를 갖게 하는 점이라 할 수 있다.

4) 학교요인

다음 <표 IV-12>는 학교요인에 대한 조사대상자의 응답분포이다. 흔히 학업중도탈락자들은 학교부적응 사태에 직면하게 되는데 이러한 사태의 원인은 학교교육의 기능과 그 효용성에 대한 낮은 인식, 저조한 학업 성적, 교사와 학교 내 또래집단과의 관계형성 실패, 학교생활에 대한 무관심 및 학교 밖 장면에 대한 열중 등으로 압축된다. 여기에서도 이와 같은 내용 중심으로 질문 문항을 구성하여 조사대상자들에게 제시하였다.

먼저, 조사대상자들은 전반적인 학교생활에 대해 53.3%가 “만족스럽지 못했다”라고 응답하였고, “만족스럽다”라고 응답한 사람은 21.4%였다.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학교생활에 대해 만족스러워 하지 않았다. 학교에 가기 싫다고 느낀 사람은 학교생활에 “불만족스럽다”라고 응답한 사람보다 많았으며(65.3%),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한 사람은 18.7%였다.

기회가 된다면 다시 학교생활을 하고 싶은지에 대해서도 역시 절반 이상의 응답자(52.0%)가 “싫다”라고 응답하였다. 특히 이 질문에는 남녀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유의수준 .01), 자발적 중퇴자 중 남자 청소년들은 “기회가 되면 다시 학교생활을 하고 싶다”라고 응답한 사람이 30%였고, “하고 싶지 않다”라고 응답한 사람은 35%였다. 반면에 여자 청소년들은 69%의 응답자가 “하고 싶지 않다”라고 응답하였고 “하고 싶다”는 19%였다. 자발적 중퇴경험자들 중 여자 청소년들이 남자 청소년에 비해 복교에 대한 생각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이 조사결과에 의하면, 자발적 학업중도탈락자들의 50% 이상이 학교생활에 대해 불만족스러워 하고 있으며, 다시 복교하기 싫어하는 느낌이 ‘역력함’을 알 수 있다. 이는 기존 중도탈락자들을 위해 시행되는 복교중심의 교육정책이 자발적 학업중도탈락자들에게는 일정한 한계를 줄 수 있고, 또 성별에 다른 특성을 고려해야 함을 함의하는 응답특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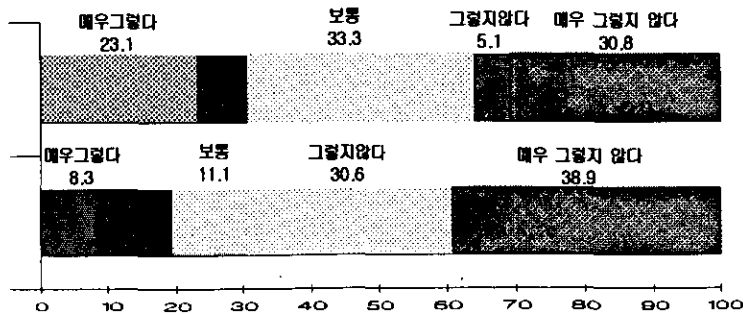
<표 IV-12> 학교요인에 대한 조사대상자의 응답분포

<단위: 명(%)> / N=75

구분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이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학교교육(졸업장)이 내 생애 중요하다	남	7(17.9)	5(12.8)	9(23.1)	10(25.6)	8(20.5)
	여	3(8.3)	4(11.1)	7(19.4)	11(30.6)	11(30.6)
$\chi^2=2.366$		10(13.3)	9(12.0)	16(21.3)	21(28.0)	19(25.3)
학교에서 배운 지식이 내 인생에 도움을 준다	남	6(15.4)	4(10.3)	13(33.3)	12(30.8)	4(10.3)
	여	5(13.9)	4(11.1)	10(27.8)	11(30.6)	6(16.7)
$\chi^2=.807$		11(14.7)	8(10.7)	23(30.7)	23(30.7)	10(13.3)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과 내 관심사는 다른 편이다	남	11(28.2)	14(35.9)	9(23.1)	2(5.1)	3(7.7)
	여	10(27.8)	14(38.9)	4(11.1)	7(19.4)	1(2.8)
$\chi^2=5.637$		21(28.0)	28(37.3)	13(17.3)	9(12.0)	4(5.3)
학교생활 중 난 선생님과 관계가 좋은 편이었다	남	3(7.7)	9(23.1)	15(38.5)	8(20.5)	4(10.3)
	여	10(27.8)	10(27.8)	11(30.6)	3(8.3)	2(5.6)
$\chi^2=7.268$		13(17.3)	19(25.3)	26(34.7)	11(14.7)	6(8.0)

구분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이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난 선생님들을 싫어하는 편이었다	남	7(17.9)	10(25.6)	12(30.8)	7(17.9)	3(7.7)
	여	3(8.3)	10(27.8)	10(27.8)	11(30.6)	2(5.6)
$\chi^2=2.755$		10(13.3)	20(26.7)	22(29.3)	18(24.0)	5(6.7)
선생님들이 나를 싫어하 는 편이었다	남	7(17.9)	4(10.3)	21(53.8)	4(10.3)	3(7.7)
	여	2(5.6)	3(8.3)	12(33.3)	13(36.1)	6(16.7)
$\chi^2=11.038^{**}$		9(12.0)	7(9.3)	33(44.0)	17(22.7)	9(12.0)
기회가 된다면 다시 학교 생활을 하고 싶다	남	9(23.1)	3(7.7)	13(33.3)	2(5.1)	12(30.8)
	여	3(8.3)	4(11.1)	4(11.1)	11(30.6)	14(38.9)
$\chi^2=14.195^{***}$		12(16.0)	7(9.3)	17(22.7)	13(17.3)	26(34.7)
난 학교생활에서 적극적 인 편이었다	남	3(7.7)	8(20.5)	15(38.5)	7(17.9)	6(15.4)
	여	6(16.7)	8(22.2)	13(36.1)	5(13.9)	4(11.1)
$\chi^2=1.759$		9(12.0)	16(21.3)	28(37.3)	12(16.0)	10(13.3)
학교생활 중 내 의견은 항상 존중되었다	남	1(2.6)	5(12.8)	13(33.3)	12(30.8)	8(20.5)
	여	1(2.8)	6(16.7)	9(25.0)	11(30.6)	9(25.0)
$\chi^2=.802$		2(2.7)	11(14.7)	22(29.3)	23(30.7)	17(22.7)
난 학교생활에 대해 만족 하는 편이었다	남	4(10.3)	3(7.7)	11(28.2)	12(30.8)	9(23.1)
	여	4(11.1)	5(13.9)	8(22.2)	12(33.3)	7(19.4)
$\chi^2=1.105$		8(10.7)	8(10.7)	19(25.3)	24(32.0)	16(21.3)
학교에 가기 싫다고 느낀 적이 많았다	남	18(46.2)	6(15.4)	9(23.1)	1(2.6)	5(12.8)
	여	7(19.4)	18(50.0)	3(8.3)	5(13.9)	3(8.3)
$\chi^2=16.914^{***}$		25(33.3)	24(32.0)	12(16.0)	6(8.0)	8(10.7)
중퇴 이전에 나의 학습태 도는 좋은 편이었다	남	5(12.8)	8(20.5)	12(30.8)	6(15.4)	8(20.5)
	여	4(11.1)	11(30.6)	10(27.8)	8(22.2)	3(8.3)
$\chi^2=3.210$		9(12.0)	19(25.3)	22(29.3)	14(18.7)	11(14.7)
선생님들이 나의 중퇴를 이해하는 편이었다	남	1(2.6)	7(17.9)	13(33.3)	6(15.4)	12(30.8)
	여	3(8.3)	7(19.4)	10(27.8)	12(33.3)	4(11.1)
$\chi^2=7.282$		4(5.3)	14(18.7)	23(30.7)	18(24.0)	16(21.3)
반 친구들이 나의 중퇴를 이해하는 편이었다	남	6(15.4)	6(15.4)	16(41.0)	5(12.8)	6(15.4)
	여	5(13.9)	13(36.1)	10(27.8)	6(16.7)	2(5.6)
$\chi^2=6.035$		11(14.7)	19(25.3)	26(34.7)	11(14.7)	8(10.7)

* : $p < .05$, ** : $p < .01$, *** : $p < .001$



<그림 IV-3> 조사대상자의 성별에 따른 복교회망 분포

학교교육의 기능과 효용성에 대해서는, 학교교육(졸업장)이 조사대상자 본인의 인생에 중요하지 않고(53.3%), 학교에서 배운 지식 역시 인생에 도움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으며(44.0%),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과 내 관심사는 다른 편(65.3%)이라고 응답하였다. 즉, 자발적 학업중퇴자들은 학교교육의 기능과 효용성에 대한 인식이 낮은 편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학습태도와 학업성적에 대해 질문한 결과, 중퇴이전 조사대상자들의 학습태도는 “좋았다”라고 응답한 사람은 37.3%였고, “좋지 않았다”라고 응답한 사람은 33.4%였다. 보통은 29.3%였다. 중퇴이전 학업성적에 대한 조사대상자 본인의 보고에 따르면, 최상위권과 상위권은 25.4%였고, 하위권 이하는 48.0%였으며 중위권은 26.7%로 나타났다(참고: 표 IV-13).

<표 IV-13> 조사대상자의 중퇴이전 성적분포

교사와 또래집단의 관계형성에 대해서는 선생님과 관계가 “좋았다”라고 응답한 사람이 42.6%였고, 22.7%는 “나빴다”라고 응답하였다. 선생님을 싫어한 편이었는데 대해서는 40.0%가 “그렇다”라고 응답하였고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한 청소년도 30.7%에 달했다. 이번에는 선생님이 나를 싫어하는가에 대해서는 34.7%가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하였고 “그렇다”는 21.3%에 달했다. 특히 선생님이 나를 싫어한다고 응답한 남자 청소년이 28.2%였고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여자 청소년은 52%여서 성별에 따른 유의수준 .05에서 의미있는 차이를 보였다. 즉, 자발적 학업중퇴자 중 남자 청소년이 여자 청소년에 비해 교사가 나를 싫어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 자발적 학업중도탈락자들과 교사들과의 관계는 크게 나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조사대상자의 자발적 중퇴에 대해 선생님들과 반 친구들의 이해도에 대한 이들의 인식은 선생님은 “이해하지 않았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45.3%인 반면, 반 친구들은 이해하는 편(40.0%)이라고 응답해 교사와 반 친구의 이해가 서로 상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조사대상자들은 자신의 자발적 학업중퇴에 대해 반 친구들보다 교사들이 이해하지 못한다고 응답하였다.

또 조사대상자들은 중퇴이전 학교생활에 대해 “적극적이다”와 “적극적이지 않았다”가 비슷한 분포를 보이고 있는 반면, 자신의 의견은 “존중받지 않았다”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학교생활에 적극적이었는지에 대해 33.3%가 “그렇다”라고 응답하였고, 29.3%가 “그렇지 않았다”라고 응답했다. 여기서 이 질문을 제시한 이유는, 적극성이 없다면 학교장면에서 또래집단이나 학교생활에 소외되거나 거부될 경험이 많을 수 있고, 혹은 학교 밖 장면에 대한 관심이 학교생활보다 더 크다면, 학교장면에서의 적극성을 발휘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학교생활 중 내 의견은 존중받았는가에 대해서는 53.4%가 “그렇지 않았다”라고 응답한 반면, 17.4%는 “그렇다”라고 응답하였다.

대개의 자발적 학업중도탈락자들은 학교생활에 적극적이지만 자신의 의견이 제대로 존중받지 못한 경험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참고: 김현진, 1999; 윤수현, 2000). 하지만 이런 경향은 최근의 일이다. 일본의 경우에서도 등교거부나 부등교 사태의 초기에는 학교장면에 부적응하는 소극적 양상이 보고된 것으로 나타났다가 이후에 적극적인 등교거부자나 부등교자들이 나타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패러다임팀, 2000). 우리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은데 처음 자발적 학업중퇴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들이 학교생활에 적극적이지 않고 소심하며 학업성취능력도 적은 청소년으로 비추어졌다. 그러나 요즘 자발적 학업중퇴자들의 경우는 학교생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만 개인의 의견이 존중받지 못함으로써 받는 상실감으로 학업중퇴에 이르는 경우가 많다(조혜정, 1997).

학교요인에 대한 선행연구 결과들과 비교하면, 특히 학교교육 및 생활에 대한 만족도에 있어 전통적 학업중퇴자와 자발적 학업중퇴자간에는 전체적 수준에서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보여진다. 예컨대, 중퇴를 발생시키는 학교요인을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도, 불만족도, 태학경험으로 살펴본 김준호(1993)의 연구는 학교생활의 만족도가 낮을수록, 불만족도가 높을수록, 그리고 태학경험이 많을수록 청소년들은 학교를 중퇴할 확률이 높다고 보고하였다. 학교생활에 대한 중퇴자의 인식을 파악한 송광성 외(1992)와 송복 외(1996)의 연구에서도 중퇴자들은 자신의 인격이 존중되지 않았고 교사와의 관계도 친밀하지 않았으며 특히 학교생활에 적극 임하지 않았다고 보고하여 학교생활이 중도탈락의 주요 원인임을 밝혔다. 최영신(2000)의 연구 역시 중퇴자들이 학교생활에서 가장 불만족스러웠던 점으로 지나치게 엄격한 학교교칙, 교사의 체벌, 좋지 못한 시설, 선생님과 비인격적 관계, 지나치게 입시위주의 학교교육 풍토를 꼽고 있으며, 이들은 '졸업장 따기 위해' 학교를 다니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여기서 자발적 학업중퇴와 전통적 학업중퇴간에 의미있는 차이는 교사와의 관계에 있어 전통적 학업중퇴자의 경우는 좋지 않다고 보고되는

반면, 자발적 학업중퇴자의 경우는 반드시 나쁘다라고 할 수 없다는 점과, 학교생활에 대한 참여에 있어 자발적 학업중퇴자의 경우는 적극적인 반면, 전통적 학업중퇴자의 경우는 소극적이란 점이다. 즉, 교사와의 애착관계, 학교생활에 대한 적극성을 제외한 나머지 학교요인 중 특히 학교교육의 기능과 효용성에 대한 불신은 전체적인 수준에서 유사하였다. 이러한 점은 앞의 개인적 요인, 또래집단의 요인, 가정적 요인에서 서로 배치되거나 상이한 결과들이 나왔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자발적 학업중도탈락자나 전통적 학업중도탈락자나 학교교육에 대한 기능효용성에 대해서는 그 신뢰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중퇴발생에 대한 학교교육의 요인이 전체적 수준에서는 유사하더라도 그 내용적 측면은 달라 보인다. 이를테면, 전통적 학업중도탈락자들은 자의든 타의든 학교장면으로부터 비껴남으로써 그 사실로 인하여 자신의 삶에 대한 비관적 경향이 강한 반면, 자발적 학업중도탈락자들은 그렇지 않다. 이들은 학력과 학교에서 배운 지식과 내용이 내 인생에 크게 중요하지 않으며 내 관심사와도 다르다는 응답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응답은 학교교육의 요인이 전통적 학업중도탈락자나 자발적 학업중도탈락자들에게 학업중퇴라는 동일한 결과를 산출하지만 그 내용과 과정은 다르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으로, 자발적 학업중도탈락자들이 자기의 의사를 중심으로 더욱 적극적인 중퇴현상임을 알 수 있다.

5) 사회적 요인

자발적 학업중도탈락자들은 사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중퇴 이후의 자기 삶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다음 <표 IV-13>은 이런 질문에 대한 조사대상자의 응답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여기서는 크게 세 가지 영역을 중심으로 질문을 제시하였다. 먼저 사

회에 대한 자발적 학업중퇴자의 관점을 학력에 대한 인식과 사회에 대한 만족도 중심으로 질문하였고, 둘째, 중퇴자들이 중퇴이후 자기 삶과 관련하여 삶에 대한 만족도는 어떠한지, 중퇴결정을 기점으로 과거와 지금의 생각은 어떠한지, 또 신중하게 중퇴 결정을 내렸는지, 그리고 중퇴 후 자신의 미래 삶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질문하였다. 아울러 중퇴 후 학습의지와 상급학교 진학에 대한 생각도 물어보았다. 셋째 영역은 중퇴 이후 청소년 지위비행(음주, 흡연)을 비롯하여 가출, 자살충동, 청소년유해환경 및 업소에 대한 유혹과 경험유무는 어떠한지를 질문하였다.

(1) 사회에 대한 관점

우선 조사대상자들은 우리 사회에서 학력은 성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응답한 사람이(41.4%)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한 사람(34.6%)보다 많았다. 이른바 학력주의(學歷主義) 사회를 살아가는데 학력은 아직까지 그리고 부득이하게 요구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표 IV-14> 사회에 대한 조사대상자의 응답분포

<단위: 명(%)> / N=75

구분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사회에서 학력은 성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남	8(20.5)	8(20.5)	10(25.6)	5(12.8)	8(20.5)
	여	6(16.7)	9(25.0)	8(22.2)	8(22.2)	5(13.9)
$\chi^2=1.834$		14(18.7)	17(22.7)	18(24.0)	13(17.3)	13(17.3)
우리사회에 대해 만족하는 편이다	남	3(7.7)	3(7.7)	9(23.1)	9(23.1)	15(38.5)
	여	3(8.3)	1(2.8)	4(11.1)	16(44.4)	12(33.3)
$\chi^2=5.105$		6(8.0)	4(5.3)	13(17.3)	25(33.3)	27(36.0)
중퇴이후 나의 생활에 만족한다	남	3(7.7)	12(30.8)	14(35.9)	3(7.7)	7(17.9)
	여	5(13.9)	19(52.8)	5(13.9)	4(11.1)	3(8.3)
$\chi^2=7.979$		8(10.7)	31(41.3)	19(25.3)	7(9.3)	10(13.3)
중퇴를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 지금은 후회한다	남	6(15.4)	5(12.8)	5(12.8)	7(17.9)	16(41.0)
	여	2(5.6)	1(2.8)	5(13.9)	10(27.8)	18(50.0)
$\chi^2=5.202$		8(10.7)	6(8.0)	10(13.3)	17(22.7)	34(45.3)

구분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이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중퇴경험은 내 미래 삶에 불리하다고 생각한다	남	2(5.1)	7(17.9)	10(25.6)	6(15.4)	14(35.9)
	여	4(11.1)	4(11.1)	5(13.9)	11(30.6)	12(33.3)
$\chi^2=4.663$		6(8.0)	11(14.7)	15(20.0)	17(22.7)	26(34.7)
난 가솔충동을 느낀 적이 있다	남	13(33.3)	11(28.2)	7(17.9)	4(10.3)	4(10.3)
	여	9(25.0)	16(44.4)	5(13.9)	2(5.6)	4(11.1)
$\chi^2=2.537$		22(29.3)	27(36.0)	12(16.0)	6(8.0)	8(10.7)
난 자살충동을 느낀 적이 있다	남	10(25.6)	10(25.6)	8(20.5)	3(7.7)	8(20.5)
	여	8(22.2)	11(30.6)	4(11.1)	6(16.7)	7(19.4)
$\chi^2=2.554$		18(24.0)	21(28.0)	12(16.0)	9(12.0)	15(20.0)
중퇴이후 유해업소에 출 입하고 싶어졌다	남	8(20.5)	7(17.9)	12(30.8)	4(10.3)	8(20.5)
	여	5(13.9)	6(16.7)	5(13.9)	8(22.2)	12(33.3)
$\chi^2=5.674$		13(17.3)	13(17.3)	17(22.7)	12(16.0)	20(26.7)
중퇴이후 음주를 하는 편 이다	남	16(41.0)	6(15.4)	13(33.3)	-	4(10.3)
	여	7(19.4)	5(13.9)	8(22.2)	8(22.2)	8(22.2)
$\chi^2=14.039^{**}$		23(30.7)	11(14.7)	21(28.0)	8(10.7)	12(16.0)
중퇴이후 흡연을 하는 편 이다	남	16(41.0)	8(20.5)	6(15.4)	2(5.1)	7(17.9)
	여	8(22.2)	5(13.9)	5(13.9)	9(25.0)	9(25.0)
$\chi^2=8.047$		24(32.0)	13(17.3)	11(14.7)	11(14.7)	16(21.3)
중퇴 후 유해환경·업소 에 관심과 유혹이 커졌다	남	6(15.4)	4(10.3)	12(30.8)	3(7.7)	14(35.9)
	여	5(13.9)	5(13.9)	3(8.3)	5(13.9)	18(50.0)
$\chi^2=6.492$		11(14.7)	9(12.0)	15(20.0)	8(10.7)	32(42.7)
중퇴 후 학습에 대한 의 지와 욕구가 커졌다	남	1(2.6)	10(25.6)	18(46.2)	2(5.1)	8(20.5)
	여	13(36.1)	9(25.0)	8(22.2)	3(8.3)	3(8.3)
$\chi^2=16.564^{***}$		14(18.7)	19(25.3)	26(34.7)	5(6.7)	11(14.7)
중퇴이후에도 상급학교에 진학하고 싶다	남	6(15.4)	7(17.9)	5(12.8)	11(28.2)	10(25.6)
	여	7(19.4)	8(22.2)	9(25.0)	7(19.4)	5(13.9)
$\chi^2=3.728$		13(17.3)	15(20.0)	14(18.7)	18(24.0)	15(20.0)
학교가 아닌 다른 곳에서 공부하고 싶다	남	6(15.4)	7(17.9)	19(48.7)	2(5.1)	5(12.8)
	여	14(38.9)	11(30.6)	5(13.9)	4(11.1)	2(5.6)
$\chi^2=14.111^{**}$		20(26.7)	18(24.0)	24(32.0)	6(8.0)	7(9.3)

* : $p < .05$, ** : $p < .01$, *** : $p < .001$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응답자도 적지 않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기간을 둔 종단적 연구와 포괄적 표집을 통한 전체의 생각을 좀 더

심도있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들이 갖고 있는 사회에 대한 만족도가 낮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리라 생각되어진다. 자발적 학업중퇴자들의 사회에 대한 만족도는 만족하는 편은 13.3%에 지나지 않았지만 불만족스럽다는 응답은 69.3%였다.

(2) 중퇴에 대한 결정과 이후의 삶

하지만 자발적 학업중퇴자는 중퇴이후 자기 삶에 대해서는 만족하는 편이었고, 중퇴결정에 대해서는 후회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 중 절반 이상(52.0%)이 자기 삶에 대해 “만족한다”고 응답하였고, 22.6%만이 “만족하지 않는다”라고 응답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중퇴를 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 지금은 후회하는지 질문한 결과, “후회하지 않는다”가 68.0%였고 18.7%만 “후회한다”고 응답하였다.

중퇴결정에 대해 후회하지 않는다는 것은 당시의 결정이 충동적이지 않은 않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중퇴결정이 신중하였는지에 대해 물어본 결과, 자발적 학업중퇴자들은 당시의 결정이 약간 충동적이거나 매우 충동적이었더라고 응답한 비율이 26.0%였고, 신중한 편 혹은 매우 신중하였다가 48.0%로 나타났다. 특히 “매우 신중하였다”라고 응답한 사람이 24%를 차지하여 절반 가까이의 응답자가 나름대로 신중하게 결정하였고, 특히 4분의 1정도는 매우 신중하게 학업중퇴를 고려,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참고: 표 IV-15).

<표 IV-15> 학업중퇴 결정시 신중함과 충동성에 대한 조사대상자의
응답분포

구분	명(%)
매우 충동적이었다	9(12.0)
약간 충동적이었다	11(14.7)
잘 모르겠다	17(22.7)
신중한 편이었다	18(24.0)
매우 신중하였다	18(24.0)
기타	2(2.7)
총계	75(100)

한편, 중퇴를 결정할 당시 누구의 결정이 가장 중요하였는지에 대하여 살펴본 결과, '나 자신'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66.7%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부모님과 나'라고 응답한 사람도 16.0%로 나타나, 중퇴결정에 자신의 의지가 많이 개입된 것(전체 82%)으로 드러났다(참고: 표 IV-16). 반면에 '부모의 결정'이나 '학교의 결정'에 의한 중퇴자는 16%에 지나지 않았다. 이는 표집된 대상들이 자발적 학업중퇴라는 진순한 의미에서 대체로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표 IV-16> 중퇴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사람과 기관

구분	명(%)
부모님	10(13.3)
학교	2(2.7)
나 자신	50(66.7)
나와 부모님 모두	12(16.0)
친구	1(1.3)
총계	75(100)

중퇴 이후의 삶에 대해 후회하지 않고, 본인의 의지에 따라 나름대로 신중하게 선택한 조사대상자들은 그래서인지 앞으로 중퇴경험은 내 미래

의 삶에 대해 불리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또 중퇴이후 20년이 지난 자신의 삶에 대해서도 대체로 낙관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조사대상자들 중 57.4%는 중퇴경험이 자신의 미래에 불리하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았으며, 중퇴이후 20년이 지난 자신의 삶은 행복할 것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72.0%에 달하였다. 반면에 중퇴경험이 불리하다고 판단한 응답자는 22.7%였고, 20년 후의 미래가 행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10.7%에 지나지 않았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선행연구와 비교하면 큰 차이가 있다.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전통적 학업중퇴자들은 중퇴경험을 한 자신의 삶이 불행하다고 느끼고 있었으며 장래의 자신의 미래 역시 그다지 희망적이라고 바라보지 않았다(참고: 송광성 외, 1992; 김준호, 1993; 송복 외, 1996).

그렇다면, 자발적 학업중퇴자들은 중퇴를 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 개인·가정·학교·사회 등 다변인에 의해 나타난다는 중퇴현상과 관련하여 자발적 학업중퇴자들이 꼽는 중퇴의 가장 중요한 이유를 물어보았다. 다음의 <표 IV-17>은 자발적 학업중퇴자들이 중퇴를 하게 된 중요한 이유에 대해 응답한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표에 제시되어 있는 9개의 항목중에서 두 가지씩을 선택, 복수로 응답케 한 후, 응답자의 비율이 높은 순서대로 정리하였다. 그 결과, 자발적 학업중퇴의 이유로 조사대상자들이 가장 많이 지정한 내용은 “내겐 의미없고 필요없다고 생각되는 학교지식과 교과내용”이다(38%). 다음으로는 “나의 삶을 성취하는데 있어 학교에 있는 시간이 아깝다고 생각하기 때문(22.7%)”, “따분하고 지루한 학교생활”(13.3%)이 지적되었다. 그 외에 “선생님과의 관계 악화”, “교칙위반”, “가정불화”, “기타”, “낮은 학업성적”, “가정형편”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여기서 기타에는 “친구들과의 관계”가 3명, “학교에서 배울 건 다 배웠다(2명)”, “학교생활의 싫증”(2명), “돈이 아까워서”가 포함된다.

결국, 자발적 학업중퇴자들은 전통적 학업중퇴자들에 비해 학교교육의 기능과 효용성에 대한 강한 불신을 갖고 있고, 특히 자기 삶에 대한

주체적 의지에 대한 성향이 학교생활장면과의 부합을 저해함으로써 중퇴 현상은 더 강화되는 것으로 보여졌다. 단순히 학업성취능력의 부족과 가정생활장면의 여러 요인들은 여기서 크게 작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7> 자발적 학업중퇴의 이유에 대한 조사대상자의 응답

이유	빈도(%)
내겐 의미없고 필요없다고 생각되는 학교지식과 교과내용	57(38)
나의 삶을 성취하는데 있어 학교에 있는 시간이 아깝다고 생각하기 때문	34(22.7)
따분하고 지루한 학교생활	20(13.3)
선생님과의 관계악화	11(7.3)
교칙위반	9(6)
가정불화	8(5.3)
기타	7(4.7)
낮은 학업성적	3(2)
가정형편	1(0.7)
총계	150(100)

그래서인지, 중퇴 이후의 학습욕구와 의지가 지속되는지에 대한 응답에서 자발적 학업중퇴자들은 자신의 개별적 관심사에 대한 학습의 욕구와 의지를 갖고 있으며, 학교가 아닌 다른 곳에서라도 공부하고 싶어하는 요구가 강하였다. 즉, 응답자의 44.0%는 중퇴 이후에도 학습에 대한 의지와 욕구가 커졌다고 응답한 반면, 21.4%의 응답자는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하였다. 학교가 아닌 다른 곳에서 공부하고 싶은지에 대해서는 50.7%가 “그렇다”라고 응답하였고, 17.3%가 “아니다”라고 응답하였다. 중퇴 이후 상급학교(대학)에 대한 진학의지는 “있다”가 37.3%(대학), “없다”가 44.0%였다.

그런데 자발적 학업중퇴자들이 중퇴 이후 학습에 대한 의지와 욕구를 어느 정도 갖고 있는지를 그리고 어떤 욕구인지를 살펴보는 것은 좀 더

신중한 고려와 판단이 요구된다. 왜냐하면, 중퇴를 한 후 어느 정도의 기간이 지났느냐에 따라 학습의지와 욕구의 정도는 개인간의 편차가 있을 테고, 아울러 이렇게 나타난 결과에 따라 우리 사회가 각 각 마련해야 할 대응 방안이 서로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자면, 학교교육으로부터 자발적으로 학업을 거부하거나 중지한 청소년이 막 나온 다음에는 아무래도 학습의 의지와 욕구가 일정 기간이 지난 중퇴자에 비해 적거나 혹은 더 많을 수 있다. 또 개별적 관심과 상급학교 진학이란 사회적 요구에서 ‘유예된 판단’의 시간이 자발적 학업중도탈락자들의 경우에는 필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퇴 이후 시간에 따른 학습의지의 편차를 고려한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그리고 그에 따라 우리 사회가 마련해야 할 대응체제를 구안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자발적 학업중퇴자들에게 중퇴 이후 필요한 사람과 기관을 물어본 결과(참고: 표 IV-18), “자신의 관심사를 개발시킬 수 있는 기회”가 50.7%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나의 진로를 위해 조언을 해 줄 수 있는 진로지도기관과 사람”을 꼽은 응답자가 14.7%였으며, “계속 공부할 수 있는 학교 이외의 장소와 사람”도 13.3%를 차지하였다.

<표 IV-18> 조사대상자가 응답한 중퇴 이후 필요한 사람과 기관

사람과 기관	빈도(%)
계속 공부할 수 있는 학교 이외의 장소와 사람	10(13.3)
자신의 관심사를 개발시킬 수 있는 기회	38(50.7)
나의 진로를 위해 조언을 줄 수 있는 사람과 기관(진로지도기관)	11(14.7)
내가 상담을 할 수 있는 사람과 기관(상담기관)	6(8.0)
실질적인 취업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사람과 기관	4(5.3)
기타: 아르바이트와 여자친구(2명), 사랑하는 사람들과 나의 집, 배우자, 아무 것도 필요 없다, 친구들	6(8.0)
총계	150(100)

다음으로는 “상담을 할 수 있는 사람과 기관(상담기관)”(8.0%), “실질적인 취업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사람과 기관”(5.3%)의 순이었다. 기타는 8%였는데 여기에는 아르바이트와 여자친구(2명), 사랑하는 사람들과 나의 집, 배우자, 친구들, 그리고 아무 것도 필요 없다라는 응답이 있었다.

(3) 중퇴 이후 비행경험

흔히 중퇴를 하게 되면, 통제적 삶에서 자율적 삶으로 전이되는 가운데 비행과 일탈에 대한 유혹이 많아질 수 있다. 비행과 일탈, 범죄 등의 부정적 사회행위는 중퇴를 야기시키는 요인이 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중퇴 이후의 삶을 더 피폐하게 만들 수 있는 요인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자발적 학업중퇴자들의 경우는 어떠한가? 이러한 의문에 기초하여 여기에는 가출과 자살충동, 흡연과 음주 등의 지위비행, 유해업소 및 환경에 대한 유혹과 경험 정도를 질문하였다.

그 결과 자발적 학업중퇴자들은 중퇴 이후 가출충동과 자살충동을 느낀 적이 있으며, 음주 및 흡연 경험도 절반 가까이가 하고 있었다. 반면에 유해업소 및 유해환경에 대한 유혹은 작은 편이었다. 구체적으로, 가출충동을 느낀 적이 있는가에 대해 65.3%가 “그렇다”라고 응답하였고, 자살충동을 느낀 적이 있다는 응답자도 52.0%였다. 중퇴이후 음주의 경험은 45.4%가 “그렇다”라고 응답한 반면, “아니다”가 26.7%였다. 흡연 경험 역시 “그렇다”가 49.3%였고, “아니다”가 36.0%였다. 반면에, 중퇴이후 유해업소에 출입하고자 하는 유혹은 “커졌다”고 응답한 응답자가 전체 중 34.6%에 달하였고, 그렇지 않은 응답자는 42.7%였다. 역시 유해환경에 대한 유혹은 26.7%가 “그렇다”, 53.4%가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해 전반적으로 유해업소와 환경에 대한 유혹은 전통적 학업중퇴자(송광성 외, 1992; 김준호, 1993)에 비해 현저히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V. 요약 및 결론

1. 요약

연구결과에 따르면, 자발적 학업중도탈락자들은 전통적 학업중도탈락자들과 비교하여 그들이 학업중퇴에 이르기까지 영향을 미치는 발생요인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이 나타났다. 따라서 자발적 학업중도탈락 현상은 전통적 학업중도탈락현상과는 다른 학업중퇴 현상임을 발견할 수 있었다. 요인별로 살펴보면, 학교교육의 요인을 제외한 개인적 요인과 또래집단 요인, 가정적 요인, 사회적 요인에 있어 의미있는 차이가 있었다. 또 학교교육의 요인 역시 학교교육의 기능과 효용성에 대한 불신,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도 등에 있어 양 학업중도탈락자들이 유사한 응답을 보였지만 그 개별적인 내용과 동기, 과정에 있어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였다.

구체적으로, 자발적 학업중도탈락자들은 자신의 성격과 특성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그에 따른 주관적 인식도 낮지 않았다. 공격성 역시 전통적 학업중도탈락자들에 비해 강하다고 볼 수는 없었다. 자신의 성격에 대한 만족감은 그렇다와 그렇지 않다가 비슷하게 분포된 반면, 중퇴결정 및 중퇴 이후의 삶에 대해 만족하고 있었으며, 낙관적인 미래상과 구체적인 직업관을 갖고 있었다. 또, 자신의 진로와 취업 등 장래에 대한 고민과 그에 따른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학습의 의지와 성실한 삶에 대한 긍정적 기대감도 높았다.

이러한 개인적 특성요인과 관련된 응답의 분포를 살펴보면, 전통적 학업중도탈락자들이 보였던 개인적 특성, 즉, 낮은 자아존중감과 자기만족감, 강한 공격성, 장래에 대한 비관적 기대감 등에 있어 집단 간의 큰 차

이가 있었다. 따라서 개인의 부정적 성격과 장애특성에 의해 학업중도탈락현상이 발생한다는 기존의 전통적 학업중도탈락현상에 대한 이해의 틀이 자발적 학업중도탈락 현상에는 적절하다 볼 수 없다.

또래집단 요인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친구의 유무와 친밀도 정도, 비행경험과 비행친구의 유무에 있어서 전통적 학업중도탈락자들이 대체로 부적 응답이 높은 반면, 자발적 학업중도탈락자들은 그렇지 않았다. 자발적 학업중도탈락자들은 친구들과 친밀한 관계형성에 실패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비행친구와의 교체와 경험의 공유 역시 전통적 학업중도탈락자들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또래집단 요인은 전통적 학업중도탈락자들의 경우 학교생활의 만족감을 저하시키고 불만족도를 높게 하는 주요 요인 중 하나였음을 상기해 볼 때, 전통적 학업중도탈락자들에게 적용하였던 이러한 요인논리를 자발적 학업중도탈락자들의 경우에 그대로 준용할 수 없음을 알 수 있었다. 즉, 자발적 학업중도탈락 현상은 또래집단에 의해 영향을 받는 현상이라고 보기에는 어렵다.

가정적 요인에서도 전통적 학업중도탈락자들과는 다른 가정배경과 특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의 구조적 측면에서 구조적 결손을 먼저 살펴보면, 조사대상자들 중 89.3%가 양친이 생존하고 있었고 68%가 양친과 함께 살고 있어 구조적 결손배경이 많은 전통적 학업중도탈락자들과는 다르게 나타났다. 본인의 가정 생활수준에 대한 인식도 대체로 많은 조사대상자들이 어렵다고 응답하지 않아 빈곤에 의한 중도탈락현상과는 거리가 멀었다.

가족의 기능적 측면에서는 가족 간의 애착과 친밀도가 오히려 재학생 집단보다 강한 것으로 나타났고, 자녀의 의견에 대한 부모의 이해와 존중도 높았으며, 특히 중퇴와 중퇴 이후 부모와 형제들의 이해와 지원이 높은 것으로 드러나 가족 기능의 부적 측면이 많은 전통적 학업중도탈락자들의 특성들과 큰 차이를 보였다. 따라서 가정적 요인에 있어서도 전통적

학업중도탈락현상에 대해 적용한 가정적 요인논리가 자발적 학업중도탈락 현상에는 준용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아울러 사회적 요인에 있어서도 자발적 학업중도탈락자들은 지금 현재의 사회에 대해서는 만족스러워하지는 않지만, 중퇴 이후 자기 삶에 대해서는 만족하고 있었으며, 특히 자기 미래의 삶에 대해서는 희망적인 응답을 표현하여 긍정적인 사회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일정한 학습의 의지와 욕구를 갖고 이를 실천으로 옮기고자 하는 의지도 있으며 이로 인해 유해환경이나 업소에 대한 유혹의 정도도 전통적 학업중도탈락자들에 비해 현저히 낮았다. 다만, 중퇴 후 휴먼·음주 등의 지위비행 경험과 가출·자살의 충동경험은 과반수 이상의 응답자가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그 응답률 역시 전통적 학업중도탈락자들과 비교하면 훨씬 낮은 정도였다.

반면, 자발적 학업중도탈락현상 및 중도탈락자들에 대한 학교교육의 요인은 전통적 학업중도탈락자들의 그것과 전체적인 수준과 학교교육의 요인이 중퇴에 이르게 한다는 결과적 측면에서는 거의 동일하다고 볼 수 있었다. 교사와의 관계형성이 크게 나빠지는 않았지만, 학교교육의 기능과 효용성에 대한 강한 불신을 나타내고 있었고, 자기의 의견이 존중받지 못하는 학교교육의 분위기에 대해서는 강한 저항의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학교교육의 기능과 효용성에 대해 크게 신뢰하지 않는다는 점은 유사하였지만 그 내용과 특성에서는 유의미한 차이들이 나타났다. 예컨대, 학력이 중시되는 사회는 인정하되 학력이 자신의 인생에 중요하지 않고, 학교에서 배운 지식은 내 인생에 도움을 주지 않으며 내 관심사와도 다른 편이되 학습의 의지는 높다라는 응답이 그것이다. 또 이들은 학업중퇴에 대한 자신의 의지가 명백하게 나타났고, 그에 따른 나름의 준비와 중퇴 이후의 삶에 대한 희망적 기대감도 높았다. 자발적 학업중도탈락자들은 학교생활장면에 적극적인 참여를 보이고 있어 이 점 역시 전통적

학업중퇴자들과는 다른 차이점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점을 학교를 중심으로 학교생활장면(미시적 수준)과 학력 및 사회(거시적 수준)에 대한 응답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미시적인 수준에서 자발적 학업중도탈락자들은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낮았지만, 교사·또래집단과 애착관계를 형성하는데 크게 실패하지 않았고, 학습태도와 학업성적도 나쁘지 않았으며, 학교생활의 참여에도 적극적이었다. 거시적인 수준에서 학교교육의 기능과 효용성에 대한 불신은 전통적 학업중도탈락자와 마찬가지로 강하였지만, 학력 및 중퇴이후의 삶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과 대처를 하고 있음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특히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잠재적 학업중도탈락자와 전통적 학업중도탈락자들은 ‘졸업장이라도 따려는 마음’에 학교 혹은 학교 이외의 장면에서 졸업자격검정을 취득하려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즉, 이들은 학교의 기능과 효용성에 대해서는 불신하지만 어떻게 해서라도 졸업장만은 받으려는 의지는 강하였고, 그것이 결정적인 계기, 이를테면 범죄나 공식적인 비행의 기록으로 남게되는 경우에서만 이러한 경향을 포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참고: 송광성 외, 1992; 김준호, 1993; 송복 외, 1996; 유성경·이소래, 1998; 한준상, 1999 a; 최영신, 2000). 이에 비해 자발적 학업중도탈락자들은 자신의 관심사와 뚜렷한 직업관과 대비하여 지금 현재 학교교육의 교과내용과 지식의 직·간접적인 연관성을 신뢰하지 않았고, 그에 기초한 학습의 의지가 높았으며, 학력 자체에 대한 필요성을 중시하지 않고 있었다는 점에서 잠재적·전통적 학업중도탈락자들과 큰 차이를 보였다. 따라서 이러한 점들을 감안한다면, 자발적 학업중도탈락자들의 학업중퇴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학교교육의 요인과 전통적 학업중도탈락자들의 그것과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결국 자발적 학업중도탈락 현상은 전통적 학업중도탈락 현상과 전혀 다른 학업중도탈락 현상으로, 발생요인 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2. 결론 및 제언

그동안 학업중도탈락이란 포괄적 범주에서 전통적 학업중도탈락 현상과 같이 해석되어 온 자발적 학업중도탈락현상은 그러나 본 연구에 따르면 발생요인을 중심으로 볼 때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자발적 학업중도탈락자들은 학습의 의지를 갖되, 학교장면의 교육을 스스로 거부하거나 포기, 중지한 청소년들이란 점에서 기존의 전통적 학업중도탈락자, 그 중에서도 비행과 범죄소년 중심의 일탈적 학업중도탈락자들과는 크게 다르다는 점이 드러났다.

따라서 그 간 전통적 학업중도탈락자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구안되어 온 중도탈락자 대상 사회적응체계 및 대응방안들을 보다 세분화하여 자발적 학업중도탈락현상을 초점으로 한 새로운 대응방안이 구안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새로운 대응방안을 구안하기 전에 자발적 학업중도탈락자들을 대상으로 한 향후 후속적인 논의가 더욱 활성화되고 심도있게 전개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본문에서도 지속적으로 제기하였지만 자발적 학업중도탈락현상 및 자발적 학업중도탈락자들을 대상으로 한 포괄적이고 심도있는 후속논의가 필요하다.

자발적 학업중도탈락현상은 이제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매우 중요한 사회적·교육적 과제로 대두되어졌다. 특히 학업중도탈락의 구조적 변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오늘날 이들이 어떤 특성을 갖고 있으며, 어떠한 요구를 갖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들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선행연구에 기초하여 새로운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먼저, 선행되어야 할 후속 연구주제와 내용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발적 학업중도탈락자들의 현황과 실태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 연구와 함께 이들의 현황과 실태, 그리고 그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원의 취합과 기록이 가능할 수 있도록

현재의 통계적 기준과 교육정책의 변화가 전제되어야 한다.

둘째, 자발적 학업중도탈락자들을 대상으로 한 보다 포괄적이고 종단적인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포괄적이고 종단적인 연구는 일반 청소년·전통적 학업중도탈락자들과 비교하여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자발적 학업중도탈락자들의 특성을 밝히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아울러 자발적 학업중도탈락자들의 삶의 과정을 추적하는 종단적 연구를 통해 이들이 요구하거나 혹은 요구되는 것들을 좀 더 정확하게 발견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들은 자발적 학업중도탈락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체제 및 방안수립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자발적 학업중도탈락현상에 대한 대응 방안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고려되어야 할 점을 학교의 내·외 장면을 중심으로 두 가지 제언하고자 한다. 하나는 학교장면을 중심으로 한 학교문화 및 학교교육의 획기적인 변화와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자발적 학업중도탈락이란 ‘학습의 의지’는 지닌 채 학교교육에 대한 거부와 포기, 중지현상이라 할 수 있다. 이는 학교교육이 아직은 소수이지만 이들로부터 명백하게 외면을 받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과거 학교교육이 소수를 위해 다수를 외면, 포기, 거부한 경험을 갖고 있다면 상황은 역전된 셈이다. 이제 학교교육은 자발적 학업중도탈락이란 현상을 해석하는데 있어서 스스로의 내적 변화를 위한 주요한 동인(動因)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또 자발적 학업중도탈락현상 자체가 학교교육의 실패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치부’로 읽고 이를 감추려고만 할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 어떤 내용의 변화를 수반해야 하는지 ‘자성의 단서’가 될 수 있도록 발상을 전환해야 한다.

학교 외적 장면을 중심으로는 학교 외 교육 및 청소년 활동 장면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부분적으로 자발적 학업중도탈락자들을 위한 사회 지원체제로 현재 구안되거나 실천하고 있는 방안은 대체로 대안교육 장면에 집중되어 있다. 그러나 대안교육장면은 사전의 효과적인 예방체제 혹

은 조기의 개입체제라기보다는 사후 지원체제라 할 수 있다. 자발적 학업 중도탈락자들에 대한 다양한 지원체제가 있어야 한다는 원칙적인 측면에서는 대안교육장면도 다양하게 그리고 적극적으로 구축되어 이들에게 지원되어야 한다. 이점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한다. 그러나 학교교육만으로 학습자 개인의 다양한 학습의지 및 욕구를 충족할 수 없고 또 아직 확실한 보장체제가 학교 외의 장면에서 축조되지 않은 현실을 고려할 때 오히려 학교 외 교육(out of school education)을 지원하거나 청소년활동(youth activities)을 활성화함으로써 잠재적인 자발적 학업중퇴경향을 보이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효과적인 지원방안이 될 수 있다. 이것은 어떤 점에서는 마치 대안교육장면에서 ‘벽이 없는 학교’, ‘사회학습자원의 네트워크’와 유사한 개념이자 방안으로 거리의 교육학, 지역사회자원을 활용한 교육이라 할 수 있다. 아울러 평생교육(life long education)의 차원에서 단지 학교교육만을 교육의 중심, 혹은 교육의 절대장면으로 보았던 근대적 교육관을 전환시킬 수 있는 새로운 교육적 대안이기도 하다. 예컨대 지금까지 청소년수련활동이란 이름으로 제한한 청소년활동장면의 영역을 청소년활동이란 이름으로 보다 넓혀 학교교육 및 지역사회와 적극 연계하는 프로그램들을 구안할 필요가 있다. 또 이런 프로그램들을 학교교육과 지역사회 안에서 전개할 수 있는 연결체제를 구축할 필요도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연구와 대응방안의 마련에 하나의 단초를 제공하는 것으로 그 역할을 다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단초가 시작이란 의미에서 이 연구주제는 이제야말로 시작이다.

참 고 문 헌

- 교육부(1990~2000). 교육통계연보. 서울: 교육부.
- 교육부(1997). 학교중도탈락자 예방종합대책. 교육월보. 181. pp. 53~61.
- 교육인적자원부(2001). 인적자원 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한 교육인적자원정책 추진계획. 대통령 업무보고자료(2001. 3. 15).
- 구본용·정찬석(2001). 잠자는 아이들의 세계. 서울: 한국청소년상담원.
- 권현진(1997). 학업중단 청소년을 위한 직업지도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 논문.
- 김경식(1996). 공고생의 학급풍토 지각과 결석률, 중퇴율과의 관계. 교육사회연구, 6(2), pp. 247~272.
- 김경식(1997). 중·고교 중퇴생과 재학생의 교내외 생활 비교를 통한 중퇴요인 분석. 교육사회학연구, 7(3), pp. 115~138.
- 김 민(2000 a). 학교붕괴, 신화인가 현실인가. 교육인류학연구. 3(2). 서울: 한국교육인류학회.
- 김 민(2000 b). 학교실패현상에 대한 문화론적 연구. 서울 : 한국청소년개발원.
- 김 민(2000 c). 청소년문제와 그 대책: 폭력을 중심으로. 2000년도 중등교감자격연수과정 연수교재. 충청북도 단재교육원.
- 김선희(1997). 중도탈락 학생을 위한 학교사회사업적 개입에 관한 연구. 논문집 29. 강남대학교.
- 김종두(2000). 정보화사회의 학교교육체제 정립을 위한 교육정보화 수준측정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김준호(1993). 중퇴와 비행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김준호(1994). 청소년유해환경의 실태와 대책. 오늘의 청소년. 9(9). 서울: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김현주(2001). 학업중도탈락자녀의 심리적 갈등과 가정에서의 대처방안.

학업중도탈락과 청소년복지(2001년도 한국청소년복지학회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서울: 한국청소년복지학회.

김현진(1999). 네 멋대로 해라. 서울: 한겨레신문사.

남상인(2000). 학교중퇴. 청소년문제행동의 이해. 서울시·자녀안심운동서울협의회.

대검찰청(2000). 범죄분석. 서울: 대검찰청.

동아일보(2001. 5. 23). 흔들리는 교권.

매일경제(2001. 2. 19~20; 4. 8). e 학습혁명보고서.

문교부(1980~1989). 문교통계연보. 서울: 문교부.

문선화 외(1998). 중등학교 중퇴자의 학교복귀를 위한 학교사회사업의 접근방안. 사회복지연구, 8. 부산대학교.

문화관광부(2000). 청소년백서. 문화관광부.

박영숙(1999). 학교환경이 청소년의 학업중퇴에 미치는 영향. 한림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박수민(1998). 복교를 원하는 중퇴청소년의 학교적응을 위한 지지방안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석사학위 청구 논문.

박현선(1998). 빈곤청소년의 학교적응 유연성.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 논문.

서울시대안교육센터(2001). 열린공간, 움직이는 학습: 사는 곳 어디나 배움터입니다 - 탈학교 십대를 위한 도시형 대안학교 어떻게 만들 것인가(제 1차 대안교육 심포지움 자료집). 서울시: 서울시 대안교육센터.

석숙이(2000). 중도탈락 학생의 학교재적응을 위한 사회사업 개입방안.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손승영(1995). 학업중퇴자 실태와 인식. 학업중퇴자 - 실태와 대책. 서울:

- 연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 손승영 외(1996). 학업중퇴자의 조사연구. 학업중퇴자 연구 - 실태와 대책. 서울: 연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 송광성 외(1992). 정학·퇴학 청소년선도방안 연구. 서울: 한국청소년연구원.
- 송 복 외(1996). 학업중퇴자 연구-실태와 대책. 서울: 연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 아사히신문사 편(1999). 학급붕괴. 홍영의 역. 서울: 초록배매직스.
- 옥일남(1991). 교실환경에서 나타나는 소외연구. 서울대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유성경·이소래(1998). 잠재적 중도탈락 학생에 대한 개입체제 개발연구. 서울: 청소년대화의 광장.
- 윤수현(2000). 내가 다닌 학교이야기. 민들레. 9. 서울: 민들레
- 윤정일(1999). 학교교육 붕괴의 종합진단과 대책. 학교교육붕괴,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서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1999. 10. 12. 제 33회 교육정책토론회 자료집). 6-12.
- 이경림(2000). 실업계고등학생의 중퇴와 관련된 환경적 특성에 관한 연구-체계론적 접근을 중심으로.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명호(2001). 교교교원이 바라보는 교육개혁. 새교육. 5. 서울: 한국교원단체총연맹.
- 이숙영(1997). 중도탈락학생의 사회적응 상담정책 개발연구. 서울: 청소년대화의 광장.
- 이인규(1999). 무너지는 학교, 흔들리는 교단. 창작과 비평, 105. 서울: 창작과 비평사.
- 이인규(2001). 학교붕괴의 원인과 해결방안. 오늘의 청소년. 5. 서울: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 이장호(1997). 상담심리학. 서울: 박영사. pp. 438~439.
- 이재우(1973). 중학교 중퇴원인과 예방에 관한 연구. 교육학연구, 11(1), pp. 52~78.
- 이종상(1985). 고등학교 학생들의 중퇴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춘화 외(2001). 학생징계 및 재입학제도 개선연구. 서울: 교육인적자원부 · 한국청소년개발원.
- 장석민 외(1988). 중퇴 및 비진학 청소년의 진로실태에 관한 조사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전교조참교육실천위원회 편(1999). 학교붕괴. 서울 : 푸른나무.
- 정지인(1997). 학교부적응 학생들의 중도탈락예방을 위한 학교사회사업의 역할연구.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정진구(1999). 고등학교 복학생들의 퇴학 · 복학의 원인과 자아정체감 및 학교부적응과의 관계.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조선일보. 1999. 10. 6. 과학고: 경직된 입시가 부른 '자퇴 비극'.
- 조아라(2000). 중 · 고등학교 학업중퇴생 증가의 원인과 대책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 논문.
- 조아미(2001). 강남구 청소년의 등교거부와 학교중퇴 현상에 관한 연구. 늘어나는 청소년등교거부, 어떻게 해야 하나. 서울: 강남청소년회관(학원폭력신고센터 개원 5주년 세미나 자료집, 2001. 10. 11).
- 조용환(2000). 교실붕괴의 교육인류학적 분석 : 학교문화와 청소년문화의 갈등을 중심으로. 교육인류학연구, 3(2). 서울 : 한국교육인류학회.
- 조혜정(1995). 학업중퇴자연구의 또 다른 차원: 학교거부의 사회문화적 맥락과 대책. 학업중퇴자 - 실태와 대책. 서울: 연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 조혜정(1997). 학교를 거부하는 아이, 아이를 거부하는 사회. 서울 : 또하나의 문화.
- 조혜정(1999). 청소년문제에서 청소년존재에 대한 질문으로 : 한국의 근대화와 청소년의 주체형성, 왜 지금 우리는 청소년을 이야기하는가 : 청소년과 근대성. 서울 : 연세대청년문화센터(1999. 10. 30. 국제학술심포지움 자료집).
- 중부매일. 2001. 8. 14.
- 중앙일보. 2000. 10. 15.
- 진동섭(1996). 정보화 사회에서의 교육체제의 재구조화. 교육학연구, 34(4). 서울 : 한국교육학회. 56-57.
- 천세영(1997). 정보사회에서의 학교교육의 변화 방향. 교육연구. 17(6). 서울: 한국교육생산성연구소.
- 천정웅 · 한상철 · 임지연(2000). 현안 청소년문제 분석 연구.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최영신(2000). 비행청소년의 학교재적응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최인용 외(1996). 부산지역 중·고교 중퇴청소년 실태조사 연구보고서. 부산광역시.
- 패러다임 팀(2000). 일본 청소년운동의 새로운 시도를 찾아서(글로벌벤처 마킹 2000 청년세계탐구단 제 1기 일본탐방 보고서, 2000. 2. 23~3. 1). 서울 : 청년세계탐구단.
- 표갑수(1992). 학교중퇴의 원인과 과제. 학생생활연구. 14. 청주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2000). 국민의 정부 교육정책에 대한 중간평가. 서울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한국교육개발원(1996). 한국교육비전 2020 : 세기의 대전환. 서울 : 한국교육개발원(연구보고, RR96-4). 160-162.

- 한국청소년개발원(1999). 학교붕괴실태 및 대책 연구. 서울 : 한국청소년개발원.
- 한국청년의 전화(1999). 학교중도탈락청소년의 실태('99 청소년 희망찾기 자료집). 서울: 한국청년의 전화.
- 한국형사정책연구원(1993). 학교가 청소년비행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한이영 외(1999). 학교와 사회복지. 서울: 학문사.
- 한중철(1996). 교육심리학. 서울: 양서원. pp. 73~74.
- 한준상(1999 a). 청소년문제. 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 한준상(1999 b). 호모에루디티오. 서울: 학지사.
- 현연화(1998). 중고등학교 복교생의 중도탈락 예방을 위한 학교사회사업서비스에 관한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황정숙(1999). 중퇴경험생과 일반재학생의 자아정체감 및 성격특성 비교연구. 강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황창순(1995). 학업중퇴자 문제와 대책. 학업중퇴자 - 실태와 대책. 서울: 연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 황창순(1996). 청소년 학업중퇴의 현황과 사회복지적 대책. 사회과학연구. 2(1), pp. 109~133. 순천향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후지다 히데노리(1999). 기로에 선 학교 - 학교상의 재검토. 처음처럼, 16. 서울 : 내일을 여는 책.
- 河上亮一(1999). 學敎崩壞. 東京 : 草思社. 이충일 역(1999). 변해버린 아이들, 무너지는 학교. 서울 : 조선일보사.
- Astone, N. M. & McLanahan, S. S.(1991). Family structure, parental practices and high school completion.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56.
- Astone, N. M. & McLanahan, S. S.(1994). Family structure, residential mobility, and school dropout: A research note. Demography,

Vol. 31. No. 4.

- Barclay, A. & Cervantes, L. F.(1969). The TAT as an index of personality attitudes of the adolescent dropout. *Adolescence* 4 (Winter).
- Barrington, B. L. & Hendricks, B.(1989). Differentiating characteristics of high school graduates, dropout, and non-graduates.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Vol. 83.
- Baumrind, D.(1968). Authoritarian vs. authoritative parental control. *Adolescence*, 3, pp. 255~272
- Bhaerman, R. D. & Kopp, K. A.(1988). *The School's Choice: Guidelines for dropout prevention at the middle and junior high school.* The National Center for Research in Vocational Education. The Ohio State University.
- Capuzzi, D. & Gross, D. R.(1996). *Youth at risk: A Prevention resource for counselors, teachers, and parents.* American Counseling Association.
- Dornbusch, S. M., Ritter, P. L., Leiderman, P. H., Robert, D. F. & Fraleigh, M. J.(1987). The relation of parenting style to adolescent school performance. *Child Development*. 58.
- Ekstrom, R. B., Goertz, M. E., Pollack, J. M. and Rock. D. A.(1986). Who drops out of high school and why? Finding from a National Study. *Teacher's College Record* 87.
- Fennimore, T. F.(1988). *A Guide For Dropout Prevention.* The National Center for Research in Vocational Education. The Ohio State University.
- Franklin, C.(1992). Family and Individual Patterns in a Group of middle-Class Dropout Youths. *Social Work*. Vol .37: No. 4.

p.338.

- Harris, L. H.(1983). Role of trauma in the lives of highschool dropouts. Social Work in Education, 5.
- Hathaway, S. R. & Monachesi, E. D.(1963). Adolescent Personality and Behavior. Mineapolis: The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 Havenman, R., Wolfe, B., & Spaulding, J.(1991). Childhood events and circumstances influencing high school competition. Demography, 28.
- Hirsch, T.(1968). Cause of Delinquenc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p. 135
- Hjelle, L. H. & Ziegler, D. J.(1981). Personality Theories: Basic assumptions, research and applications. McGraw-Hill Book Company. 이훈구 역(1991). 성격심리학. 서울: 법문사. p 402.
- Levine, R. E.(1979). Juvenile Delinquency and Its Origins: An Integrated Truancy. Social Work in Education 6.
- Maccoby, E., & Martin, J.(1983). Socialization in the context of the family: Parent-child interaction. In E. M. Hetherington(Vol. Ed.) & P. H. Mussen(Series Ed.),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Vol. 4. Socialization, Personality, and Social Development. New York: Wiley.
- McWhirter, J. J., McWhirter, B. T., McWhirter, A. M., & McWhirter, E. H.(1998). At-risk youth: A comprehensive response. California: Brooks/Cole publishing company.
- Morrow, G. P(1986). Standardizing Practice in the Analysis of Dropouts. Teachers College Record. 87.
- Rumberger, R. W., Ghatak, R., Poulos, G., Ritter, P. L., & Dornbusch, S. M.(1990). Family influences on dropout behavior in one

- California high school. *Sociology of Education*. 63. pp. 283~299
- Sebald, Hans(1992). *Adolescence: A social psychological analysis*, 4th edition, Englewood Cliffs, New Jersey: Prentice Hall.
- Serbin, L. A., Schwartzman, A. E., Moskowitz, D. S., & Leningham, J. E.(1991). Aggressive, withdrawn, and aggressive/withdrawn children in adolescence: into the next generation. In D. Pepler and K. Rubin(Eds.), *The Development and Treatment of Childhood Aggression*. Hillsdale, N. J.: Lawrence Erlbaum. pp. 93~120.
- Shaub, T. M.(1997). *Life Stories of High-Risk White Female Teens: Qualitative Retrospective Interviews with Adolescents Ten Years After Participation in a Dropout Pregnancy Prevention Program*. Oregon State University.
- UNESCO.(1980). *Reflection on the Future Development of Education*. Paris. 홍재성 역(1989). *정보사회와 교육*. 서울: 나남출판사.
- U. S. News World Report.(1980). What's being done about the dropouts. *U. S. News World Report*. June 2.
- Wagenaar, T. C. (1987). What do we know about dropping out of high school? *Sociology of Education and Socialization*. Vol. 7.
- Williams, P.(1963). School drop-outs. *NEA Journal*. Vol. 52(Feb.)

자발적 학업중도탈락현상 발생요인에 관한 연구

안녕하십니까.

이 설문지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자발적 학업중도탈락> 현상에 관한 연구의 일환으로, 현재 자발적으로 학업을 중도에 포기하거나 그만 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그 원인을 파악·분석·조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한국청소년개발원의 지원을 받아 수행하고 있는 이 연구는 궁극적으로 자발적 학업중도탈락 청소년을 위한 사회적 지지망 구축 및 지원서비스 등 정책적인 제안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본 연구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모든 문항에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응답은 맞고 틀린 것이 없으며, 응답된 내용은 학문적 목적으로만 사용될 뿐이므로 여러분의 개별응답은 절대 비밀이 보장됩니다.

모든 문항에 빠짐없이 성의있게 응답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2001년 9월 20일

주성대학 청소년문화학과

김 민

유의사항

1. 각 문항에 대해 빠짐없이 솔직하게 응답하여 주십시오.
2. 특별한 지시가 없는 한 각 문항에 대해 하나의 대답만 선택하여 주십시오.
3. 그 밖의 의문상황이 있을 때에는 조사원에게 문의하여 주십시오.

통계처리를 위한 기본사항

다음은 여러분의 일반적인 사함에 대한 질문입니다. 응답결과는 비밀이 보장되니 빠짐없이 솔직하게 응답해 주십시오. 표기는 내용을 기입해 주시거나 해당하는 칸에 표시하면 됩니다.

1. 당신의 성별은?
() 1) 남성 () 2) 여성
2. 당신의 연령은? 만 세
3. 학교를 그만두기 전에 다니던 학교와 학년은?
() 1) 초등학교 () 2) 중학교 학년
() 3) 인문계고등학교 학년 () 4) 실업계고등학교 학년
() 5) 특수학교 학년 () 6) 각종학교 학년
() 7) 기타 _____
4. 현재 당신이 소속하고 있거나 관심을 두고 주로 활동하는 곳은?
() 1) 소속이 따로 없다 () 2) 취미나 동아리 모임
() 3) 대안학교 () 4) 시민사회단체
() 5) 검정고시학원 () 6) 대학
() 7) 기타 _____
5. 검정고시학원을 다니고 있는지 혹은 다녔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에 V표시를 하십시오
() 1) 전에 검정고시 학원에 다닌 적이 있지만 지금은 아니다
() 2) 현재 검정고시 학원에 다니고 있다
() 3) 검정고시 학원에 다니지 않았지만 다니고 싶거나 다닐 생각이다
() 4) 검정고시 학원에 다닐 생각이 전혀 없다

6. 당신 가정의 생활정도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합니까?

- () 1)상충 () 2) 중상충
() 3) 중하충 () 4) 하충 () 5) 극빈충

다음 보기에서 부모님의 교육정도(학력)를 골라 ()안에 번호를 기입하십시오.

<<보기>>

- ① 무학 ② 초등학교 중퇴 ③ 초등학교 졸업 ④ 중학교 중퇴
⑤ 중학교 졸업 ⑥ 고등학교 중퇴 ⑦ 고등학교 졸업 ⑧ 대학(전문대포함) 중퇴
⑨ 대학(전문대포함) 졸업 ⑩ 대학원 졸업

7. 아버지 () 8. 어머니 ()

9. 형제자매나 가까운 친척 중에 자발적으로 학업을 그만둔 사람이 있습니까?

- () 1) 있다 () 2) 없다

10. 당신의 친부모님은 두 분 모두 살아 계십니까?

- () 1) 친아버지, 친어머니 모두 계신다 () 2) 친아버지와 계모가 계신다
() 3) 친어머니와 계부가 계신다 () 4) 친아버지만 계신다
() 5) 친어머니만 계신다 () 6) 두 분 모두 돌아가셨다

11. 당신은 지금 누구와 함께 살고 있습니까?

- () 1) 친부모님과 함께 산다 () 2) 친아버지와 계모와 함께 산다
() 3) 친어머니와 계부와 함께 산다 () 4) 친아버지하고만 산다
() 5) 친어머니하고만 산다 () 6) 다른 친척과 함께 산다
() 7) 다른 사람과 함께 산다 () 8) 혼자 산다

12. 만일 친부모님 모두와 함께 살고 있지 않다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11번에 보기 1에 응답한 사람은 13번으로 가 응답하십시오)

- () 1) 돌아가셨다 () 2) 이혼하셨다
() 3) 별거중이다 () 4) 부모님 직장문제로 잠시 떨어져 있다
() 5) 내 학교문제로 잠시 떨어져 있는 중이다
() 6) 기타(아래에다 그 이유를 쓰십시오)

이유:

다음 보기에서 부모님의 직업에 해당하는 번호를 ()안에 기입하십시오
(만약 돌아가셨을 때에는 생전의 직업에 해당하는 번호를 기입하시면 됩니다)

<<보기>>	
① 무직	② 전문기술직 및 관련직(의사, 약사, 교수, 교원, 연구원, 변호사 등)
③ 행정 및 관리직(기업체 중역, 5급 이상 공무원)	
④ 사무직(사무원, 비서, 은행원, 6급 이하 공무원)	
⑤ 판매직(도소매 자영업, 보험판매원, 판매원)	
⑥ 서비스 직(요식, 숙박업, 자영업자 및 관리자, 조리사 등)	
⑦ 생산직 종사자	⑧ 농림 수산업, 임업, 광업
⑨ 기타: (아버지)_____ (어머니)_____	

13. 아버지 () 14. 어머니 ()

15. 당신은 앞으로 어떤 직업을 갖기를 원합니까? 위의 보기에서 해당하는 번호를 기입하시고, 만약 보기에 없는 직업이라면 구체적으로 아래 밑줄 위에 적어주십시오.
() 보기에 없으면: _____

다음은 여러분의 개인적 특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역시 응답결과는 비밀이 보장되니 빠짐없이 모든 질문에 응답해 주세요. 해당하는 번호 위에 V 표시를 하십시오.

	매우 그렇 다	그렇 다	보통 이다	그렇 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6. 난 내 자신의 성격이나 특성을 잘 안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17. 난 내 자신의 성격에 대해 항상 '불만'스럽게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18. 난 지금의 나의 모습에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19. 난 내 자신의 장래와 진로에 대해서 고민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20. 난 나의 미래를 위해 착실히 준비하고 있는 중이다	①	②	③	④	⑤
21. 내가 열심히만 하면 성공적인 삶을 살수 있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22. 난 주어진 일을 스스로 해결하려고 한다	①	②	③	④	⑤
23. 난 다른 사람에게 공격적이라는 평을 듣는다	①	②	③	④	⑤
24. 난 다른 사람에게 비판적이라는 평을 듣는다	①	②	③	④	⑤
25. 난 옳다고 생각되는 일에 쉽게 물러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다음은 친구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역시 응답 결과는 비밀이 보장되며 편집없이 모든 질문에 응답해 주세요. 해당 하는 번호 위 혹은 괄호 안에 V 표시를 하십시오.

- [illegible]

35. 친한 친구 중에 학교를 중간에 자퇴한 친구가 있다
☐ ① 있다 ☐ ② 없다
36. 친한 친구 중 근신 이상(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퇴학) 처벌받은 친구가 있다.
☐ ① 있다 ☐ ② 없다
37. 친한 친구 중에 경찰서에 잡혀 소년원이나 교도소에 갇거나 갔다온 친구가 있다
☐ ① 있다 ☐ ② 없다

다음은 여러분의 가정생활에 대한 질문입니다. 역시 응답결과는 비밀
이 보장되니 꼭꼭 읽이 모든 질문에 응답해 주세요. 해당하는 번호 위
혹은 괄호 안에 V 표시를 하십시오.

- [illegible]

44. 부모님은 형제들에 대해 편애하는 편이다
 45. 내가 중퇴한 사실에 부모님은 이해하는 편이다
 46. 내가 중퇴한 후에 부모님이 적극 나를 지원하고 있다
 47. 내가 중퇴한 사실에 형제들은 이해하는 편이다
 48. 내가 중퇴한 후 형제들이 적극 나를 지원하고 있다
 49. 내가 어른이 된다면 부모님처럼 되고 싶다
 50. 난 나의 형제들에 대해 열등의식을 갖고 있다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다음은 학교생활이나 학교에 대한 여러분들의 의견에 대한 질문입니다. 빠짐없이 모든 질문에 응답해 주세요. 해당하는 번호 위에 V 표시를 하십시오.

51. 난 학교교육(졸업장)이 내 인생에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52. 학교에서 배운 지식이 내 인생에 도움을 준다고 생각한다
 53.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과 내 관심사는 다른 편이다
 54. 학교생활 중 난 선생님들과 관계가 좋은 편이었다
 55. 난 선생님들을 싫어하는 편이었다
 56. 선생님들이 나를 싫어하는 편이었다
 57. 난 기회가 된다면 다시 학교생활을 하고 싶다
 58. 난 학교생활에서 적극적인 편이었다
 59. 학교생활 중 내 의견은 항상 존중되었다고 생각한다
 60. 난 학교생활에 대해 만족하는 편이었다
 61. 학교에 가기 싫다고 느낀 적이 많았다
 62. 중퇴 이전에 나의 학습태도는 좋은 편이었다
 63. 선생님들이 나의 중퇴를 이해하는 편이었다
 64. 반 친구들이 나의 중퇴를 이해하는 편이었다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65. 학교를 그만 둘 당시 당신의 학업성적은? ()

- ① 최상위권(전교 10등 이내) ② 상위권(반에서 5등 이내)
 ③ 중위권(반에서 10-20등 내외) ④ 하위권(반에서 20등 이하) ⑤ 최하위권

다음은 중퇴이후의 여러분의 삶과 사회환경에 대한 여러분들의 의견을 묻는 질문입니다. 빠짐없이 모든 질문에 응답해 주세요. 해당하는 번호 위에 V 표시를 하십시오.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66. 우리사회에서 '학력'은 성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67. 우리사회에 대해 만족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68. 중퇴 이후 나의 생활에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69. 난 중퇴를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서 지금은 후회한다	①	②	③	④	⑤
70. 중퇴경험은 내 미래의 삶에 불리하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71. 난 가슴충동을 느낀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72. 난 자살충동을 느낀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73. 중퇴이후 청소년유해업소에 출입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74. 중퇴이후 술(음주)을 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75. 중퇴이후 담배(흡연)를 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76. 중퇴이후 유해한 환경에 대한 관심과 유혹이 커졌다	①	②	③	④	⑤
77. 중퇴이후 학습에 대한 의지와 욕구가 커졌다	①	②	③	④	⑤
78. 중퇴이후에도 상급학교에 진학하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79. 학교가 아닌 다른 곳에서 공부하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80. 여러분이 생각하는 성공적인 삶은 무엇입니까?

- () 1) 많은 돈을 버는 것 () 2) 사회적으로 출세하는 것(명예와 권력)
- () 3) 평범하게 사는 것 () 4) 일류대학에 들어가는 것
- () 5)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성실히 사는 것
- () 6) 다른 사람에게 존경을 받는 삶을 사는 것
- () 7) 기타_____

81. 중퇴 이후 약 20년이 지난 후 당신은 행복하게 살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 () 1) 전혀 행복하지 않을 것이다 () 2) 별로 행복하지 않을 것이다
- () 3) 그저 그럴 것이다 () 4) 어느 정도 행복할 것이다
- () 5) 매우 행복해 할 것 같다
- () 6) 기타_____

82. 중퇴 이후 당신에게 가장 필요한 사람과 기관은 무엇입니까?
- () 1) 계속 공부할 수 있는 학교 이외의 장소와 사람
- () 2) 자신의 관심사를 개발시킬 수 있는 기회
- () 3) 나의 진로를 위해 조언을 줄 수 있는 사람과 기관(진로지도기관)
- () 4) 내가 상담을 할 수 있는 사람과 기관(상담기관)
- () 5) 실질적인 취업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사람과 기관
- () 6) 기타_____

83. 당신이 중퇴를 하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를 아래 보기에서 두 가지만 고르시오
- () 1) 따분하고 지루한 학교생활
- () 2) 내겐 의미없고 필요없다고 생각되는 학교지식과 교과내용
- () 3) 낮은 학업성적 () 4) 선생님과의 관계 악화
- () 5) 교칙위반 () 6) 가정형편
- () 7) 가정불화
- () 8) 나의 삶을 성취하는데 있어 학교에 있는 시간이 아깝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 () 9) 기타(이유를 써주세요) _____

84. 당신이 중퇴를 결정할 당시 중퇴결정은 심각하게 고려되었습니까?
- () 1) 매우 충동적이었다 () 2) 약간 충동적이었다
- () 3) 잘 모르겠다 () 4) 신중한 편이었다
- () 5) 매우 신중하였다
- () 6) 기타(이유를 써주세요)_____

85. 당신이 중퇴를 결정할 당시 누구의 결정이 가장 중요했습니까?
- () 1) 부모님 () 2) 학교 () 3) 나 자신
- () 4) 나와 부모님 모두 () 5) 친구

※ 질문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부록 2> 【자발적 학업중도탈락현상 발생요인에 관한 연구】

설문조사 안내

대안교육현장에 계시는 선생님들께,

학교가 모든 '교육'을 대변하던 시대에서, 학교 이외의 대안적 교육장면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요즘 부러 '탈학교' 청소년들이 이제 더 이상 '소수 부족' 문제가 아니다"라는 서울시대안교육센터의 설립취지가 공감을 얻는 것 같습니다. 그런 만큼, 대안교육의 장면에서는 다양한 학습자의 요구를 어떻게 포섭하고 이끌 것이며, 또 학교를 포함한 지역사회의 다양하고 풍부한 인력·물적 자원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그리고 효율적으로 네트워크 시키느냐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아직까지 우리 사회의 자원체제는 이를 충분히 뒷받침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학업중도탈락 청소년에 대한 지원망은 여전히 비행과 이탈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선행 연구들 역시 이에 크게 벗어나 있지 못합니다. 학교교육은 내적으로 위기라면서 적극적인 대응장면을 구안하는데 터디기만 하고, 학교 외의 장면은 여전히 제한적인 자원체계 안에서 다양한 학습자들의 욕구와 요구를 '소수의 문제'로만 간파하기 일쑤입니다.

이에 저는 자발적 학업중퇴자들이 그간 수행되어온 연구결과와 비교해 어떤 유의미한 발생요인의 차이가 있는지를 밝혀보고자 합니다. 적어도 자발적 학업중퇴자들은 그 동안 다루어진 학업중도탈락 요인(개인적 특성, 가정적 배경, 또래집단, 학교교육, 사회적 환경) 중 학교교육에 대한 저항적 요소가 심할 것이라는 가설을 삼고 있으며, 그 외에도 여타의 다른 발생요인에 있어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문제는 자발적 학업중퇴자들을 만나기가 쉽지 않다는 점에 있습니다. 제한적인 수치 면에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할 자발적 학업중퇴자들을 안정적으로 만나볼 기회가 많지 않다는 점은 그만큼 이들이 사회적 활동 상에 제한적이라는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는 적어도 어떤 현상을 지적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고 있다고 자평하기도 합니다.

아무쪼록 여러 선생님들이 지금 하시는 귀한 활동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대안교육장면에서 '자발적 학업중퇴자' 혹은 '자발적 학업중퇴경험을 갖고 있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본 연구의 설문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협력과 지원이 제 연구에 큰 도움이 되겠지만, 결국 부메랑처럼 돌아와 다양한 대안교육장면을 요구하는 오늘날의 청소년들의 삶을 살찌울 것이라고 감히 말씀드리면서, 다시 한번 설문조사에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부탁으로 인사말씀을 대신합니다.

<<설문조사 작성요령>>

▲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가요?

대상자는 현재 자발적 학업중퇴를 경험 한 9이상 24세 청소년으로 제한하고자 합니다. 다만 지금은 학교를 다니더라도 이 시기에 자발적 학업거부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도 가능합니다. 자퇴를 생각하고 있지만 현재 정규학교를 다니고 있는 청소년에게는 해당되지 않음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 청소년들에게는 본 설문조사 문항이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1998년 3월에 개정·공포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 91조(특성화고등학교) 규정에 따라 인성교육을 중심으로 하는 대안교육 특성화고등학교는 해당됩니다.

▲ 설문지의 구성과 기본 작성요령은 어떻게 되나요?

설문지의 구성은 인구통계학적 변인을 묻는 문항(1번부터 15번)과 개인적 특성(16번-25번), 도래집단 특성(26번-37번), 가정적 배경요인(38번-50번), 학교생활 경험(51번-65번), 중퇴 및 중퇴 이후의 생활 및 사회관(66번-85번)에 대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작성요령은 각 문항에 보기 하나만을 골라 V 표시나 ○ 표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만약 보기 중에 적절한 보기가 없을 때에는 기타 란을 활용하거나, 혹은 무응답 하되 빈 공간에 자신의 입장을 서술해주시면 됩니다.

▲ 설문대상자에게 조사 전에 미리 설명할 내용은 무엇인가요?

본 연구의 의의를 잠깐이라도 소개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발적 학업거부경험자들은 자신들의 내면의 이야기, 삶의 경험 이야기를 꺼내놓는 데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비록 설문조사를 한다 하더라도 쉽게 공감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설문조사와 연구가 갖는 의의(지금까지의 선행연구와 학업중도탈락 대응체제들이 갖는 제한점, 이 조사 후 정책적 변화에 대한 제언이 이루어진다는 점 등)을 조사 전에 잠깐이라도 설명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울러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것은 이 문항 중에는 자발적 학업중퇴자들에게 유효하지 않을 수 있는 문항도 있습니다. 마치 비행소년이나 일탈 청소년들의 학업중퇴처럼 낮은 학업성적과 비행경험의 유무를 묻는 문항도 있는데, 이는 단지 지금까지 수행되어온 선행연구 결과와의 차이를 드러내기 위한 문항이란 점을 설명해주시십시오.

즉, 기존의 학업중퇴현상들은 범죄소년이나 비행소년으로 제한하였기에 개인적 성격, 학업성적 및 학교 부적응, 가정배경 상의 문제 등을 중심으로 다루어 왔습니다. 이에 반해 자발적 학업거부 청소년들은 기존의 발생요인들과는 유의미한 차이를 가질 것이라 보기에 같은 문항을 다루었을 뿐입니다. 이 점을 알기 위해 작성된 설문문항이라고 설명해주신다면 더욱 좋겠군요.

▲ 회신은 어떻게 하나요.

제가 드리는 회신봉투에 보내는 사람과 단체의 주소를 기입하여 가급적 빨리 보내주시요. 등기와 빠른 우편으로 보낼 수 있도록 조치해 놓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1) 본 연구에서 정의하는 자발적 학업중도탈락이란 용어개념, 곧 “청소년 스스로 학업의지가 있으면서 학교교육을 거부하거나 포기하는 현상”에 근거한다면 자발적 학업중도탈락이란 말에도 어폐가 있다. 탈락이란 말에는 “어떤 기준에 미치지 못해 소속되지 못하거나 뒤떨어진 현상”이란 의미도 함의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학업중도탈락이란 말 대신에 ‘중퇴’란 말을 쓰기도 하고 혹은 ‘등교거부’, ‘학업거부’라는 용어도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중퇴란 말을 혼용하였지만, 아직까지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중도탈락이란 말을 사용하기로 하였다. 대신에 등교거부, 학업거부라는 용어는 가급적 삼갔다. 왜냐하면 첫째, 학업거부라면 학업을 포기하는 청소년을 아우르지 못하고, 둘째, 포기하는 청소년과 거부의 경계가 분명하지 않으며, 셋째, 거부한 결과가 학업중도탈락이기 때문에 등교거부나 학업거부는 과정적인 개념이고, 넷째, 분명한 거부자의 경우 현재로써는 소수이기 때문에 용어상의 적용범주가 너무 제한적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학업중도탈락이란 말 자체가 갖고 있는 어폐를 최소화하는 새로운 개념을 정의하기 위한 후속논의는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또 등교거부나 학업거부가 갖는 의미가 아직은 제한적이지만 자발적 학업중도탈락과 연결되는 개념으로 갖는 의미가 적지 않기 때문에 별도의 후속연구도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조아미(2001: 8)는 학교중퇴와 등교거부는 서로 비슷한 말이지만 서로 다른 개념이라고 하면서 등교거부가 학교중퇴로 이어질 확률이 많기 때문에 현재의 학교중퇴생보다도 등교거부생은 더 중요할 수도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 2) 우리 사회에서 자발적 학업중도탈락 청소년들을 만나기란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현재로써 이들이 집단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곳은 대안학교 혹은 대안교육 장면뿐이며 이외의 장소에서 이들만의 안정적인 참여공간이나 기회장면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다양한 생활장면에서 자신의 삶을 일구어 가는 자발적 학업중도탈락 청소년들을 만난다는 것은 지금의 실정에서 매우 어렵다. 실제로 연구자가 만나거나 도

움을 요청한 75명의 표집대상자들 중 생활장면에서 찾아 만난 청소년은 두 명이었다. 한 명은 현재 24시간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17세 소녀였고, 또 한 명은 바텐더로 일하고 있는 21세 직장인이었다. 이들은 학교가 너무 싫어서 혹은 학교교육보다 내가 하고 싶은 일(카태일 바텐더) 때문에 스스로 학교교육을 중도에 그만둔 경우였다. 그러나 이들 역시 자신의 학력에 대한 열등감으로부터 자유롭지는 않다고 고백하였다. 언젠가 공부하고 싶다는 의지가 생기면, 혹은 지금 하고 있는 일과 관련된 전공이 생기면 검정고시를 통해 고졸 학력을 취득하고 대학에 진학하겠다는 생각에는 둘 다 공통적이었다. 이들 외의 표집대상자들은 모두 대안교육 혹은 대안학교에서 만난 청소년들이었다.

3) 이러한 시도들은 대체로 사회복지학과 상담학의 영역에서 주로 수행되었다. 예컨대, 지속적인 학습의지를 갖고 있는 복교희망 중퇴청소년들의 욕구들을 조사하여 이를 기초로 중퇴청소년의 원만한 학교지원방안을 모색하거나(박수민, 1998), 학교적응을 위한 학교사회사업의 활용가능성을 모색한 연구들(참고: 김선희, 1997; 현연화, 1998; 문선화 외, 1998; 정지인, 1999; 석숙이, 2000)은 주로 사회복지학의 영역에서, 그리고 중도탈락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사회적응 상담정책 개발연구 및 상담을 활용한 개입체제 연구(이숙영, 1997; 유성경·이소래, 1998; 남상인, 2000)는 상담학의 연구에서 활발히 수행되었다.

4) 독재적인 부모는 자신들이 설정한 원칙과 기준을 자녀들이 내면화하고 따르기를 바라고 때문에 청소년기에 필요한 자율성의 발달을 억제하며 정체감 형성에 장애가 된다. 때로는 자율성이 억압된 권위주의적 부모를 둔 청소년기 자녀들은 부모의 통제에 대한 반발로 비행으로 빠져들 위험이 있다.

자녀에게 원칙을 제시하지 않으며 스스로 결정도록 하는 허용적 부모는 청소년기의 자율성을 촉진할 것으로 생각하기 쉬우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허용적인 가정에서 자란 청소년들은 오히려 지나친 통제의 결여로 인해 자신이 버림받고 있다고 느끼거나 혹은 적절한 통제감의 부족으로 혼란스러워 하므로 이러한 가정에서 양육받은 청소년들은 이 시기에 정서적이며 행동적인 문제가 나타나는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권위가 있는 유형의 부모들은 명확한 행동기준과 함께 적절한 정도의 자율성을 부여하므로 이러한 가정의 청년들은 적극적이며, 책임감이 크고, 독립적이며, 자아존중감이 높고, 학업성적도 또한 높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Baumrind, 1968: 255~272).

5) 독재적이고 전체적인 양식의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은 권위적인 주장들로 특징지어진 자녀양육, 규칙에 대한 맹종이 기대되고, 때때로 부모에 대해 요구해도 수용되지 못하는 경험을 갖는다. 이러한 자녀양육의 환경에는 부모 자녀간의 대화와 온정이 거의 없으며 신체적인 처벌도 많다. 부모를 중심으로 본다면 높은 자기분위와

낮은 공감성이 특징이다.

관대하고 허용적인 가정의 부모들은 합리적으로 공감하되 자녀양육의 통제는 가급적 피하려고 한다. 그러한 부모들은 역지로 아이들에게 규칙을 강요하지 않으며, 상대적으로 성숙된 행동을 요구하지도 않는다. 처벌사용도 피하고 행동에 대해서도 관대함을 갖는다. 이들은 낮은 자기본위를 갖되 자녀에 대한 공감성은 높다.

냉담하고 무관심한 부모는 자녀양육에 대해 자기 시간을 투자하지 않는다. 이는 자녀양육을 성가신 일로 보기 때문이다. 다른 가정에서 보편적으로 보여지는 중요한 자녀양육의 기능들이 이런 가정에서는 잘 발견할 수 없다. 이들은 자기본위와 공감성 모두가 낮다.

권위도 있으며 자녀와 상호호혜적인 부모들은 자녀의 욕구에 응해주되 동시에 자녀가 자신의 욕구에 역시 책임지기를 기대한다. 이런 유형의 부모들은 구두로 격려하며 필요하면 규칙을 강화하고 성숙한 행동도 기대하며 독립을 지지하기도 한다. 자녀가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도록 격려함으로써 심리적 자율성도 배양해준다. 또 부모들은 규칙과 통제에 대해 역시 합리적으로 주장한다. 이런 유형의 부모는 자기본위와 공감성이 모두 높다(Mccoby & Martin, 1983).

- 6) 유성경·이소래의 연구(1998: 32)에서도 학업성취능력과 자발적 학업중도탈락 청소년에 대한 절박한 언급은 있다. 즉, “최근에는 중도탈락 청소년 중에는 학습이외의 관심사를 추구하기 위해 적극적, 자발적으로 중퇴하는 청소년이 있다. 예를 들어 대중음악을 하기 위해, 일찍부터 돈을 벌기 위해 학교에 다니는데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기보다는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는데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기로 결정하기도 한다”라는 논의가 그것이다. 그러나 이들의 학습수행 및 학교생활의 참여가 저조한지, 저조하다면 왜인지에 대해서는 언급되어 있지 않다. 이는 연구주제 및 대상이 잠재적 중도탈락 청소년이다 보니 자발적 학업중도탈락 청소년에까지 연구 관심이 이르지 못한 결과라고 보여진다.
- 7) 갈등이론과 탈학교론, 탈근대적 학교교육론은 연구자가 지난 해 연구한 <학교실패 현상에 대한 문화론적 연구>(한국청소년개발원, 2000b)에서 세부적인 내용들이 논의되어 있다. 여기서는 교육재구조화론과 공교육강화론을 중심으로 기술하였다. 교육재구조화론은 전의 연구에서는 거의 언급되지 않은 주제이고 공교육강화론은 부분적으로 언급되었지만 여기서 크게 수정·보완하였다.
- 8) ‘탈근대적 학교교육론’ 혹은 ‘탈근대적 학교개혁론’이란 이름은 연구자가 이미 수행한 연구(김민, 2000b 참조)에서 사용되어졌다. 탈근대적 학교교육론의 중핵적인 요소들은 사회의 급격한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지 못한 학교교육의 경직성·확일성·물개성화에 대한 체제이론(system theory)적 비판이며 사회학적 비평이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하자면 학교현장은 오늘날 우리 사회가 보여지는 근대성과 탈근대성의 압축적 충돌지점(비동시성의 동시성)이며, 이것이 바로 지금의 학교교육 실패

현상을 비롯한 공교육 위기현상의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다.

- 9) 교육재구조화론에서 바라보는 산업화사회에서의 학교교육은 전형적인 '공장모형'으로 비유된다(김종두, 2000: 26~27). 교장과 교사는 공장의 관리인이며, 학생은 공장의 노동자이고, 수업은 조립라인, 교육과정은 공정과정이 되고, 학습내용은 원재료가 되어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산업화사회 이후 정보화사회에서는 새로운 변화에 능동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학교교육 체제를 갖추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지금까지 이루어져 온 관료주의 체제에서 벗어나 개인이 사회의 요구에 적응하면서 생존할 수 있는 다양화를 기본목표로 하여야 한다.

이러한 기본목표는 매일경제신문(2001. 4. 8)이 작성한 학습혁명보고서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진술되어 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산업화시대의 교육 패러다임이었던 △ 교수(teaching) 우선주의 △ 재정보능주의 △ 국가관리주의를 과감히 버리고, 지식경제시대에 걸맞게 △ 학습(learning)중심의 지식창조형 공교육 구축 △ 시장주의 확립 △ 기업도 교육주체라는 3대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학습혁명의 3대 과제를 위한 실천방안으로 △교과서 해체(교과서디지털화) △ 교육과정 구성을 교사에게 환원(공통기본과목의 최소화) △ 고등학교의 대학식 개편(학점, 전공제 도입, 선취학점 인정, 국민공통교과 중 3으로 단축, 자립형 고교, 특수목적고 50%까지 확대) △ 대학은 운영이 아닌 경영으로 변화(총학장의 CEO 화, 기부입학제 단계적 도입) △부실학교의 기업위탁 △ 학습최우선 기업문화 조성(기업내 학교설치, 운영자율화, 근로자 자기계발 기회 제공) △ 평생학습 고용부 신설(교육부와 노동부 통합, 사내대학 정규대학화, 평생학습체제 조기마련) 등을 제안하였다.

- 10) 학교폭력은 크게 학생과 학생간의 폭력, 학생에게 가하는

교사의 폭력, 교사에게 가하는 학생의 폭력, 그리고 학교제도가 학생, 교사에게 가하는 폭력 등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참고: 김 민.(2000c). 청소년문제와 그 대책: 폭력을 중심으로(중등교감자격연수과정 연수교재). 충청북도단체교육연수원. p. 300>. 초기에는 학교폭력 하면 학생간의 폭력, 혹은 학생에게 가하는 교사의 폭력을 주된 문제로 삼았고 특히 처벌을 금하게 한 정책은 교원의 사기를 저하시킨 요인이었다. 최근에는 교사에게 가하는 학생의 폭력현상도 심심치 않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폭력은 교단의 사기를 심각하게 저하시키는 요인이다.

- 11) 실제로 본 연구과정에서 각 시·도 교육청의 도움과 협조를 받기가 매우 어려웠다. 이유인즉슨, 관찰하고 있는 지역 각급 학교의 치부를 보여주기 어렵다는 것이다. 실제로 대부분의 시·도 교육청에서는 이 자료들이 '대외 비'였다. 그러나 자발적 학업중도탈락의 원인을 밝히지 않고 묻어두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치부라 생각한다. 연구자는 이러한 이유로 인해 교육통계연보에 자발적 학업중도탈락의 통계기준이 설정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 없었다. 차체에 통계자료의 접근에 대한 관계기관의 유연하고 개방적인 태도변화를 기대한다. 아울러

이 기회를 빌어 용기있게 통계자료를 보내 준 곳에는 진정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한다.

- 12) 영산성지고등학교 표집에는 영산원불교대학 전명기 교수님이 도움을 주셨고, 영산성지고등학교에서는 바쁜 일정에서도 박도휴 선생님이 협력해 주셨다. 광주에서는 정민기(디지털 복지운동가)선생님이 협력을 하여 광주탈학교모임 청소년을 대상으로 약 30여부의 설문응답지를 보내주었다. 그러나 이 자료가 중도에 배달사고로 인하여 연구자에게 접수되지 못하였다. 자발적 학업중도탈락자들을 쉽게 찾을 수 없는 현실여건 상 매우 아쉬운 사고였다. 세 분께 감사하다.